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신 원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종 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신 원

김신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u></u>
부위	원장	@
위	원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내포 독자의 개념과 그 구성 원리를 밝히고, 상소문 쓰기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독자 인식을 길러 줄 수 있는 설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득적 글쓰기와 독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독자 구성은 글쓰기 과정 차원과 논증 차원,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층적 개념이라는 것을 밝혔다. 글쓰기 과정 차원에서 독자 구성은 필자의 인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 활동으로, 필자가 실재하는 대화 상대자를 인식하고 표상하며, 자신의 인지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허구적 독자를 창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논증 차원에서 독자 구성은 보편적 합리성을 지닌 보편 청중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텍스트 내용을 통해 구성된 독자는 실재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전략으로서 텍스트에 구축되며 실재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취할 역할로서 기능하므로 내포 독자라고 볼 수 있다.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 재현'과 '수화자와 필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구성되고,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역할 또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수화자는 텍스트 내에 필자가 구성하는 필자의 대화 상대자로, 텍스트의 전개 과정에서 태도를 조정해 나간다. 필자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표상하고 이를 수화자와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태도는 주체의 감정적 반응,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주체의 윤리적 판단,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주체의 가치 평가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필자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필자의 태도를 표현하는가운데 필자의 태도와 실재 독자의 태도가 일치하는지 나타냄으로써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할 수 있다. 필자는 논증 요소와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텍스트에서 수화자의 태도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 과정을 전개하고, 이렇게 하여 실재 독자와 구별되며 필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내포

독자를 구성한다.

독자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글쓰기 양식인 상소문 쓰기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상소문이 전제 군주를 수신자로 삼는 데 특징이 있는 양식이지만 필자가 수신자의 행동과 태도, 발화를 응답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여 응답적 이해를 실현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고찰은 학습자가 다양한 대화 상대자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쓰기 상황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여 설득 전략을 운용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해 주므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상소문의 필자가 내포 독자의 정체성을 '협력적 대화참여자', '가치 규범의 준수자',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로 구성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실재 독자와 내포 독자, 수화자를 분리하였으며, 전제를 정당화하고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상정하거나, 동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화자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전략을 통해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등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설득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 구성 원리와 양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현시적 교수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내용을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해'와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수행'으로 구성하고, 내포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읽기와 쓰기 활동의 통합 및 피드백 제공을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 사이의 응답적 대화라는 관점에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소문이라는 실제 자료로부터 그 양상을 밝혀 현대의 글쓰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설득적 글쓰기, 독자 구성, 내포 독자, 수화자, 상소문 쓰기

학 번: 2015-21911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사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1) 연구 대상	8
2) 연구 방법	19
Ⅱ.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전제	23
1. 설득적 글쓰기로서 상소문 쓰기의 특성	23
1) 상소문의 소통 환경과 장르 관습	23
2) 우월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적 글쓰기	28
3) 응답적 이해로서의 설득적 글쓰기	30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	33
1) 설득적 글쓰기에서 독자 구성의 개념	33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	39
3.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원리	52
1) 실재 독자와 수화자의 분리	54
2)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56
3) 설득 전략을 활용한 수화자의 태도 조정	61
4.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연구의 작문 교육적 의의·	65
1) 응답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자의 독자 인식 성장	65
2) 설득 전략 구사를 위한 독자 교육 내용 제시	67
Ⅲ.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70
1.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양상	70
1) 실재 독자의 태도 서술	70
(1) 협력적 소통 가능성의 발견	70

(2) 문제 상황과 관련된 태도의 직접적 서술 74
2) 필자 태도와의 정렬 여부 표현 78
(1) 사회·문화적 전제를 활용한 협력적 관계 구축 78
(2) 문제 상황에 대한 필자와 실재 독자의 태도 불일치ㆍ 81
2. 수화자의 태도 조정 양상 85
1) 점층적 전개를 통한 협력적 태도 강화 86
2)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통한 보편성 구축 93
(1) 인과 관계를 활용한 바람직한 불안 형성 93
(2)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위 판단 기준의 내면화 96
(3) 필자 공신력을 활용한 정당성과 효용성의 결합100
3) 부정적 태도 제거를 통한 특수성 극복109
(1) 비교를 활용한 상황의 특수성 재평가109
(2) 대화 참여자 확장을 통한 자기중심적 인식의 중지 …113
(3) 공동의 목적 중심의 논증을 통한 불안 해소120
3. 상소문에 구성된 내포 독자상의 성격 127
1) 협력적 대화자128
2) 가치 규범의 준수자129
3)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131
$ extbf{IV}$.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육 설계 \cdots 134
1.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의 전제134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내용140
1)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해140
2)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수행146
(1) 실재 독자의 태도 분석 및 내포 독자 구성 목표 설정
(2)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생성152
(3)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조직156
3.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방법 159

1) 내포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읽기·쓰기 활동의 통합	· 159
2) 내포 독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피드백 >	제공
	• 160
V. 결론 ···································	·162
참고문헌	165
Abstract ·····	177

표 목차

<選 I −1>	상소문 관련 선행 연구의 대상 자료 9
<班 I −2>	연구 대상 자료 14
<笠 I −3>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과 특성(이영호, 2013: 435) … 20
<班 Ⅱ-1>	필자와 추정된 독자의 태도 정렬의 언어적 실현
	양상(White, 2020) 60
<班 Ⅱ-2>	킨포인트너(Kienpointner)의 논증 도식 분류
	(Kienpointer, 1992: 182) 64
<笠 Ⅲ-1>	연구 대상 텍스트의 논지 전개 87
< 표 Ⅲ-2>	<논상제소>의 논지 전개 방식 97
<笠 IV-1>	제7차~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독자 관련
	쓰기 영역 성취 기준134
<笠 IV-2>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현시적 교수 모형
	(박영목, 2008:284)136
<班 IV-3>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설득적 글쓰기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147
<笠 IV-4>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생성 전략153
	그 림 목 차
	그 별 즉 시
[그림 Ⅱ-1]	서사적 텍스트의 소통 상황(Chatman 1978/2019: 189)
F = 3 == 0 ⁻¹	41
[그림 Ⅱ-2]	텍스트의 일반적 소통 구조(Fahnestock, 2011: 278)
F =>> ==	43
	평가어 자원 개관(Martin & White, 2005: 38) 58
[그림 IV-1 ₋	상소문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의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모형13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상소문의 필자가 텍스트 안에서 독자를 설정하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밝혀, 학습자의 독자 인식을 길러 줄 수 있는 설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설득적 글쓰기가 주장과 논거, 설득 전략의 기계적결합이 아니라 인격체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설득적글쓰기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를 의도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상대자에게 단지 일시적인 행위의 변화나 양보, 시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대화 참여자의 태도나 가치관의변화, 나아가 그러한 요소로 구성되는 그의 정체성이나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득적 글쓰기는논증 내용의 생성과 조직에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독자, 그리고 바람직한 필자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득적 글쓰기를 통해 필자가 어떻게 독자를 설정하고 독자의 변화를 상정하며 대화 상대자의 역할을 구성해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필자가 독 자를 분석하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행위가 설득적 글쓰기에 어떻게 나 타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글쓰기가 필 자와 타자라는 인격체 사이의 소통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필자가 텍스 트 내에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필자가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중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필자가 독자, 그중에서도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내포 독자는 필자가 텍스트 내에 구축하는 독자 역할 또는 독자의 정체성을 가리킨다. 바흐친(Bakhtin, 1979/2006)에 따르면 텍스트는 하나의 발화로서 어떤 맥락속에서 누군가의 선행 발화에 응답하고 계속되는 반응을 요구하는 수신자 지향성을 지닌다. 발화자로서 필자는 선행 발화들을 인식하고 자신이이해한 대로 그에 대해 반응하며, 그 선행 발화자들이나 또 다른 대화

참여자들을 상상하고 그들의 반응을 가정하면서 자신의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는 곧 선행 발화자에 대한 이해와 후행 발화자에 대한 이해, 기대및 가정이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선행 발화자에 대한 이해와 후행 발화자에 대한 가정이텍스트 내에 내포 독자로 구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내포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 생성과 글쓰기 방식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삼는다.

실제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소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상소문은 기본적으로 군주 정치 제도에서 전제 군주인 임금을 수신자로 하는데 특징이 있는 설득적 글쓰기 양식이다. 비록 오늘날 통용되는 글쓰기양식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현대의 설득적 글쓰기의 원리를 밝히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소문은 수신자가 권력과 지위 면에서 우위에 있는 실제 맥락 속에서 전문적인 필자가 명확한 설득적 목적을 가지고 쓴 글로서, 상소문 쓰기에는 고도의 설득 전략이 다양하게활용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윤리적 책무 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독자'를 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설득적 글쓰기이므로, 독자 구성을 위한 필자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과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상소문의 필자는 어떻게 내포 독자를 구성하였는가?

셋째, 상소문 필자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2. 연구사

이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 연구, 독자 연구, 상소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내용을 마 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설득적 글쓰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필자가 논증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원리와 방법, 그리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밝혀 왔다. 민병곤(2004)은 학습자의 토론과 작문을 분석하여 논증 교육의 내용을 밝혔는데, 이 연 구에서 논증 교육의 전반적인 틀을 세워 논증적 글쓰기와 토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이래 논증적 글쓰기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장성민 (2013)에서는 경험적 논거에 주목하여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연 구하였고, 임지원(2019)은 논증의 중요한 요소인 반론 통합의 방법을 밝 히고 학습자의 수행 양상을 분석하여 논증 수행을 교육할 방법을 마련하 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논거의 생성이나 반박 등 주로 논증의 요소 와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장지혜(2020)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위 상과 방법을 밝혀 논증적 글쓰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논증적 글쓰기 교 육이 지향해야 할 좋은 글쓰기의 의미를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 히 텍스트에서 필자가 에토스를 구축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논증적 글쓰기를 통한 참여자의 정체성 구축 문제를 다룸으로써 본고를 위한 시 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안에 구축된 독자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주로 논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설득적 글쓰기의 연구 주제를 확장하기를 시도한다.

본고는 또한 고전산문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영호(2005)는 『열하일기』의 표현 전략을 분석하여 이념 담론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필자가 설득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견해를 생성하고 표현하는 전략을 밝혔다. 주재우(2011)에서는 고전산문양식인 '설(說)'의 글쓰기 방법을 분석하여 특히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였는데,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 맥락 점검에 의미 있는 글

쓰기 방식을 고전 양식으로부터 분석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희정 (2002)은 글쓰기와 문해력 교육에서 전범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이영호(2014)는 고전산문 자료가 작문 교육에서 지니는 의의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고전산문 글쓰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독자와 관련한 연구로서 이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선행 연구에는 논증과 설득에서 청중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한 수사학 연구, 작문 연구, 문학 연구 중 서사 이론과 독자 반응 이론의 연구, 체계기능언어학을 바 탕으로 한 평가어 이론의 연구들이 있다.

설득, 논증과 독자1)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수사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수사학을 청중을 설득할 수단을 찾아내는 기술로 정립하고, 청중의 유형에 따라 수사학의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설득에서 청중 또는 독자의 개념을 연구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페렐만과 올브레히트-티테카(Perelman & Olbrechts-Tyteca, 1959/1969)는 논거를 발견하는 기술로서의 수사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설득력 있는 논중 유형의 발견이 청중의 선결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논증에 있어서 청중의 기본적 유형과 역할, 중요성을 정립함으로써 독자 연구의 한 이정표를 세웠다.

독자의 개념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에게 관여하는 독자가 누구 혹은 무엇인지를 밝히려 한 파크(Park, 1982), 에드와런스포드(Ede & Lunsford, 1984), 커쉬와 로엔(Kirsch & Roen, 1990), 박영민(2004a), 정희모(2008), 정희모(2012), 양경희(2012), 이재기(2019) 등은 실재 독자와 허구적 독자를 구별하고 각각의 개념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고찰해 옴으로써 이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에드와 런스포드(Ede & Lunsford, 1984)는 그간의 작문 교육에서의 독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전달받는' 실재 존재로서의 청중과 '호출되는' 허구적 존재로서의 청중으로 정리하여 독자 논의에 대한 새로운

¹⁾ 수사학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청중(audience)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글쓰기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로 하게 되므로 작문이나 설득적 글쓰기와 관련한 자리에는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만 화법이나 보다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수사학 등과 관련해서는 청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한다.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경희(2012)는 작문 교육에서 독자에 관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독자 개념을 쓰기 교육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밝힘으로 독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이러한 연구들은 독자의 개념과 정체에 주로 주목한 반면, 글쓰기의 다양한 국면에 작용하는 독자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거나 텍스트 내에 기재된 독자 역할에 주목하는 면에서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작문 과정과 결과 등을 관찰하여 필자가 글을 쓰면서 독자를 고려하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로스(Roth, 1987), 유상희(2008), 정 혜승(2009), 정혜승·서수현(2009), 정혜승(2013), 김혜연(2019), 이슬기 (2019) 등이 있다. 로스(Roth, 1987)는 필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 름대로 예상 독자의 상을 구축하고 그 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밝 힘으로써 독자를 필자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자의 내부에서 구성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유상희(2008)는 대 학생 필자들이 예상 독자의 배경, 의견, 관습, 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필자가 독자 역할을 구성해 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 이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정혜승(2009), 정혜승·서수 현(2009) 등은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 필자들이 독자를 고려하는 양상과 정도를 연구하면서 수사적 이동 개념을 수정하여 PAIR 전략이라는 독자 고려 전략을 정립하는 데 이르렀다. 정혜승(2013)은 이에서 더 나아가 대화적 문식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문의 전체 과정에서 필자가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관찰한 연구로서, 독자 개념과 범주를 확대 하고 필자가 독자를 인식하고 고려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전략을 경험적 으로 연구해 보였다.

텍스트 내에 구축되는 독자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저(Iser, 1978/1993)의 독서 이론을 꼽을 수 있는데, 그가 텍스트 구조이면서 독자의 행위 구조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립한 '내포 독자' 개념은 본고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바흐친(Bakhtin, 1979/2006)은 발화가 수신자 지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 필자의 발화를 통해 독자상을 탐색해 나갈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바흐친의 이론에 바탕을 둔 대화

주의적 관점과 체계기능언어학의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마틴과 화이트 (Martin & White, 2005)나 화이트(White, 2020; White, 2021) 등은 언어 표현, 그중에서도 평가어를 통해 필자의 태도, 나아가서 독자의 태도에 접근할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역시 본고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텍스트 내에 구축해 나가는 독자의 대화 참여자로서의 역할이나 정체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신명선(2009)은 글쓰기 과정에 구성된 존재인 가상 필자와 예상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 양상에 초점을 두고 글쓰기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본고의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

아모시(Amossy, 2000/2003)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모든 담화에는 담화목표와 구별되는 논증적 차원이 있다는 전제 아래 담화 속에 내재한 논증을 분석함으로써 논증분석의 방법을 마련하였다. 한편 박진희·주세형 (2020)은 평가어 이론에 기반하여 건의문 자료에서 필자의 스탠스를 분석하여 필자가 독자와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분석이 건의문 쓰기 교육에 지니는 의미를 밝혔다. 이 연구들은 각각 수사학적 담화분석과 평가어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전체에 나타나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방법을 제안하여 본고의 연구 방법에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상소문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관점에서 상소문의 문학성을 규명하고 문학 장르로서 상소문의 특성을 밝히거나 작문 연구의 관점에서 상소문 을 통해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소문의 문학성을 규명하고 그 장르적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신두환(2004), 최식(2006), 송혁기(2006), 송혁기(2008), 송혁기(2011), 송혁기(2014)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송혁기의 일련의 연구들은 조선 후기 작가들의 한문산문 이론과 비평적 관점을 밝히고 실용문으로 간주되던 상소문의 문학적인 성격을 규명하여 문학의 본질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송혁기(2006)는 조선 후기 한문산문에 대한 비평과 작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주소문(奏疏文) 문체에 대한 17세

기 작가들의 의식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었다. 송혁기(2011)와 송혁기(2014)는 각각 사직(辭職)상소문과 재이(災異)에 관한 응지(應旨)상소문을 분석하여 그 수사법과 문학 장르로서의 특징을 밝혔다.

개별 작가의 작품이나 일련의 작품군을 분석한 연구들은 선집에 수록된 명문들을 분석하거나 특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이루었다. 김은영(2006)은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주의류(奏議類) 작품들의 유형, 성격, 서술 방식과 의미를 밝혔다. 개별 작가들의 문학적 성취와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이식(윤지훈, 2009), 최명길(김현정, 2009), 정구(정시열, 2012), 김상헌(김하윤, 2015), 남구만(김지웅, 2015; 윤재환, 2016), 오도일(남윤혜, 2016)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상소문의 양식적 특징, 내용, 서술 기법, 작가의 주제 의식 등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나 연구 관점이설득적 글쓰기의 일반적 글쓰기 방법을 밝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본고에서 의도하는 것과 같이 상소문을 설득적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글쓰기 방법이나 설득 전략을 밝힌 선행 연구에는 염은열 (1996), 최인자(1996), 엄훈(2002), 오인환·이규완(2003), 이규완(2004), 윤하나(2009), 이승복(2010), 김기림(2016), 이영호(2016), 조성윤·김윤정(2017), 주재우(2019) 등이 있다. 특히 염은열(1996)과 최인자(1996)는 간쟁소(諫諍疏)에 나타난 설득 전략에 주목하였는데, 염은열(1996)은 이상적 독자상(讀者像)을 제시하는 것이 상소문의 설득 전략임을 밝혀내고. 최인자(1996)는 상소문이 설득적 발화장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소문 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신하(臣下)'와 '유학자(儒學者)'로 분리함으로써설득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완결성을 갖춘 원문을 확보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소문을 자료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해당 상소문들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신자를 설득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지, 독자 구성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상소문은 고려 시대 이전부터 생산되었지만 지금 전하는 자료는 대부분 조선 시대의 것으로, 개인 문집, 선집,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공거문(公車文)』²⁾ 등에 전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문집과 선집에 수록된 자료를 선정하고, 실록과『승정원일기』의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다. 실록과『승정원일기』는 상소문이 쓰인 계기와 소통된 맥락, 그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지만 상소문의 원문 전체가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축약되거나 수정되기도 하여 실록에 수록된 상소문 자체를 글쓰기 연구자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문집과 선집에 수록된 자료는 비교적 원문 전체가 완결성 있는 형태로 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선집은 편찬자가 전범(與範)으로 삼을 만하다고 여겨 가려 뽑은 텍스트를 수록한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한 주요 선행 연구들에서 자료로 삼은 대 상을 일별하면 <표 I-1>과 같다.

^{2) &#}x27;공거문(公車文)'은 소차(疏箚)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공거문(公車文)』 류의 서적에 전한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상소문들이 축약되거나 수정된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공거문류의 서적들에는 상소문의 원문이 거의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의 자료가 주로 전한다(한강희, 2019).

<표 I-1> 상소문 관련 선행 연구의 대상 자료

서체 여기	연구 대상	기근 시계
선행 연구		→ スポープ (徳東文淵)
염은열(1996)	간타위소(諫打圍疏, 홍귀달)3)	『속동문선(續東文選)』
최인자(1996)	간폐비소(諫廢妃疏, 손순효), 간타 위소(홍귀달)	『속동문선』
	상시무서(上時務書, 최승로), 상공	『동문선(東文選)』
	양왕소(上恭讓王疏, 정도전), 이자	『삼봉집』(정도전)
오인환 •	건의 상소문(이자건, 실록 소재),	『중종실록』
이규완(2003)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이황), 만	『퇴계집』(이황)
, ,, , , , , , , , , , , , , , , , , , ,	언봉사(萬言封事, 이이), 사동부승	『율곡전서』(이이)
	지소(辭同副承旨疏, 최익현)	『면암집』(최익현)
1 7 Al (200 A)	『태조실록』~『명종실록』 소재	
이규완(2004)	상소 기사 중 고사를 인용한 기사	『조선왕조실록』
김은영(2006)	『동문선』 소재 주의(奏議) 34편	『동문선』
	논허적소(論許積疏, 이상), 사직겸	『약천집』(남구만)
송혁기(2008)	진삼사소(辭職兼陳三事疏, 남구만),	『타우유고』(이상)
	논집정차(論執政箚, 허목)	『기언』(허목)
	논폐강전은차(論廢姜全恩箚), 병자	
	봉사[제일](丙子封事[第一]), 병자봉	
김현정(2009)	사[제이](丙子封事[第二]), 청정후사	『지천집』(최명길)
	소(請定後事疏), 인박돈소자변소(因	
	朴焞疏自辨疏)(이상 최명길)	
	기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	
윤지훈(2009)	院箚子), 정묘삼월대사간사면차(丁	『택당집』(이식)
	卯三月大司諫辭免疏)(이상 이식)	
윤하나(2009)	강경-제술 논쟁 관련 실록 소재 상	『세종실록』
	소문(김반, 변계량)	_
이승복(2010)	논윤원형소(論尹元衡疏)(이이)	『율곡전서』(이이)
	기복배상사면소(起復拜相辭免疏,	『계곡집』(장유)
송혁기(2011)	장유), 정묘삼월대사간사면소(丁卯	『택당집』(이식)
	三月大司諫辭免疏, 이식), 사호조참	『농암집』(김창협)
최선경(2011)	의소(辭戶曹參議疏, 김창협) 간폐비소(손순효)	『속동문선』
의 건경(2011)	청물개복산릉소(請勿改卜山陵疏),	ㅋㅇ나건』
	'정보기'로 (조건대 /) (대 전 (대 /) (대 /	
	上箚), 계축차자[재차](癸丑箚子[再	
정시열(2012)	工部方 계속시시[세시](美五部][[편] 箚]), 의상차(擬上箚), 대사헌사직차	『한강집』(정구)
	(大司憲辭職箚), 계축차자(癸丑箚	
	子)(이상 정구)	
k =1. 1/224 ()	구언응지차(求言應旨箚, 장유), 유	『계곡집』(장유)
송혁기(2014)	백증의 상소(유백증, 실록 소재),	『인조실록』
	1 , 0 , 0 = (11 , 10 , 12 , 12 , 17 , 17 , 17 , 17 , 17 , 17	C- C 12

선행 연구	연구 대상	 자료 소재
(건경 단기	『속잡록(續雜錄)』 소재 응지소	시표 고세
		『ふえこ
	(이준), 옥당응구언차(玉堂應求言	『속잡록』 『이버지 (권건제)
	新, 정경세), 응지진언차(應旨進言	『우복집』(정경세)
	箚, 김육), 이경여의 상소(이경여,	『잠곡유고』(김육)
	실록 소재), 응지진계차(應旨陳戒	『효종실록』
	箚, 이경척), 김좌명의 상소(김좌명,	『백헌집』(이경척)
	실록 소재)	
	인혐사직겸진소회소(引嫌辭職兼陳	
김지웅(2015)	所懷疏), 사직겸진삼사소(辭職兼陳	『약천집』(남구만)
T (8 (2013)	三事疏), 사직겸청돈소우상차(辭職	『동문집성(東文集成)』
	兼請敦召右相箚)(이상 남구만)	
김하윤(2015)	김상헌 상소71편	『청음집』(김상헌)
김기림(2016)	훈민정음에 관련한 상소문(최만리)	『세종실록』
台/1台(2010)	청허개가소(請許改嫁疏, 김시준)	『수서문집』(김시준)
나 의체(2016)	오도일의 사직겸진소(辭職兼陳疏)	『서리지 (이드이)
남윤혜(2016)	27편	『서파집』(오도일)
	청침타위소(請寢打圍疏), 옥당동뇌	<u> </u>
	후진계차(玉堂冬雷後陳戒箚), 사대	
	사성소(辭大司成疏), 사병조판서소	
	[재소](辭兵曹判書疏[再疏]), 인재걸	
	면잉진계차(因災乞免仍陳戒箚), 걸	
	면차[재차](乞免箚[再箚]), 인박상경	
	소출성외대죄소[재소](因朴尙絅疏	『약천집』(남구만)
유재환(2016)	出城外待罪疏[再疏]), 사특배영의정	『장소휘고(章疏彙攷)』
E (2010)	소(辭特拜領議政疏), 사복배영의정	『소차가칙(疏箚可則)』
	 	~~. 1 \ 1 \ [\Quad Pair L1 \ \text{L2 \ \text{L3
	지사소(乞致仕疏), 결치사잉사녹봉	
	^/(도)(조)(도)(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致仕疏), 사견승지명해래소[삼소]	
	(辭遣承旨命偕來疏[三疏])(이상 남	
	구만)	
이영호(2016)	병자봉사[제일], 병자봉사[제이], 병	『지천집』(최명길)
	자봉사[제삼](이상 최명길)	
주재우(2019)	김창협의 사직상소문 39편(김창협)	『농암집』(김창협)

³⁾ 이 연구에서는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속동문선』 소재의 다른 상소문들(<간폐비소>(손순효, 孫舜孝), <홍문 관예문관합사소(弘文館藝文館合司疏)>(채수, 蔡壽))도 함께 살펴 논의를 보완하였다 (염은열, 1996: 80, 91).

선행 연구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자료 선정에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장가로 이름이 높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필자들의 글을 자료로 삼은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해당 필자들이 전문적이고 능숙한 필자임을 전제하고 능숙하고 뛰어난 필자의 글에 나타난 특징과 주제 의식, 글쓰기의 방법을 연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장유(張維)와 이식(李植)은 조선 중기 한문의 대가로평가된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김창협(金昌協)은 뛰어난 문장가이면서 한문산문의 비평 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송혁기, 2006). 최명길(崔鳴吉)과 남구만(南九萬)은 그들의 문집에 각각 118편(김현정, 2009: 7), 199편(김지웅, 2015: 5)의 소차(疏筍)가 전할 만큼 소차를많이 지었고 상소문 필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다(이영호, 2016: 67; 윤재환, 2016: 209). 이황(李滉), 이이(李珥), 정구(鄭逑), 김상헌(金尚憲), 오도일(吳道一) 등의 상소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그들의 문장뿐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그들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었다.

둘째, 연구자가 필자에 대하여 고려를 하되, 뛰어난 작품이거나 중요한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 선집에 수록된 글 가운데서 자료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續東文選)』, 『동문집성(東文集成)』,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 『장소휘고(章疏彙攷)』, 『소차가칙(疏箚可則)』 등의 선집에 수록된 글 중에서 자료를 선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선집은 편찬자의 의도와 평가 기준, 편찬자의 안목에 따라서 수록된 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선집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거두었거나 중요성을 지닌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연구자들이 이를 참고해 연구 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셋째, 상소문이 제출된 상황이나 글이 다루고 있는 쟁점, 주제, 의사소통의 목적에 주목하여 설득 목적이 두드러지는 자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간타위소(諫打圍疏)>나 <간폐비소(諫廢妃疏)>는 간언을목적으로 하는 상소문이라는 데서 설득 목적이 강하고 설득 전략이 잘

드러났을 것으로 전제되는 자료들이다(염은열, 1996; 최인자, 1996; 최선경, 2011). 시무(時務)를 진달하거나(오인환·이규완, 2003; 김기림, 2016), 착신이나 임금이 신임하는 대신을 탄핵하는(송혁기, 2008; 이승복, 2010) 등 구체적인 설득의 목적과 쟁점이 드러난 자료를 분석한 경우들도 있다. 또는 사직하는 상황에서 올린 상소문에서 거절 행위에 드러난 설득전략을 살피거나(주재우, 2019), 수사법을 분석하기도 하고(송혁기, 2011), 사직하며 겸하여 시사(時事)에 대하여 생각을 진달한 글에 나타난 설득적 글쓰기 방식을 살피기도 하였다(남윤혜, 2016). 과부 개가(김기림, 2016), 청나라와의 관계(이영호, 2016), 강경(講經)-제술(製述) 논쟁(윤하나, 2009) 등 뚜렷한 쟁점이나 주제가 드러나는 자료를 선정한 경우도있다.

문장으로 인정받은 필자의 글이나 선집에 수록된 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능숙한 필자들의 글쓰기 방법을 살펴볼 수 있고, 전범으로 삼을 만한 글4)의 글쓰기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선집과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자료, 『동문선』, 『속동문선』, 『동문집성』 등의 선집에 수록된 작품, 문장가로 이름이 높거나 소차를 많이 남긴 필자 등의 작품을 살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편, 본고의 목적이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을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대표적인 설득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텍스트 안에 독자가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대상 자료들이 수신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설득적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독자 혹은 청중 즉 수신자는 글쓰기·말하기 상황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면서 필자나 화자의 표현 활동에 큰

⁴⁾ 어떤 글을 전범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 글을 형식주의적으로 모방하는 글쓰기나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잘된 글이나 좋은 글은 글쓰기 방식이나 글쓰기 전략을 학습하는 데 전범으로서 교수·학습 내용이나 비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조희정, 2002; 이영호, 2014; 이재기, 2019).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따라서 설득 이론에서는 수신자의 특성이 설득 담화나 설득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연구하였는데, 그중 중요하게 거론되는 요인에는 문제에 대한 수신자의 기존 입장, 지적인 수준, 설득 전략에 대한 지식, 문제에 대한 관여도, 설득 의사소통에 참여하고자하는 동기 등이 있다.5) 박재현(2016)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론에 따라수신자의 메시지 처리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수신자의 메시지 처리 능력과 메시지 처리 동기로 나누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시간이나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적 자원, 논증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교육 수준, 화제에 대한 지식·교육·경험 등'을, 메시지 처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화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책임, 인지 욕구등"을 제시하였다(박재현, 2016; 201).

이 중에서 상소문의 소통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으로 수신자인 임금의 기존 입장과 설득 의사소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꼽을 수 있다. 상소문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설득 담화이고6, 상소문의 수신자인 임금은 공적인 문제의 최고 결정권자이므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한 임금의 관여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수 있다. 또한 중세의 보편적인 문어 문화권 안에서 임금과 조정 관료들이 상소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설득 전략에 대한 지식도 비교적 일정하게 통제된 변인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⁵⁾ 대표적인 설득 이론인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론에서는 수신자가 설득 담화를 처리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본다.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가 그것인데, 수신자가 중심 경로로 담화를 처리할 때 쟁점과 논증을 중심으로 타당성 등에 유의하여 비판적으로 담화를 처리하고, 그 결과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수신자가 중심 경로로 정보를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고자하는 동기가 부족할 때는 느낌이나 보상, 감각, 직관 등 주변적인 요소에 의지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는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어렵다고 본다(Petty & Caccioppo, 1996). 국어교육에서는 화법 연구(박재현, 2006; 최영인, 2014)에서 설득 담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설득적 요인을 탐구하였고, "설득 화법에서 화자가 고려해야 할 청중 변인으로 청중의 입장, 청중의 관련성, 청중의 설득지식, 화자-청중의 관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최영인, 2014: 47).

⁶⁾ 상소는 공적인 일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상소문 의 작성은 사적 송사에는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소는 국사에 관련된 공적인 일 에 사용되던 소통 양식이었다(설석규, 2002: 21-34).

사안의 내용과 논의 시점에 따라서 임금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입장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태도는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록 기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맥락의 복원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상소문 원문이 한문 자료이지만 교육적 활용도를 고려하여 번역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논상제소(論喪制疏)>, <정유봉사(丁酉封事)>, <기 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병자봉사(丙子封事)>는 신해진(2012)의 번역문을 대상으로 하였다.7)

<표 I-2> 연구 대상 자료

제목			수신자	(임금)
(작성 시기)	저자	소재	입장	소통 의지
<논상제소> (<論喪制疏>) (성종 14년)	김흔 (金訢)	『안락당집』(김흔) 『속동문선』	필자와 반대	노유
<기사구월사간원차자> (<己巳九月司諫院箚子>) (인조 7년)	이식 (李植)	『택당선생 별집』(이식) 『동문집성』 『여한십가문초』	필자와 반대	낮음
<병자봉사[제삼]> (<丙子封事[第三]>) (인조 14년)	최명길 (崔鳴吉)	『지천집』(최명길)	유보적	노유
<정유봉사> (<丁酉封事>) (선조 29년)	최립 (崔岦)	『간이집』(최립) 『동문집성』	유보적	낮음

⁷⁾ 번역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김혼(金訢), 양주동 역, <논상제소(論喪制疏)>, 『속동문선(續東文選)』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이식(李植), 이상현 역, <기사구월사 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 『택당선생 별집(澤堂先生 別集)』 제4권, 한국고전 번역원; 최립(崔岦), 이상현 역, <정유봉사(丁酉封事)>, 『간이집(簡易集)』 제1권, 한국고전번역원; 최명길(崔鳴吉), 신해진 역(2012), 『병자봉사』, 서울: 역락. 이들 번역 본을 기초로 삼되, 본문에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곳은 문맥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네 편의 상소문은 문집에 실려 전하므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고, 당대와 후대의 평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볼 수있으며, 실록 등 역사 자료를 통하여 맥락을 검토해 본 결과 수신자와 관련된 다양한 설득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임금의 입장과 소통 의지는 상소 사실과 당시 정황을 기록한 실록 기사 및 역사연구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문제는 조정의 현안으로 다루어지면서 실록에 연일 관련 기사가 보이고 임금도 해당 문제에 대해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회의를 거듭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이 상소문을 읽고 나서 '잘 알았다'는 비답(批答)을 내리고 말거나 유사(有司)에 내려 논의하게 하는 반응에 그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은 임금의 소통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를 통해임금의 입장과 소통 의지를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논상제소》는 『속동문선』에, 《기사구월사간원차자》와 《정유봉사》는 『동문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속동문선』은 『동문선』 간행 후 40년만에 간행한 선집으로, 그 진전(進箋)에 "전의 문선(文選)을 따라 더편수"8)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대체로 『동문선』의 편찬 관점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서거정(徐居正)이 『동문선』에 모은 글에 대하여 "글과이치가 순정(醇正)하여 교화(敎化)에 도움이 있을 만한 것을 취하"였다고하였고9), 김전(金詮)이 『속동문선』에 대하여 『동문선』 이후 40년동안 생산된 유학자들의 글이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추리고 모았다고 한것을 볼 때10), 『속동문선』에 수록된 글이 완성도와 역사적 가치를 지

^{8) 『}중종실록』 34권, 13년 7월 1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伏念臣等, 側以庸資, 叨承隆 寄。 披諸家之亂藁, 踵前選而增修。"

⁹⁾ 서거정, 한국고전번역원 역, <동문선서(東文選序)>, 『동문선』, 한국고전번역원. "臣等仰承隆委。採自三國。至于當代。辭賦詩文揚若于體。取其詞理醇正。有補治敎者。分門類聚。釐爲一百三十卷。編成以進。賜名曰東文選。"

¹⁰⁾ 김전, 한국고전번역원 역, <속동문선서(續東文選序)>, 『속동문선』,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성묘(成廟)께서 문치(文治)를 펴신 교화는 백대의 제왕 중에서도 뛰어난데 유신 (儒臣)에게 제가(諸家)의 저작을 뽑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위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 무려 2000년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총 130권으로 완성하였는데 이것을 《동문선(東文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김태현(金台鉉)과 최해(崔瀣) 등 여러 선배가모아 만든 《동국문감(東國文鑑)》과 《동인지문(東人之文)》은 모두 이 범위를 벗어

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속동문선』에 수록된 김흔의 <논상제소>는 김흔이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으로 있을 때 작성하고 홍문관부제학 성건(成健)을 대표 상소자로 하여 올린 글로, 김흔의 문집인 『안락당집(頹樂堂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홍문관에서 시사인 대왕대비의상제(喪制)에 대해 논하면서 임금을 설득한 글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문선에 수록될 만큼의 완성도를 인정받은 자료라고볼 수 있다. 이 상소문은 정희왕후의 상을 당하여, 상제를 3년상으로 하고자 하는 임금을 상대로 '3년상은 예에 맞지 않으며 기년상(朞年喪)으로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지닌 수신자를 설득하기위해 수행된 글쓰기이다. 특히 임금이 상제를 3년으로 치르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반대하는 신하들과 임금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치던 시기에 이 상소문이 제출되었으므로,11) 기존 입장의 차이가 크면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설득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문선』과 『속동문선』이 조선 전기에 왕의 명령에 따라 국가 주도로 편찬된 반면, 『동문집성』은 19세기 후반에 송백옥(宋伯玉)이 필사본으로 편찬한 선집이다. 『동문집성』에는 이색(李穡)부터 홍길주(洪吉周)까지 18명12)의 글 60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선집은 '동문(東文)'에

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작자(作者)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대가(大家)의 반열에 들기에 충분하고 스스로 행세할 수 있는 자가 왕왕 있었으니, 어찌 침잠하고 함양한 공력이 붙들어주고 성대하게 길러준 기운과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我成廟右文之化。高出百代。乃命儒臣選出諸家所作。上泝至三國無慮二千載。而書成揚一百三十卷。命曰東文選。如金台鉉,崔瀣諸先輩所集。曰文鑑曰東人文者。皆不出範圍中矣。爾後將四十年。作者蝟興而雲逝。其優入大家數。自能行世者往往而是。豈沉浸涵養之力。叶扶興磅礴之氣而然耶。)

^{11) 『}성종실록』 159권, 14년 10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에 임금이 상제를 3년으로 하려 한다는 말을 꺼낸 이후, 10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에 의정부·6조의 당상관, 홍문관, 대간과 이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보인다. 11월 1일 두 번째 기사에 <논상제소>가 보이며, 세 번째 기사에는 임금이 상제를 3년상으로 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이 상제에 대한 의논이나 상소 기사가 2일(홍문관 상소), 11일(우찬성 허종 상소), 12·13일(여러 신하들과 논의), 18일(홍문관 상소), 12월 12일(홍문관 상소), 14·19일(구두 논변) 등에 보인다.

^{12) 『}동문집성』에 작품이 수록된 18명의 작가는 다음과 같다. 이색(30편), 김종직(24편), 최립(35편), 이정구(20편), 신흠(37편), 이식(33편), 장유(25편), 허목(42편), 남구만 (33편), 김석주(33편), 김창협(40편), 조귀명(41편), 황경원(29편), 홍양호(36편), 박지원 (36편), 김매순(35편), 홍석주(34편), 홍길주(38편)(이종호, 1991: 495).

대한 의식 속에 높은 성취를 이룬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종호, 1991: 493). 이식의 <기사구월사간원차자>(이하 <사간원차자>)는 『동문집성』뿐 아니라 『여한십가문초』 13)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산문에 대해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송혁기, 2006; 윤지훈, 2009) 이식의 글 중에서도 이 상소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이 글의 요지를 '특지를 내려 신하들을 외지로임명한 것은 조제진정(調劑鎭靜)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14)라고 요약하였는데, 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임금 인조가 시종신(侍從臣)들이 붕당을 지었다고 하여 그들을 좌천시킨 일이 있었고, 이로인한 논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제출된 것이 이 상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소문은 좌천된 인물들을 새롭게 신구(伸救)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사 문제를 다루는 임금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따라서 필자와 수신자인 임금 사이의 입장 차이는 크지만 논의에 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 임금의 동기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최명길의 <병자봉사> 세 편은 제출 당시에 척화론(斥和論)을 기조로하는 조정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글이고, 선집에서 최명길의 글을찾기도 어렵다. 김민혁(2017)에 따르면 최명길의 삶과 사상에 대한평가가 조선 후기의 정치적 담론에 대한 입장을 담을 수밖에 없었으므로그에 대한 당대와 조선 후기의 평가에는 매우 엇갈린 내용이 많았고,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 내용이 "요동치며 변화"했다(김민혁, 2017: 175)15). 그러나 그와 별개로 그의 상소문은 글쓰기 연구의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영호(2016)는 택당 이식과

^{13) 『}여한십가문초』는 김택영이 "문가(文家)의 정종(正宗)으로서 후인의 모범"이 되는 아홉 대가의 글을 '구가문(九家文)'으로 초한 것에 왕성순이 첨삭하고 김택영의 글을 더하여 완성한 선집으로(왕성순, 최진원 역, <여한십가문초서(麗韓十家文鈔序)>, 『여한십가문초』, 한국고전번역원.), 김부식, 이제현, 장유, 이식, 김창협, 박지원, 홍석주, 김매순, 이건창, 김택영의 글을 수록하였다.

¹⁵⁾ 김민혁(2017), 「숙종조 정치 상황에 따른 정치적 글쓰기 - 최명길에 대한 포폄을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66, 한국한문학회, 145-178.

박세당(朴世堂)의 평가. 『인조실록』의 최명길 졸기(卒記). 정조(正祖)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최명길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자파뿐만 아니라 반대파에게도 명철한 논리로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이영호, 2016: 67). 실제로 박세당은 <지천집서(遲川集序)>에서 "공의 주의(奏議)는 곡진하고 명백 직절하여 육선공(陸盲公)에 손색이 없다. 잠깐 사이에 충만한 기운을 움직였으니. 그 빼어나고 과감한 기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16)고 하였고. 상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정조도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와 당나라의 육선공과 함께 최명길을 언급하며 "이 세 사람 모두 상소문은 매우 사리에 적절하여 고금에 명성을 떨쳤"다고17)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병자봉사>는 병자호란이 임박한 때에 인조뿐 아니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청나라와의 관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상소문이다. 당시에 임금은 최명길의 의견의 실용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정에서 최명길을 두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여기서 임금이 필자와 크게 대립한다기보다 결정 자체를 어려워하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상소문이 유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은 수신자를 향한 설득적 글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문집성』에 수록된 <정유봉사>는 최립이 선조의 구언(求言)에 응해 올린 상소문이다. 최립은 관직 생활 동안 공용문(公用文)과 사대문서(事大文書)를 주로 작성하면서 산문을 많이 남긴 작가로서, "김창협 ··· 장유, 김창흡, 안석경, 남극관, 김택영, 조긍섭 등 조선후기 산문론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는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어 왔다"는 데서 그의 글이 일정한 성취를 이룬 글임을 알 수 있다(김우정, 2004: 12).

¹⁶⁾ 박세당, 최병준 역, <지천집서(遅川集序)>, 『서계집(西溪集)』 제7권, 한국고전문학 번역원. "公之論事。委曲明切。無愧陸宣公。而俯仰之間。輒微動盈溢之氣。見其爲英果所發。此又豈止近代所未有而已也。"

¹⁷⁾ 정조, 홍기은 역, <일득록(日得錄) 13 인물(人物) 3>, 『홍재전서(弘齋全書)』 利173 권, 한국고전문학번역원. "梁誠之口吃。故號訥齋。口所不能言者。能筆之於書。而指更明暢。崔鳴吉筵奏。吃吃不出口。而及退陳疏箚。曲暢旁通。陸贄對上語多訥。曰容臣退而思之。夫三人者。以章疏剴切名於古今。而皆訥於口詞。亦異哉。"

그중 <정유봉사>는 『동문집성』뿐 아니라 『별본동문선(別本東文選)』, 『동문팔가선(東文八家選)』 등 여러 선집에 수록되었고 "최립의 주의문가운데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고 평가를 받은 글로, 상소문의 글쓰기양상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김우정, 2004: 20). 이 글은 '말해 줄 것을 구하는' 임금의 교지(敎旨)에 응하여 작성한 상소문이므로, 이 글쓰기 상황에서 임금은 형식적으로나마 필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의 맥락 가운데서 제출된 상소문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게설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의 설득 의사소통 참여 수준을 높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구언이라는 형식은 상소문을 받아들이려는 임금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구언 자체가 형식적으로 시행된경우가 많고, 구언에 응해 제출된 응지소들에서도 구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 상소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의 태도는 유보적이되 설득 의사소통에 참여하려는 동기 수준은 약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상 네 편의 상소문이 글 자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더하여 이 상소문들이 각각 설득적 글쓰기 상황에서 가정할 수 있는 필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대표한다는 것도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상소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독자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 의미 있는 글쓰기 방법을 발견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연구 방법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하고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화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소문에서 내포 독자가 구성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소문 쓰기는 임금의 생각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

으키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므로, 쓰기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설득적 글쓰기는 "필자가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통해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용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혹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주재우, 2011: 28), 독자의 변화라는 글쓰기의 목적이 설득적 글쓰기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이영호(2013) 역시 설득적글쓰기를 논증적 글쓰기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논증적 글쓰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정당화해 나가는 소통 행위"로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추구"하는 쓰기행위인데, 이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특히 설득적 글쓰기의 목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영호, 2013: 420)18). 이로부터 설득적 글쓰기가 청자지향성이 두드러지는 장르이고, 이 장르에서 독자가 텍스트의 작용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독자 개념에 주목한다. 독자는 설득의 대상으로서 설득적 글쓰기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며, 글쓰기의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그 효과성을 평가할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면서 쓰기 과정 과는 단절된 채 텍스트를 전달받는 존재가 아니다. 필자는 쓰기의 전체 과정에 걸쳐 독자를 의식하고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가정하면서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독자는 필자의 내적 대화의 상대자이며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소문 쓰기,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가 어떻게 상호

<표 I-3>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과 특성(이영호, 2013: 435)

쓰기 유형 관련 요소	설득적 글쓰기	해석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쓰기 목적	동의 획득	수용 가능한 의미 산출	심화된 이해 제공
대상 독자	유보 독자·반대 독자	보편청중	학문 담론 공동체 구성원
논증 방식	수사학적 논증	비형식적 논증	과학적 논증
논증 핵심	상황 맥락 파악	주체적이고 일관된 관점	지식의 활용
해당 양식	건의문, 연설문	감상문, 비평문	보고서, 논문

¹⁸⁾ 이영호(2013)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의 하위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지, 즉 독자의 무엇이 글의 내용 구성과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필자가 어떻게 독자를 고려하면서도 텍스트를 통해서 기존의 실재하는 독자와 다른 존재 또는 독자의 새로운 부면을 구성해 낼 수 있는지가 탐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글쓰기에서 독자가 작용하는 양상, 필자가 독자를 구성해 나가는 양상을 관찰할 이론적 바탕을 대화주의 작문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바흐친의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대화참여자 즉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Nystrand, Greene & Wiemelt, 1993; 권순희 외, 2018).

바흐친(Bakhtin, 1979/2006; Bakhtin, 1975/1988)은 독자와 필자의 관계가 언어의 본질적 속성을 이룬다고 보았는데, 독자는 필자가 참여하고자하는 발화의 연쇄 속에 선행 발화자로서 존재하면서 필자가 반응할 대상이 되고, 필자는 독자의 반응과 응답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발화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쓰기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적이며 독자는 의미를 구성하는 대화의 참여자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독자 개념은 작문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재기(2019)는 좋은 글이란 "새로운 독자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글이고, 작문교육에 대해 대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런 글쓰기를 추구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이재기, 2019: 123).

한편 필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은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독자의 상(像)과 역할은 텍스트 안에 기재(記載)된다. 쓰기에 관여하는 독자의 다양한 부면 중에서도 텍스트에 기재된 이 독자를 지칭하고 분석할수 있는 개념이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독자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서사 이론과 독서 이론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저(Iser, 1978/1993)는 글을 읽는 주체로서의 독자가 허구 서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텍스트 장치를 '내포 독자'로 개념화하고 소설에서 내포 독자의 작용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텍스트를 통한 소통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제공해 주었다. 이 내포 독자 개념은 허구 서사가 아닌 설득적 글쓰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내포 독자가 구현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소통 전략으로서 내포 독자의 존재와 위치는 텍스트의 유형에 관계 없는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9)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맥락과 인식 속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득적 글쓰기에서 독자와 독자 구성, 내포 독자와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작문 이론과 논증 이론, 서사 이론에서 논의되어 온 독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독자가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한후, 바흐친의 발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내포 독자 구성의 원리는 태도 개념을 중심으로 정립하게 될 것이다.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의 태도는 언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대화주의적 관점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을 바탕으로 정립된 평가어 이론이 필자의 태도가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과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적 자원을 다룬다. 단, 본고는 언어학 연구가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 생성과 구성의 원리와 양상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므로 여기서는 평가어 이론에서 분류한 태도의 범주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의 절이나 명제 단위를 넘어서 텍스트 전체에서 내포 독자의 태도 변화를 상정하고 내포 독자를 구성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증 요소와설득 전략이 내포 독자 구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 정립한 내포 독자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Ⅲ장에서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소문 쓰기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기 위해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였으며 설득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구성한 내포 독자가 어떤 정체성을지닌 존재인지를 밝힐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설득적 글쓰기를 위한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의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¹⁹⁾ 이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채트먼(Chatman, 1978/2019)이 제시한 서사 텍스트의 소통 구조와 그리즈(Borel, Grize & Miéville 1983, Van Eemeren et al., 1996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논증 담화의 도식화 구조, 파네스톡(Fahnestock, 2011)이 제시한 텍스트의 일반적 소통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텍스트 안에 기재된 독자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독자를 텍스트 밖에 실재하는 인격체로서의 독자와 구분하고 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Ⅱ.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전제

1. 설득적 글쓰기로서 상소문 쓰기의 특성

1) 상소문의 소통 환경과 장르 관습

설득적 글쓰기는 "필자가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통해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용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혹은 과정"으로(주재우, 2011: 28), 의사소통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텍스트 유형을 가리키고, 상소문은 실제 맥락 속에서 형성된 문체와 관습으로서의 장르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소문이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 양식이 설득적 글쓰기로서 가지는 특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소문은 군주 정치 제도에서 전제 군주를 수신자로 삼는 글쓰기 양식이다. 전제 군주를 향한 소통의 목적과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소문은 임금을 비롯한 타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의도로 쓴 글로서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한다. 상소문 문체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전통적 의식은 한문 문체론과선집 편찬 등에 드러나 있다.

상소(上疏)라는 명칭에 대해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상소'는 한 대(漢代) 이래로 쓰인 명칭이고 본래는 '주(奏)'라고 하였다.²⁰⁾ <장표(章表)> 편에서 "군주(君主)에게 일을 말한 것(言事)은 모두 상서(上書)"인데, 그중에서 '주(奏)'는 "죄악을 고발"하는

²⁰⁾ 이전에는 상서(上書)라고 하던 것을 진나라 제도에서는 '주(奏)'라고 일컬었고, 한나라 이래로 상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문심조룡』에서는 장(章), 주(奏), 표(表,)의(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章)」은 사은(謝恩)을 나타내고, 「주(奏)」는 죄악(罪惡)을 고발하고, 「표(表)」는 요청(要請)을 진정하고, 「의(議)」는이의(異議)를 제출하였다."(유협, 미상/1975: 93) (章以謝恩, 奏以按劾, 表以陳請, 議以執異.)(유협, 미상/1975: 278).

문체라고 한 것을 보면 본래 '주'는 탄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장(章), 표(表), 의(義), 계(啓), 대(對) 등의 문체와 구별되었다. 그런데 <주계(奏啓)> 편에서는 진(秦)나라와 한나라 때 '주(奏)'가 "정사(政事)를 진정(陳情)하고, 법률과 제도를 제언(提言)하고, 급변(急變)을 보고하고, 잘못을 탄핵하는 것"21)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이 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상소는 왕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 도록 설득하는 유형의 글이고. 처음에는 탄핵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되 다루는 문제 상황이 점점 확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유협, 미상/1975: 92-97). 그러므로 염은열(1996)은 『문심조룡』과 『동문선』의 체제를 살펴 양쪽이 모두 주계(奏啓) 또는 소(疏)를 의(義), 대(對), 간(諫)을 포 함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고 파악하고.'상소'즉'소'를 주계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곧 상소문이 신하를 탄핵하는 것보다 훨 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탄핵소(彈劾疏)뿐 아니라 간쟁소(諫諍疏), 시무소(時務疏), 논사소(論事疏), 청원소(請願疏)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소문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일치한다(정만조, 1986; 설석규, 2002).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고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제와 상관없는 반복적인 소통 맥락과 의사소통 목적 혹은 기능이 있었기 때문인데22), 주(奏)로써 총괄하는 행위를 보면 그 공통적인 목적이설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 제언, 보고, 탄핵' 등의 행위는 군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논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상소 즉 '주'의 장르적 특성과 글쓰기 방법에 대한 『문심조룡』의 다음과 같은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개 주(奏)라고 하는 산문은 명석(明晳)·신의(信義)·독실(篤實)· 지성(至誠)을 기본으로 하고, 분석력(分析力)과 통찰력을 제일(第一)로

^{21) &}quot;上書稱奏, 陳政事, 獻典儀, 上急變, 劾愆謬, 總謂之奏."(유협, 미상/1975: 281).

²²⁾ 밀러(Miller, 1984: 159)에 따르면 "반복 상황에 대한 전형화된 수사적 행위"는 장르로 이해할 수 있다.

한다. 강직한 의지라야 임무를 완성할 수 있고, 넓은 식견에 의해서만이 도리(道理)를 꿰뚫을 수 있으며, 또 옛 것을 참작하여 현재를 통어(統御)하고 번잡한 것을 다스려 요소(要所)를 총괄하는 것, 이것들이그 요체(要諦)인 것이다.²³⁾

상소문을 쓰는 데는 '도리를 꿰뚫고 요소를 총괄'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의를 펼쳐서 현 재의 문제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상소문 쓰기가 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며 행동과 태도의 변화, 문제 해결 등 을 의도하는 설득적 글쓰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심조룡』이나 『동문선』 외에도 문집과 선집의 편집 체제와 수록 작품의 양상을 통해서 실제로 상소문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식(2006)은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는 세월 동안 주의류 산문에 대한 인식이 전개된 양상을 살핀 바었다. 그는 주의류 산문을 "공사(公事)로 왕래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신하가 당대 현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임금에게 올리는 상행문자(上行文字)"로 정의하였는데(최식, 2006: 204), 주의류 선집이 간행된 양상을 보면 상소, 소차, 봉사를 주로 수록하고 있으며 상행문자라는 기능과 형식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 이들 선집에 수록된 글들이 다루는 것은 정치적・공적 맥락에서 임금에게 계책을 제안하는 것, 즉 문제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²⁵⁾

²³⁾ 유협(미상/1975), 97면. "夫奏之爲筆, 固以明允篤誠爲本, 辯析疏通爲首, 强志足以成務, 博見足以窮理, 酌古御今, 治繁總要, 此其體也."(유협, 미상/1975, 281).

²⁴⁾ 최식(2006)에 따르면 주의류 산문은 책문(策文)을 포함하고, 주의류 산문집에서는 책 문만을 모은 책들도 있다. 책문 역시 문제 해결 중심의 글쓰기이지만 임금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제시한다는 점, 과거 시험 등 특정한 상황 맥락과 제도적 절차 안에서 작성된다는 점, 두사(頭詞)나 결사(結辭)의 형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상소와는 변별된다.

²⁵⁾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남아 있는 상소문 자료 중에 사직소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개인의 문집에 수록된 소차 중에서도 사직소가 많이 보이고, 선집 중에도 사직소의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차집요(疏箚輯要)』나 『장소휘고(章疏彙攷)』 등의 상소문 선집류는 한 책이상이 사직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차를 많이 남긴 대표적 필자인 약천 남구만의 상소문은 여러 선집에 수록되었는데, 『장소휘고』와 『소차가칙(疏箚可則)』에 실린 그의 상소문 13편 중 10편이 사직소이다(윤재환, 2016: 221-222).

한편 상소문은 임금이라는 명확한 수신자가 존재하지만 수신자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독자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소통되었다. 임금 외에도 상소문에는 조정 관료들과 사림(土林) 전체라는 독자들이존재하였다. 그중 조정 관료들은 상소문의 작성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될 수 있었다. 상소문이 공동 집필되거나 연명으로작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간쟁(諫靜) 언론을 주무로하였던 사간원이나 사헌부, 홍문관 등 삼사(三司)에서는 기관의 이름으로상소를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26) 이는 임금뿐 아니라 동료 필자또는 동료 상소자들이 상소문의 독자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글을쓰는 과정에서 생산 중인 텍스트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자신이 작성 중인 글을 읽고 평가하며 쓰기 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데(Flower & Hayes, 1984), 한 편의 상소문을 공동 집필하는 필자들은 서로의 독자가되어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의 글쓰기를 조정하는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상소문이 단독 필자나 공동 필자에 의해 작성되고 나면, 임금에게 올라가기 전이나 후에 관련된 조관(朝官)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림전체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다. 먼저 상소문이 임금에게 전달되기 전에 승정원의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승정원의 관원들도 상소문의 독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상소문이 임금에게 전달되어도 좋을 만한 내용과 형식적 요건들을 갖췄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반려해야 했다(설석규, 2002: 38, 51-55).

이 현상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필자가 출사에 뜻이 없거나 건강 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사양이거나 사직에 칭탁한 설득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직소 제출의 진정한 의도가 설득에 있는 경우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직이라는 행위 자체의 설득적 효과와 사직소의 이면에 담겨 있는 시사에 대한 주장을 분석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²⁶⁾ 관학(官學)의 유생(儒生)이나 향촌의 유생이 상소를 올릴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유생이 상소를 할 때는 집단적으로 공론(公論)을 모아 대표 상소자(疏頭), 상소 작성자(製疏) 등의 소임을 정하여 상소문을 작성하였다(설석규, 2002: 34-57). 이를 통하여 상소문의 작성 과정에도 다양한 독자들이 존재하였음을 알수 있다.

임금이 읽고 난 상소문은 조정이나 해당 문제를 소관하는 조(曹)에 내려서 의논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정 신하들도 상소문의 독자를 이루었다.27) 그에 더하여 승정원에서는 상소의 대개(大概)나 요약문, 발췌문 등을 조보(朝報)에 발표하였으므로 지방에 있는 관리나 사람들도 대개 혹은 변형된 형태로라도 상소문에 접근이 가능했다(김경래, 2004; 서진원, 2016). 따라서 상소문은 임금만이 아니라 조정 신하들, 넓게 보면 사대부와 사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했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이 임금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독자에게 소통되고 읽히는 글이라는 것은 이 글쓰기가 단일한 수신자가 아니라 다양한 독자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양한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필자가 그들을 고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과 필자 자신의 관계만이 아니라 임금과 조정의 관료들, 다양한 입장의 사대부들과 사림 전체, 또는 필자나 독자가 준거로 삼을 만한 누군가가 모두 필자가 고려해야할 맥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상소문을 통해서임금에게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실상 임금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바가 더 클 수도 있으며, 이때 임금에게 글을 쓰는 상소문 양식을 택하는 것은 모종의 수사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도있다.28)

이렇게 다양한 청중이 존재하는 소통 상황에서 단일한 수신자를 설정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논증적 의사소통의 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페렐만(Perelman & Olbrechts-Tyteca, 1959/1969)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페렐만은 모든 논증은 청중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철학자들이 이성에 호소한다고 할 때조차 그것은 결국 청중에게

²⁷⁾ 최소한 상소문에서 다루는 문제의 담당자가 실제로 상소문을 읽었음을 알려 주는 증거로서 승정원의 기능을 들 수 있다. 홍순민(2016)에서는 승정원의 업무 내용으로 규정된 '왕명의 출납'이 상소문을 임금에게 아뢰고 "이를 다시 해당 부서로 되돌리는 일"을 포함한다는 것을 밝혔다(홍순민, 2016: 23).

²⁸⁾ 예를 들어, 송혁기(2008)는 허적(許積)을 탄핵한 세 편의 상소문을 분석하여 그 수사 (修辭)와 입의(立意) 양상을 고찰하면서 탄핵소의 목적이 대상을 비판하고 실각시키는 데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당파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문제를 이슈화"하거나 당파적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작성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송혁기, 2008: 109).

호소하는 것이라고 여겼다(Perelman, 1984: 190). 그는 단일한 수신자 (single hearer)를 향해 이루어지는 발화도 실상은 한 사람의 청자(독자)를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발화의 맥락과 발화자(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단일한 수신자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청중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Perelman & Olbrechts-Tyteca, 1959/1969: 35-40).

이상을 통해서 상소문이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하고, 다양한 독자·청중을 배후에 두고 전제 군주인 임금을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진 글쓰기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상소문의 수신자의특성과 그런 수신자를 향한 발화라는 점에 집중하여 상소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우월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적 글쓰기

상소문 쓰기는 전제 군주제에서 군주를 수신자로 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전제 군주제에서 임금은 권력과 지위 면에서 필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비자의 「난언(難言)」편의일부가 인용되기도 하는데(정시열, 201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비록 현인이나 성인일지라도 죽음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는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대저 도리에 맞는 최상의 말이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인이나 성인의 자질이 아니라면 좀처럼 받아들이지못합니다.²⁹⁾

여기에는 임금을 설득하는 것이 곤욕을 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만큼 조심스럽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드 러나 있다. 온당하고 좋은 간언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마음에 거슬릴 수

²⁹⁾ 한비 저, 이운구 역(2002), 『한비자(韓非子)』, 한길사, 74. "然則雖賢聖不能逃死亡避戮 辱者何也? 則愚者難說也, 故君子難言也. 且至言忤於耳而倒於心, 非賢聖莫能聽."

있고. 이러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다.

물론 조선 시대 임금의 권위가 절대적이거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이념의 바탕이 된 성리학에서는 임금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였다(김영민, 2007). 이는 선비들이 수양을 하며 임금을 도와 정치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며, 임금은 확고부동하게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태진(1990)은 이미 조선의 건국 당시부터 건국자들이 군주를 하늘의 아들이라든가 부처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보지 않고, '인심과 하늘의 뜻을 얻었다'고 왕권을 정당화함으로써 임금의 도덕적 권위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보지 않는 세속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뒤에 서술할 상소문 필자들의 책무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실제적인 정치적 권위로 인하여 임금은 관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으며, 신하들이 이념적으로 뒷받침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 권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내세우는 일은 임금의 정치적 지위에 맞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30)

이러한 현실을 조선 시대의 언로(言路)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 사간원, 사헌부와 집현전·예문관·홍문관이 언론기관으로

³⁰⁾ 김석근·김문식·신명호(2019)에서는 조선이 국왕을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을 실현하는 체제를 지닌 국가였음을 지적하고, 임금이 국가제례의 주재자, 외교의 주체, 모든 관료에 대한 인사권자, 군의 총수이자 토지와 백성의 주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지녔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반 관료가 임금의 권한 실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도 하였으므로 조선이 "중앙집권적 양반관료 국가"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국왕은 국가의 수장으로 여겨졌다(김석근·김문식·신명호, 2019: 36-38).

³¹⁾ 조선 시대의 언로는 언론기관인 삼사와 구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는데, 삼사의 간쟁, 탄핵, 논사와 구언에 대한 응지는 주로 상소문을 통해서 실현되었으므로 언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소문이나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상소에 대한 기사를 자료로 삼아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선 시대 공론이나 언론 활동, 언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상소문 쓰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최승희 (2004),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목정균(1985), 『조선전기 제도 언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남지대(1985), 「조선 성종대의 대간

설치되었고, 간관(諫官)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임금과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언관(言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금에 맞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임금에게 언로 확보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호소하고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웅섭(2013)은 성종대(成宗代) 성종과 대간(臺諫)의 관계를 고찰하여, 성종이학문을 중시하고 대간의 활동에 우호적인 임금이었지만 도덕적 위계를앞세운 대간의 활동이 그의 정치적 위계에 위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치세 후반으로 갈수록 대간에 대한 성종의 태도로 달라졌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언관의 직무로서 수행된 상소문 쓰기라할지라도 우월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적 글쓰기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균형한 정치적 권력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는 대상을 설득해야 하는 상소문 쓰기의 특수한 상황은 상소문 필자가 고도의 설득 전략을 구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문 쓰기에 "설득을 위한 모든 요소가 아낌없이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효율적으로 구사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찍이 제기되었고(김대행, 2005: 241), 실제로 선행 연구를통하여 "수신자에게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의방법"이라는 것과(염은열, 1996: 96) "신하로서의 승복'과 '유학자로서의반박"이 상소문의 설득 전략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인자, 1996: 112). 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 상소문에서 내포 독자가 구성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구사된 설득 전략을 고찰하고현대의 설득적 글쓰기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3) 응답적 이해로서의 설득적 글쓰기

언론」, 『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42; 김영주(2009), 「조선시대 구언제도의 절차와 내용 연구」, 『언론과학연구』 9(4), 한국지역언론학회, 135-169; 송웅섭(2010),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 성종대 언론 발달의 요인과 관련하여 -」, 『한국문화』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55; 송웅섭(2016), 「조선 초기 언로로서의 구언」, 『규장각』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3-93.

상소문 쓰기가 현대의 설득적 글쓰기 연구에 의의를 갖는 점은 그것이 응답적 이해 행위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응답적 이해 또는 응답성 (answerablity)은 바흐친이 제안한 발화의 대화적 속성으로서 상소문 쓰 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바흐친에 따르면 언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단위는 발화 (utterance)인데, 발화는 탈맥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연속체 속에 존재한다. 필자 혹은 화자가 발화를 생산하는 행동이 앞선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선 발화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 발화를 한 누군가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화는 필연적으로 화자 또는 독자를 향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하나의 기본 단위로서 발화는 다른 응답을 요구할 때 멈추게 되고, 앞선 발화에 대한 응답이면서 또 다른 응답을 요구하는 성질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필자가 응답하는 대상이면서 필자가 응답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발화의 교체 또는 대화 속에 의미가 존재한다면 의미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게 된다(Kent, 1991/1998: 32-44).

언어의 이러한 대화적 속성으로 인하여 발화는 응답성(answerability)을 본질적 성격으로 지니게 된다. 이월드(Ewald, 1993/1998)에 따르면 바흐친에게 응답성(answerability)은 윤리적인 책임으로서의 의미와 다른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발화가 화자의 목소리를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거기에는 화자의 가치 평가가 담기게 되고, 발화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게 된다(Kent, 1991/1998). 발화가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이면서 응답하는 다른 발화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흐친은 다른 발화에 대한 응답이 그 발화를 듣는 이들의 윤리적 책무라고도 여긴다. 응답성은 이렇게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이라는 속성과 책무성이라는 속성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Ewald, 1998: 233-235; Morson & Emerson, 1990/2006: 151).

언어와 발화에 대한 대화주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상소문 쓰기는 문제 상황에서 앞선 담론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소문 쓰

기는 윤리적 책무로서의 응답과,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응답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상소문의 응답성을 상소문의 형식과 장르 관습에서 볼 수 있다. 상소 문은 그 형식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었고 서두와 결사의 상투어들은 관습 적인 성격이 강하며, 필자들은 이 관습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정형화된 형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소문이 화자의 강한 책무 의식에서 발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소통 상황과 임금이라는 수신자에 어울리는 격식을 갖추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자가 우위에 있는 대상을 상대로 설 득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안전장 치가 필요할 정도라면 그것은 이 언술 행위가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상소문의 필자가 강한 책무성을 느꼈으며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응답했다는 것 을 의미할 수 있다.32)

전제 군주를 향한 발화라는 데에서도 상소문의 응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문의 필자가 임금의 발화를 권위적인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아니라 내적으로 대화적인 담론으로 여겨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상소문 쓰기를 통해 임금과 문제 상황에 관련된 조정 관료들의 목소리와 발화에 반응하고, 자신의 발화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가 반응하는 대상에는 해당 문제 상황의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화자의 발화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화자들이

³²⁾ 상소문의 장르 관습은 서두와 결사에 사용된 투식어에서 볼 수 있다. 상소문의 형식은 크게 서두, 본사, 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소문 선집인 『소차집요(疏箚輯要)』에 수록된 「소서차범례(疏書箚凡例)」에 서두와 결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두에는 관직과이름을 밝히고 "진실로 황공하여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주상 전하께 백 번 절하고 아룁니다. 삼가 엎드려…"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결사에는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등의 표현이 상투적으로 사용되었다(윤재환, 2016: 223-230). 오인환과 이규완(2003)은 상소문이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를 띠는 것이 상소문의 설득구조를 이룬다고 보았는데, 특히 서두와 결사 부분의 내용이 대개 임금을 칭송하고 필자의 부족함을 언급하는 등으로 정형화된 것이 상소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설득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나 존재가 가정되는 화자들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소문 쓰기는 응답적 이해로 수행된 발화라는 것과 대화적인 속성이 강한 글쓰기 양식 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보건대, 상소문은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문체 분류와 상소문 양식에 관한이론적 논의, 주의류 선집의 편찬 방식, 상소문이 소통된 환경과 장르 관습은 상소문이 임금을 비롯한 독자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수행된 글쓰기로서 그 의사소통의 목적이 설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설득적 글쓰기로서 상소문은 수신자가 정치적 위계에서 필자보다 우위에 있는 임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단일한 수신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수신자가 필자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상소문 쓰기는 필자가 고도의 설득 전략을 능숙하게 구사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동시에 필자에게 윤리적 책무 의식을 발휘하여 선행 발화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설득적 글쓰기로서 상소문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이상의 고찰은 상소문 쓰기가 구체적 상황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설득 행위로서 그 쓰기 수행에 독자에 대한 인식과 대화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게 해 준다. 이제아래에서는 필자가 그러한 대화적 노력을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득적 글쓰기에서 독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독자 구성과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

1) 설득적 글쓰기에서 독자 구성의 개념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은 독자가 필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존재이며,

필자의 쓰기 행위는 독자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때 독자 구성은 필자가 실재 독자를 바탕으로 허구적 독자를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응답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타자를 발견하고 호출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텍스트에 새로운 독자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작문 이론과 논증 이론, 서사 이론에서 다루어져 온 독자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필자가 구성하는 독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작문의인지적 과정, 설득적 글쓰기의 논증 구축 과정, 표현 결과로서 텍스트 차원에서 쓰기 행위를 이루는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작문 연구에서 독자 개념은 주된 이론의 변화 속에 다르게 규정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작문 이론 내에서 다양한 독자 개념이 발생해 왔다. 작 문 이론의 흐름을 정리한 나이스트랜드 외(Nystrand et al., 1993)의 연 구에 따르면, 작문 이론의 주된 흐름은 형식주의(formalism)에서 인지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그다음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urctionism)로, 그리고 대화주의(dialogism)로 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독자 개념은 텍스트 및 필자 개념과 함께 이론들 사이의 주된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지는데,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 독자는 의미를 전달받는 수신자로, 인지 구성주의에서는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 적인 해석자로,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 로, 대화주의에서는 필자와 함께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 대화 참여자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론들이 작문 현상에 대한 나름의 설명력 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하면, 각 이론에서 제안하는 독자 개념 중 한 가 지만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여러 이론에서 서로 다른 독자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쓰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독자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를 넓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작문 이론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다각도에서 밝혀져온 독자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생기는데, 작문 연구(Park, 1982; Ede & Lunsford, 1984; 정희모, 2008; 정혜승, 2013; 이재기, 2019)에서는 크게 실재 독자와 허구적 독자라는 축을 중심으로 다양

한 독자 개념과 독자의 기능을 설명해 왔다.

실재 독자는 텍스트 외부 세계에 실체이자 타자로서 존재하는 인격체를 가리킨다. 이들은 실체를 지닌 인격체라는 면에서 '실재'하며, 필자의글쓰기 과정에 관계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필자와 소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독자'이다. 실재 독자의 실체성과 외재성은 "특정한시공간 속에서 특정한 텍스트를 읽고 있는 고유 명사를 가진 생물학적존재"(이재기, 2019: 115), "필자 밖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필자의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정혜승, 2013: 48) 등의 개념 정의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독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고전 수사학에서부터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독자는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로서, 필자나 화자가 분석하고 고려하여 담화와 설득전략을 적응시켜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정희모, 2008: 397-399).

이에 비하여 허구적 독자는 필자의 인지와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독자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에드와 런스포드(Ede & Lunsford, 1984)는 이를 '호출되는 청중(audience invoked)'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필자에 의해서 창조된 독자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자 역할의 창조는 쓰기 상황의 특수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기 상황과 달리 쓰기 상황에서는 필자와실재 독자 사이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를 파악하듯이 필자가독자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텍스트를 독자에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고,이로 인해 필자가 독자의 역할을 상상하고 가정하여 텍스트에 그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되고 구성된 독자의 개념은 구술성에 대비되는 문자성의 핵심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옹(Ong, 1982/2009)은 말하기와 쓰기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쓰기 상황에서 필자가 허구적 독자를만들어 내게 된다고 보았고, 옹의 이러한 논의는 에드와 런스포드가 호출된 독자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Ede & Lunsford, 1984: 160-161).

따라서 허구적 독자는 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고 텍스트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쓰기 과정에서 필자의 내면에 구성된 허구적 독자 모두가 또는 허구적 독자의 모든 면이 텍스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찰 가능한 허구적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실재 독자와 허구적 독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작문 이론에서 독자에 대한 이해는 실재 독자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허구적 독자의 존재를 밝히고 허구적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다시실재 독자와 허구적 독자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전 수사학으로부터 20세기 작문 이론에 이르기까지 독자는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독자 또는 청중을 분석하고 고려하여 그들에게 맞는 담화와 설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관점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정희모, 2008: 397-399; 정혜승, 2013: 48). 그러나 '필자의 청중은 언제나 허구'라는 선언(Ong, 1975)으로부터 시작하여, 독자에 대한 관점이 독자의 허구성에 주목하는 쪽으로 옮겨 가기 시작하였다. 독자가 "관습, 예상, 암시된 응답과 태도들의 복합체"로 재개념화되기 시작하였고(Park, 1982: 251), 독자란 필자에 의해서 창조되며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Long, 1990)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독자 개념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독자란 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이자 타자로서 필자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필자에 의해 창조되고 변화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초점은 필자가 독자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것이 필자의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놓이게 되는데, 독자 구성개념은 이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독자 구성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화 상대자를 설정하고 필자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응답을 상정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대화 상대의 역할을 텍스트에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독자 개념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독자 구성이지니는 세 가지 층위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글쓰기의 과정 차원으로, 필자가 자신의 정신 속에 대화 상대자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득적 글쓰기가 논증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필자는 논증 행위의 대상인 독자를 보편적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구축해 나간다는 면에서 독자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사소통 의도가 텍스트로 실현됨으로써 독자와의 소통이 실제로 가능해지므로, 필자가 텍스트에 독자 역할을 기재(記載)한다는 의미에서 독자를 구성한다.

먼저 글쓰기 과정에서 독자 구성의 의미를 확인하자면, 앞서 작문 이론의 변천 과정에서 필자와 상호작용하고 필자의 의미 구성에 협력하는 존재로서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또는 대화란 실재 독자와 필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상호작용을 가리키기보다 필자의 인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대화를 가리킨다. 즉 필자는 실재 독자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발화에 대하여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상상하면서 쓰기를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구성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내적 대화와 상상적 의사소통의 결과 필자가 구축하는 독자의 상이 실재 독자와 같지 않고,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 기대하고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모습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설득적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새롭거나보완된 측면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의 반응을 상상하고 자신의 발화를 구축하는 필자의 행위가 독자를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구축하는 독자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그 글을 읽으며 제안된 독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실재 독자에게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것일 필요가 있다. 이는 논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독자 구성과 관련되는데, 필자는 논증 행위의 상대로서 독자를 표상하고 그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 구축해 나감으로써 독자를 구성한다.

논증 행위에서 독자 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신수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수사학은 "이야기의 문체와 미학에 관심을 두는"고전주의 수사학과 달리 "이야기의 설득적 기능에 관심"을 두고, "어떤 주장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동의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 기술"로서의 논증을 연구하는 논증 이론이다(Breton & Gauthier, 2000/2006: 40-41). 신수사

학을 제창한 페렐만은 모든 논증은 청중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았는데, 철학자들이 이성에 호소한다고 할 때조차 그것은 결국 청중에 게 호소하는 것이며, 청중이 논증 행위의 대상이자 논증의 합리성을 평 가하는 준거가 된다고 보았다(Perelman, 1984: 190; Crosswhite, 1996/ 2001: 169-173).

페렐만의 청중 개념은 특정 청중(particular audience)과 보편 청중 (universal audience)으로 나누어지며, 특정 청중은 특수한 가치를 공유 하고 있는 청중을, 보편 청중은 특정 청중의 편견이나 특수성을 초월한 "인류 전체, 또는 적어도 정상적인 성인 전체"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특 정 청중에게 유효한 논증 행위는 설득적(persuasive)인 것으로, 합리적인 모든 존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논증 행위는 납득시키는(convincing) 것으로 구별되는데, 페렐만은 모든 경우에 청중의 동의를 얻어 내는 효 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편 청중에게서 찾았다. 따라서 보편 청중은 논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Perelman & Olbrechts-Tyteca, 1959/1969: 30-31; 정혜승, 2013: 50-5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자가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하면서 타 당한 논증을 생성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보편 청중으로서의 독자를 구성 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하고 좋은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하 려는 필자의 목적은 단지 특정 청중으로서의 독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편견과 기호에 맞게 자신의 담화를 맞춰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 해 독자에게 영합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편 청중을 준거 로 하여 타당한 논증을 펼치고자 하는 필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특 정 청중으로서의 독자를 변화시켜, 보편 청중으로서의 독자를 구성해 내

보편 청중 역시 구성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일반적 방법은 크로스화이트(Crosswhite, 1996/2001)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그는 페렐만과 올브레히트-티테카의 논의들로부터 특정 청중으로부터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식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크게 특정

는 것이다.

청중으로부터 특수성을 배제하는 방식과 여러 특정 청중을 합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청중에게서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은 특정 청중의다양한 요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적이거나 특수한 특징들,합리성과 역량이나 태도에 부적절한 면이 있는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반면에 특정 청중을 합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지닌 여러 특정 청중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Crosswhite, 1996/2001: 179-180).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유일한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규칙"이 아니라 "여러 보편 청중들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술"이고, 보편 청중뿐 아니라 보편성 자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 이해된다(Crosswhite, 1969/2001: 179). 보편 청중이 하나의 고정된 집단이 아니고, 여러 보편 청중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을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중의 보편성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증을 펼치려는 노력 속에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필자의 인지 속에서 표상되고 변형되고 창조되면서 구성된 독자의 역할은 텍스트에 실현됨으로써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련되는 독자 구성의 또 다른 층위는 텍스트 표현의 차원으로, 필자가 실제 독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에 독자의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

앞에서 독자가 필자의 인지 속에서 대화의 상대자이자 보편적인 합리성을 지닌 보편 청중으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설득적글쓰기에서 텍스트로 표현되고 구성되는 독자로서 내포 독자의 존재를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사 이론과 독서 이론에서 이루어진 내포 독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내포 독자³³⁾는 본래 서사 이론에서 비롯한 개념으로, 이저(Iser, 1978/1993)의 독서 이론에서 텍스트 전략으로서 자세히 연구된 바 있으며, 채트먼(Chatman, 1978/2019)은 서사 텍스트의 소통 상황에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내포 독자의 위치를 [그림 Ⅱ-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채트먼(Chatman, 1978/2019)에 따르면 텍스트를 통한 소통은 텍스트에 내재하는 작가(내포 작가)가 역시 텍스트에 내재하는 독자(내포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고,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는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Chatman, 1978/2019: 35-36). 즉 텍스트에 기재된 독자는 실재하는 독자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허구적 독자인 것이다.34) 그에 따르면 이 내포독자는 "서사물 자체에 의해 상정된 독자"로서, 실제 독자가 "허구적 계약 관계에 들어갈 때" 자신에게 '추가하는 또 다른 자아'이다(Chatman, 1978/2019: 187-188).

³³⁾ 김승환(2018)은 서사 이론에서 내포 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을 살피면서 내포 독자 가 텍스트 층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포 독자가 'implied reader'의 번역어로서 적절한 개념인지 확인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implied reader'의 번역어로는 "내포된 독자, 상상된 독자, 함축적 독자, 함의된 독자, 암시된 독자, 내재적 독자, 의도된 독자, 가상의 독자, 추상적 독자, 선험적 독자, 내적 독자(inside reader), 추정된 독자(presumed reader) 등"이 사용된다(김승환, 2018:466). 그는 '내포'의 일반적 개념이 'implied'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미론적으로 '암시된 독자'라는 번역어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외도 존재하지만, 한국 현대소설 전공자들과 외국문학연구자들이 내포 독자라는 번역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도 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내포 독자'라는 용어가 국내의 서사 이론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것을 감안하여, 'implied reader'의 번역어로 내포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이때의 '내포'가 사전적 의미의 내포와 달리 서사 이론에서의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한다. 한편 뒤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크로스화이트(Crosswhite, 1996/2001)의 논의에서 'implied audience'는 '암묵적 청중'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텍스트 층위가 아니라 논증 층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므로 보편 청중, 특정 청중과 같은 논증의 청중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³⁴⁾ 채트먼은 서술자와 수화자의 존재는 선택적이라고 보았다(Chatman, 1978/2019: 187-189).



[그림 Ⅱ-1] 서사적 텍스트의 소통 상황(Chatman, 1978/2019: 189)

이저(Iser, 1978/1993)는 내포 독자(implied reader)를 "텍스트에서 독자에게 주어진 허구 텍스트가 그의 가능한 독자들에게 수용조건으로 제공하는 예비기준의 총체를 구체화"하는 독자 역할로 정의하였다(Iser, 1978/1993: 77). 즉 내포 독자란 실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내재하는 텍스트 전략으로서, 텍스트가 실재 독자에게 이해되거나 경험되는 것을 가능해지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실재 독자가 허구 서사를 읽는 동안 내포 독자의 역할을 취함으로써 허구 서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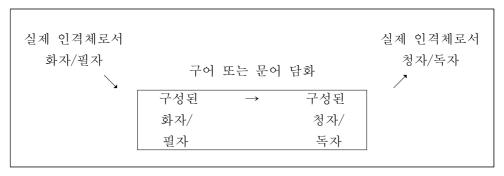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내포 독자가 텍스트 내에 독자 역할을 표시하는 텍스트 전략이고, 실재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동안 취할 역할을 제공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 이론에서 내포 독자에 관한 논의는 내포 독 자의 위치가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 그가 현실에 존재하는 경험적인 실 재 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로부터 내포 독자가 앞 서 논의한 독자의 개념 중 허구적 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 즉 내포 독자는 허구적으로 구성된 텍스트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의 주된 기능이 실재 독자가 텍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의 역할 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전략을 내포 '독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진 다.

내포 독자는 소설을 비롯하여 허구 서사의 소통 구조와 전략을 설명하고자 하는 문학 이론의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설득적 글쓰기에도 내포 독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개념을 통해 설득적 글쓰기의 방법을 탐구할 때 작문 교육에 유의미한 교육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설득적 글쓰기를 비롯한 설득 담화는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 독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허구 서사와 다르다. 그러나 설득 담화 속에 기재된 독자 역시 실재 독자와 동일하거나 실재 독자를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는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인데, 작문 이론에서 허구적 독자에 대한 논의는 단지 쓰기 과정이나 필자의 인지 속에 존재하는 독자에 대한 관찰뿐 아니라,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자의 특성에 대한 관찰에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옹(Ong, 1975)이 '독자가 허구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텍스트에 기재된 독자 역할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득적 글쓰기 결과 생산된 텍스트에 기재되는 독자가 실재 독자가 아 닌 텍스트 내적 존재라는 인식은 논증 이론과 수사학, 언어학 등에서 보 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자연 언어를 통한 논증 행위를 연구한 그리즈의 자연 논리학에서는 이를 도식화(schématis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논증 담화에 화자/필자, 청자/독자, 주제는 이미지 로 표상되어 도식화되고, 실재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이 이미지들을 재 구성함으로써 소통에 참여하게 된다(Van Eemeren, 1996: 322-329; Amossy, 2001/2003: 61). 수사적 문체론을 연구한 파네스톡(Fahnestock, 2011)도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담화 속에 화자/필자와 청자/독자의 이미 지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 는 수사학, 시학, 서사학, 화용론, 사회언어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들 이 동의하는 구성된 독자의 존재를 [그림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도식은 독자와 필자 사이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문 학 텍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설득적 글쓰기에서도 텍스트 내에 기재된 독자가 허구적 존재, 구성된 존재임을 보여 준다는 데서 의미를 지닌다.



[그림 Ⅱ-2] 텍스트의 일반적 소통 구조(Fahnestock, 2011: 278)

작문 연구에서는 이월드(Ewald, 1988)가 설득적 에세이에서 텍스트 내구성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확인한 후 이를 설득 담화의 내포 독자 (implied reader) 개념으로 제안한 바 있긴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를 '구성된 독자' 또는 '추정된 독자' 등의 개념으로 다루어 왔다.35) 그러나 본고에서는 설득적 텍스트에 기재된 이 독자를 내포 독자 개념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설득적 텍스트 내에 기재된 독자 개념을 내포 독자로 정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내포 독자가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므로 '구성된 독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는 여러층위에서 구성되므로 텍스트에 기재된 독자 역할을 구별하여 가리킬 수있는 개념이 필요해진다. 내포 독자 개념이 문학 이론에서 비롯하였고, 텍스트 전략을 의미하는 한편 허구 서사의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므로 설득적 글쓰기에서의 독자 구성의 전체적인 의미나 필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막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쓰기 과정에 작용하는 독자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의미의 독자가 여러층위에서 다양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독자'라는 단

³⁵⁾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평가어 이론 연구에서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화이트(White, 2020; White, 2021)는 필자가 태도를 표현하는 언어 자원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들은 필자의 상호작용 상대를 추정된 독자(putative reader)로 개념화하였다. 이 개념 역시 구성된 존재로서의 독자를 강조한다.

일한 개념, 포괄적인 독자 구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독자 개념을 통해 글쓰기를 연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쓰기 현상과 텍스트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독자 개념들이 필요해지는데, 앞에서는 구성되는 독자의 개념을 글쓰기 과정 층위와 논증의 층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텍스트 전략으로 구성되는 독자를 따로 구별하고, 이를 내포 독자로 보고자 한다. 내포 독자 개념은 설득적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허구적 독자들을 구별할 방법을 제시해 주므로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적 글쓰기에서 텍스트 내에 구성되는 독자들과 내포 독자의 개념을 확인하고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대신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몇 등급이나 죄를 올려 처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일을 점차로 확대시켜 각종 폐단이 마구 나오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거꾸로 대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여기는 점이 있게 하고 계시니, 이것이 과연사태를 진정(鎮定)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게 하는 데에 적합한 일이라고하겠습니까.36)

이식(李植)의 상소문 <기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의 일부분이다. 이 상소문이 수신자로 삼고 있는 현실의 독자, 실재 독자는 임금인 인조(仁祖)이다. 텍스트 안에서 수신자는 '전하(殿下)'로 호명되었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신하들을 마구 처벌하고 불안하게 만든' 독자와 '이것이 과연 화합시키는 데 마땅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독자는 동일한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신하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필자는 이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실재 독자를 텍스트 안에 재현하였다. '과연 마땅한 일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실재 독자를 향하여 발화되는 질문인데, 현실의 임금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할지 텍스트만 보아서는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전개 방식과 수사

³⁶⁾ 이식, 이상현 역, <기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 『택당선생 별집(澤堂 先生 別集)』 제4권, 한국고전번역원. "今殿下不徇大臣之議。罪之加數等。延及漸廣。 鬧端橫生。反使大臣。有所不安。此果合於鎭定調劑之圖乎。"

의문문을 사용한 표현은 누군가가 '이러한 행위는 화합시키는 데 적절하지 못하므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답이 가장 적절한 반응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설득적 텍스트에 적어도 둘 이상의 구성된 독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현된 실재 독자와 텍스트의 각 부분에서 필자와 대화하고 응답하며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텍스트 내에 있다. 재현된 독자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고, 재현 과정에서 필자의 인지적인 처리를 겪으므로 실재 독자가 아니라 허구적 독자이다. 텍스트의 부분에서 필자에게 반응하는 존재는 허구적 독자이지만, 텍스트 전체에 걸친 구조적 전략이아니기 때문에 서사 이론의 내포 독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없다.

텍스트의 제한된 부분에서 독자에게 반응하는 존재에 대한 단서는 다시 서사의 소통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Ⅱ-1]에서 채트먼 (Chatman, 1978/2019)은 내포 독자와 구별되는 서술자(narrator)와 수화자(受話者, narratee)의 자리를 표시하였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저 (1978/1993) 역시 '화자, 인물과 독자허구의 시점소지자'와 '내포 독자'는 구별되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텍스트 내에서 서술자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내포 독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때 수화자와 독자허구의 시점소지자는 텍스트 안에서 서술자의 직접적 대화 상대자들이다.

그렇다면 설득적 텍스트에서 재현된 독자도 내포 독자도 아니면서 필자의 목소리에 직접 반응하고 답하는 것으로 가정된 존재를 수화자 (narratee)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수화자(narratee)라는 용어가 서사 (narrative) 장르에서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서사 텍스트와 설득 텍스트의 소통 구조의 유사성과 텍스트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득적 텍스트에서도 수화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필자의 진술이 향하는 대상으로는 수신자 (addressee)라는 개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개념이 주로 현실의 실재 독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므로 텍스트 안에서의 대화자를 가리킬 다른 개념, 즉 '수화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내포 독자의 구성 원리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흐친(Bakhtin, 1979/2006) 역시 한 발화 안에는 수신자의 두 가지 역할 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곧 선행 발화자와 후행 발화자의 역할 이다. 선행 발화자란 곧 재현된 독자라고 볼 수 있고, 후행 발화자는 필 자(발화자)가 예견하는 대상이자 필자에게 응답할 것이 기대되는 존재이 다. 그런데 이때 바흐친이 논하는 것은 발화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이러 한 특성이 서사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포 독자와 함께 서사 이론에서 정립된 '수화자' 개념을 설 득적 텍스트의 독자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37)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텍스트 내에는 선행 발화자로서 재현된 실재 독자와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후행 발화를 실행하고 있는 수화자,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실재 독자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텍스트 전략이자 구조로서 내포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필자' 역시 구성되는 존재이고, 텍스트 안팎에서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2]에서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필자 역시 현실 세계에 인격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실제 필자와 구별되는, 구성된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설득적 글쓰기에서도 내포 독자와 수화자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므로, 설득적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구성된 필자 역시 내포 필자와서술자로 구별 가능한 존재일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모시(Amossy, 2000/2003)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개념을 적용하여 텍스트 내에 구축된 필자의 자기 이미지를 담화적 에토스로, 담화와상관없이 그리고 때로는 담화에 선행하여 청중이 필자에 대해 구축하는 필자 이미지를 선결 에토스로 구별하며 필자 개념의 중층성을 논한 바였다.38)

³⁷⁾ 텍스트 내의 이 '대화 상대자'를 호출된(invoked) 독자나 추정된(putative) 독자, 가정 된(presumed) 독자, 가상의(virtual) 독자, 이상적(ideal) 독자 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호출, 구성, 가정, 가상 등의 용어는 모두 허구적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현된 독자, 내포 독자, 수화자 즉 대화 상대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이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적 독자라는 개념은 텍스트 내에서 독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성격을 가리키므로 또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 역시 중층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되, 주된 논의를 독자 구성에 집중하여, 텍스트 내에 구성된 필자와 실제 필자를 모두 '필자'로 지칭하고자 한다. 상소문의장르적 특성 덕분에 이렇게 필자를 구분하지 않고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데,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서 실제 필자와 서술자, 내포 필자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허구 서사에서는 서술자가 텍스트 즉 허구 서사내의 존재로서 가공의 인물이지만, 설득적 글쓰기의 서술자는 실제필자의 표상이면서 그의 일부를 이룬다. 상소문을 교술 장르의 산문문학으로 보더라도, 실제 작가가 텍스트 내에 작중 화자로서 개입하여 발화하는 것이 교술 문학의 특성이므로(이주영, 2015), 서술자와 내포 필자, 실제 필자에 동질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소문의 서술자, 내포 필자, 실제 필자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면서도 '필자'로 지칭되어 독자 구성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필자'는 논의의 맥락에 따라 수화자와 함께 대화하며 태도를 조정하거나 설득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서술자, 내포 독자에 대응하여 일정한 정체성을 지향하는 내포 필자, 필자와 독자 및 텍스트를 구성하며 의사소통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실제 필자를 가리킨다. 수화자의 대화 상대자로서의 필자는 주로 서술자를 의미하며, 필자가 구축한 정체성은 주로 내포 필자에 관계된다. 독자, 필자-독자의 관계,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의도적인 의미 구성 행위의 주체에 관해 논의할 때 '필자'는 인격을 가진 실체이자 글쓰기의 주체인 실제 필자를 가리킬 것이다.39)

³⁸⁾ 선결 에토스는 청중이 구축하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자기 정체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의 정체성과 자아에 관해서는 장지혜(2016)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³⁹⁾ 신명선(2009)은 글쓰기 과정이 가상 필자와 예상 독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성을 인식할 때 "가상 필자가 예상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실제 필자가 자기 자신을 위치 지우는 방식(가상 필자 구성), 그리고 예상 독자를 규정짓는 방식(예상 독자 구성), 가상 필자와 예상 독자를 관계 짓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방식 등"을 연구 주제로 예시하였다(신명선, 2009: 224).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 독자 구성'에 대한 주목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실제 필자의 정체성과 글쓰기 과정의 관계, 글쓰기가 필자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필자 정체성이 텍스트

지금까지 논의에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서 이론에서 이루어진 내포 독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문학 텍스트에서 내포 독자의 구성에 대해서 이 저(Iser, 1978/199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텍스트 구조에 관해 우리는 모든 문학 텍스트는 작가가 설계한 세상 에 대한 시점적 관찰을 표현한다고 전제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의 텍 스트는 주어진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앞에 놓 여 있는 것을 자료로 하여,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축방법 에서 작가의 시각이 표명된다. 이 텍스트에 의해 설계된 세상의 점진 적인 낯설음이 파악되려면, 독자가 그에게 주어진 견해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문학텍스트는 세상에 대한 작가의 시 점적 견해일 뿐만 아니라. 시점적 형상물 그 자체로서 이 견해를 확정 시키며, 이 확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 사태는 소설에서 범례적으 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소설은 일종의 시점적 설치시설을 갖는데, 이 것은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화자, 인물, 줄거리(플롯)와 독자허구의 시 점소지자로 구성된다. 이 텍스트 시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위 계적 등급에서도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와 동일 하지는 않다. 오히려 텍스트 시점들은 보통 텍스트에서의 기준 구심점 을 표시하며, 이들은 서로의 공통된 지시맥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 로 관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독자에게 특정한 텍스트 구조 가 주어진 것이며, 이 구조는 독자가 요구된 대로 텍스트 시점들을 통 합할 수 있는 관점(Blickpunkt)을 갖도록 강요한다.40)

인용문에서는 소설이 "작가가 설계한 세상에 대한 시점적 관찰"의 표현이라는 특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실제로 글을 읽는 독자는 현실 세계에서 소설 속 세계의 지시 대상이나 실체를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작가가 설계한 세상"은 독자에게 낯설게 여겨진다. 독자가 이 낯선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보여 주는 것을 따라서 보며 텍스트 속

에 에토스로 구축되는 양상 등에 관해서 이바닉(Ivanič, 1998), 이주영(2015), 장지혜 (2016), 장지혜(2020) 등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⁴⁰⁾ Iser(1978/1993), 77-78.

세상을 스스로 구축해 내야 하는데, 이때 작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속 세계를 이해하고 구축해 낼 수 있도록 일 관된 관점, 텍스트의 "시점적 설치시설"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점과 구조를 설치해 놓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실재 독자가 그 역할을 취했을 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독자의 역할이 텍스트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저는 독자 역할 즉 내포 독자를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시점적 설치시설 즉 구성 요소로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화자, 인물, 줄거리(플롯)와 독자허구의 시점소지자"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설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텍스트 유형 혹은 장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 역시 설득적 글쓰기의 텍스트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립할 수 있다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득적 글쓰기는 "필자가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통해 독자의 태도 나 행동을 변용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혹은 과정"으로(주재우, 2011: 28), 그 목적이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텍스트의 구성 요소는 주장과 논거, 즉 논증이다. 그러나 설득적 글쓰기는 논증 요소의 나열이나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설득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설득 전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설득의 수단으로 제시한 이래로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구분되어 왔다. 인성적 설득은 텍스트에 기재된 필자의 성품을 통한 설득으로,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등으로 구성된 필자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의미하고, 이성적 설득은 논증 요소를 활용한 설득을 가리킨다(권순희 외, 2018). 감성적 설득은 청중 혹은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 비합리성과 감정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을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감성적 설득은 영향력이 크고, 감

정 역시 이성적 판단의 영향을 받으며 감성적 설득과 이성적 설득이 결합하여 작용하기도 하므로, 감성적 설득 역시 설득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Amossy, 2000/2003; 김상희, 2011; 권순희 외, 201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는 텍스 트 구조를 통해 표상된 독자 역할을 가리키며, 내포 독자 구성은 필자가 논증 요소와 설득 전략 등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 요소와 재현된 독자. 수화자를 활용하여 텍스트에 독자의 역할을 표상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41) 이를 통해 텍스트는 실재 독자가 텍스트에 구축된 내포 독자의 모 습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설득 전략 등을 통해서 변화해 가 는 수화자 즉 필자의 대화 상대자로서 실재 독자가 취할 역할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실재 독자의 변화를 견인한다. 따라서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것은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포함하게 되고, 이 변화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포 독자의 상(像)이 구축된다. 이러한 구성 행위로 인하여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자신 에게 바라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텍 스트 구조로 작용한다. 이 텍스트 구조는 실재 독자에게 글을 읽는 동안 취할 역할을 제공하고, 필자의 설득 행위가 궁극적으로 어떤 인격체의 형성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므로 '독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4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중요성은 그것이 필자가 설득 전략을 구사하고 운용하도록 해 주는 내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실재 독 자나 청중의 특성을 알고 분석하여 청중에 적응하는 것이 연설자 또는 필자가 설득 전략과 담화 내용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학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⁴¹⁾ 논증 요소와 설득 전략은 설득적 글쓰기의 장르 특성에서 비롯하는 내포 독자 구성 요소이다. 재현된 독자와 수화자는 앞에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 구조에 내재하는 독자의 종류로서 내포 독자의 일부를 이룬다.

⁴²⁾ 크로스화이트(Crosswhite, 1996/2001)는 이와 관련하여 논증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주장자와 논증 행위의 대상인 청중 사이의 갈등 때문인데, 주장자가 보기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청중의 변화라고 지적한다. 그로 인해 "현상태의 청중과 주장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청중 사이의 괴리가 불러오는 갈등이" 생기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논증의 가치는 그것이 지시하는 삶의 가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Crosswhite, 1996/2001: 171-172)

청중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설득 담화나 설득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설득 담화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화법 교육 내용이 개발되기도 하였다(박재현, 2006; 최영인, 2014; 박재현, 2016).⁴³⁾ 그러나 설득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설득적 글쓰기나 설득적 말하기의 교육 내용으로 삼을 때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한 가지 기준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설득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있는가이다. 바람직한 설득적 글쓰기나 글쓰기 교육은 효과성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렐만이 대중에 영합하는 것을 경계하고 보편 청중을 향한 논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었다(Perelman & Olbrechts-Tyteca, 1959/1969: 30-31).

이와 관련하여 논증 행위에서 청중의 개념을 다룬 크로스화이트(Crosswhite, 1996/2001)의 '암묵적인 청중(implied audience)'에 대한 언급이 참고할 만하다. 그는 논증을 읽을 때 "주장이 이루어지는 대상", "이에 따라 논증 행위가 개진되어 나가는 관점에서의 청중"이 발생한다고 보 고, 이를 암묵적인 청중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독자와 글쓰는 사람은 독 서와 글쓰기의 매 단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 실제적인 방식에 의 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재 독자가 독서 중에 취하는 역할 또 는 정체성이 텍스트에 기재된 독자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Crosswhite, 1996/2001: 172-173). 따라서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면서도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 형성 하기 바라는 인격적 특성을 갖춘, 필자가 설득 전략을 선택하고 구사하 고 운용하는 과정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원리이자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글쓰기 과정이나 논증의 구사 차원에서 필 자가 표상하고 구성하는 독자도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내포 독자는 그것 이 텍스트에 실현되고 실재 독자와 소통하는 직접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 는 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⁴³⁾ 이와 관련하여, 박준홍(2020)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에서 연설 교육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설득 전략의 내용은 교육되고 있으나 활용할 전략을 결정하고 효과성을 판단하게 하는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황 및 청중 분석에 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특히 전략 활용의 조건으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 설득적 글쓰기에 관련된 독자의 개념과 텍스트를 통한 보편적 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독자 구성과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할수 있었다. 작문 이론의 흐름 속에서 고찰된 독자의 존재 양상과 기능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독자는 허구적 존재로서 필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대화 상대자를 설정하고 그의 선행 발화에 응답하는 동시에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응답을 예상하면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이를 텍스트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를 구성한다. 독자 구성은 글쓰기의 과정 층위에서 필자의 인지 속에서 일어나고, 논증의 층위에서 보편 청중을 구축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텍스트 층위에서 독자 구성은 내포 독자 구성으로써 실현되는데,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텍스트 전략으로서, 실재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취할 것으로 예비된 독자 역할을 제공한다. 필자는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 요소인 설득 전략과 실재 독자 재현, 수화자의 변화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내에 독자의 역할을 표상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구성한다. 이때 내포 독자는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내적 원리로 작용하여, 필자에게 글쓰기의 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립한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가 구성되는 원리를 밝히도록 하겠다.

3.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의 원리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는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 바라는 독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설득 전략과 논증 요소를 통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포 독자 구성은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리가 된다. 이 절에서는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원리를 태도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평가어 이론의 태도 개념을 원용하여 내포 독자 구성의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44)

평가어 이론은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가 체계기능언어 학을 기반으로 정립한 언어학 이론으로, 필자가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여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구 체적으로는 평가어(appraisal)를 통해 필자의 스탠스(stance)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평가어 체계는 개입(engagement), 태도(attitude), 강도 (graduation)의 세 영역과 그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그 사용 양 상의 종합적 분석 결과로 필자의 스탠스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어 분석은 필자의 스탠스나 태도를 밝히기 위하여 주로 수행되고, 최근 에는 이를 통해 필자와 독자의 관계, 필자가 설정한 독자의 태도나 스탠 스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이를 통해 쓰기 방법이나 쓰기 교육 내용을 연 구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박진희와 주세형(2020)은 건의문 자료에 나타난 평가어를 통해 필자의 스탠스를 분석하고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한 바 있고, 화이트(White, 2020; White, 2021)는 뉴스 칼럼 등에서 필자가 추정된 독자(putative reader)의 태도 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어를 분석한 바 있다. 이러 한 노력은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뿐 아니라 독자의 태도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필자가 내포 독자에게 어떤 역할 혹은 정체성을 부여하고 설득 전략을 포함한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여 내포 독자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있으므로, 평가어 체계의 태도 개념과 범주를 참고하되, 논증 요소와 설득 전략이 수화자의 태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에 중점을 두고 내포 독자 구성 원리를 탐구하고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내포 독자의 구성 원리를 실재 독자와수화자의 분리,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설득 전략을 활용한 수화자의 태도 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⁴⁴⁾ 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태도에 주목하므로 평가어 이론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1) 실재 독자와 수화자의 분리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와 수화자가 분리됨으로써 구성된다. 서사 이론에서도 내포 독자가 수화자(narratee)나 독자허구와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45) 서사 내의 등장인물과 구별되는 독자의 역할로 텍스트내에 기재된 것이 내포 독자이기 때문이다. 즉 허구 서사에서 내포 독자는 서사의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데서 담화 내의 다른 인물들과 구별된다. 등장인물과 구별되는 내포 독자의 이 위치로 인하여 내포 독자는 텍스트 밖의 실재 독자가 등장인물뿐 아니라 서사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득적 글쓰기는 허구적 등장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수신자를 향한 담화이기 때문에 담화 내 인물 즉 재현된 실재 독자와 텍스트 내의수화자의 분리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인격체로서 독자의 현실세계에서 모습이 텍스트 내에 표상되면서 동시에 그 텍스트의 수화자로서 그의 역할이 텍스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서로 다른 역할이텍스트 밖 실재 독자라는 한 인격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6) 그러나 이 역할의 분리는 발화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서 비롯되

⁴⁵⁾ 채트먼은 텍스트에 늘 내재하는 내포 독자와 달리 수화자(narratee)의 존재는 선택적이며, "수화자, 내포독자(서사물에 내재하는 관계자), 실제독자(서사물에 외재하고 우발적인 관계자)를 구별하는 것은 서술자, 내포작가, 실제작가를 구별해야 하는 것만큼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Chatman, 1978/2019: 187-189). 이저는 내포 독자 개념을 밝히기 위하여 독자를 이상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과 경험적 존재로 보는 관점을 대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독자허구(Leserfiktion)는 볼프(Wolff)의 '의도된 독자'가 텍스트에 기입된 것으로, 당대의 이상적인 독자관과 작가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이저는 이 독자허구가 "작가가 통하려 하거나 말하고자 했던 독자층"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이것이 텍스트 시점들 중 하나일 뿐이며 텍스트 시점의 종합을 통해 구성되는 독자역할 즉 내포 독자와는 구별된다고 본다(Iser 1978/1993: 75-76).

⁴⁶⁾ 여기서 본고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필자가 의도한 수신자와 실재 독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설득적 글쓰기는 대개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고, 내포 독자는 일차적으로 그 설득 대상이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취할 것으로 요구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의도된 수신자는 특정 청중으로서 복수의 대상이거나 일반 대중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실재 독자와 내포 독자, 재현된 독자와 수화자는 분리되는데, 청중이 담화 속 논증의 발화 작용 장치로 기재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아모시(Amossy, 2000/2003)는 일반 대중이나 집단으로서의 청중이 전형화 과정을 거쳐텍스트에 재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때 전형적인 특성이 부각된 담화 속 독자

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친(Bakhtin, 1979/2006)의 다음 과 같은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발화의 수신자는, 발화가 대답하는 그 사람(들)과 이른바 개인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일상적 대화나 편지 교환에서 이 개인적 일치는 보편적이다. 내가 대답하는 그 사람이 동시에 나의 수신자이고, 나는 그의 대답(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능동적인 응답적 이해)을 기다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적 일치의 경우에 한 사람이 두 가지 다른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할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대답하는(내가 동의하고, 반박하고, 실행하고, 참고하는 등등의) 사람의 발화는 이미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의 대답은 아직 미래에 있다. 자신의 발화를 조직하면서 나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려 한다. 다른한편 나는 그의 대답을 예견하고, 예견된 대답은 나의 발화에 능동적으로 작용한다.47) (고딕은 원문,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바흐친은 의사소통의 단위인 발화의 속성, 즉 수신자를 향하는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발화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지는 성질을 지니며, 소통 영역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수신자의 전형적인 성격에 따라서 담화 장르가 다르게 규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발화 안에는 그 발화의 수신자에게 부여된 두 가지 역할이 공존한다. 그 역할 중 하나는 지금 발화하고 있는 발화자에 앞서 말한 '선행 발화자'로서의 역할 즉 "내가 대답하는" 대상으로서의 발화를실현했던 주체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는 발화에 대해 앞으로 있을 발화 즉 '아직 미래에 있는 대답'을 실현시킬 '후행 발화자'의 역할이다.

집단의 이미지는 텍스트를 읽어 나가며 그 이미지를 지닌 대상에 대하여 필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상정된 상대 즉 수화자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실재 독자가 텍스트가 소통되는 맥락에 소속되지 않거나 의도된 수신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상소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임금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대의 독자들은 필자가 의도한 수신자, 필자가 변화를 의도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독자는 텍스트 안에서 자신의 재현을 발견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포 독자의 역합을 취하게 된다.

⁴⁷⁾ Bakhtin(1979/2006), 「담화 장르의 문제」, 395면.

선행 발화는 이미 일어난 현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가 선행 발화와 그 발화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반박하고, 실행하고,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행 발화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인용문의 표현을 빌리면 필자가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결정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실재 독자의 역할과 텍스트를 통해서 필자와 소통하고 추론해 나가는 역할로서의 수화자의 역할은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재 독자는 텍스트 외부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타자이므로, 텍스트 내적 존재가 아니고 내포 독자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에 기재된 선행 발화자와 그의 선행 발화는 실재 독자가 아니라 실재 독자의 재현이다.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선행 발화자의 발화는 필자의 응답 행위를 통해 재현되므로 이 역시 구성된 존재이고 내포 독자의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필자는 실재 독자와 수화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선행 발화자로서의 실재 독자와는 구별되는 태도, 자질과 특성을 수화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구성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실재 독자를 표상하여 그의 태도를 재현하는 방식과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상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필자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를 설득할 필요성은 단지 문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태도 가 필자의 태도와 같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 예컨대 독자가 문제를 의 식하지 못하거나 문제나 해결책을 필자와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독자가 텍스트를 읽은 후 필자에게 동의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 상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필자와 다르게 생각했던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은 수화자가 실재 독자와 분리되어 실재 독자를 객관화하여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실재 독자의 태도가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표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화자가 실재 독자를 변화의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을 비롯한 설득 담화의 생성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청중이나 독자 분석을 중요한 수행 요소로 삼는 것을 이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재 독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상, 독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의 표상이 이후의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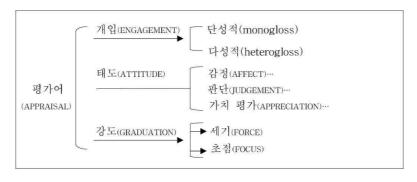
그런데 '독자'라는 개념이 인격체를 가리키므로, 인격체의 다양한 부면 과 자질 중 필자가 표상해야 하는 것이 실재 독자의 무엇인가 하는 문제 가 생긴다. 수사학에서 주목하는 청중의 역할과 설득 이론의 핵심적 개 념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수사학에서는 청중의 통념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아모시(Amossy, 2000/2003)는 신수사학을 바탕으로, 청중이 논증 담화에서 "동의를 얻고 자 하는 말이 근거할 수 있는 견해 · 신념 · 사고 구조의 총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한다는 것과 이로부터 논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점을 잘 보여 주었다(Amossv, 2000/2003: 57). 한편, 설득 이론에서는 설득의 궁극적 목적이 태도의 변화에 있다고 보고. 태도의 구성 요소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데, 태 도는 대체로 "사물, 사람 또는 이슈에 대해 갖는 일반적이거나 지속적인 긍정적,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된다(Bem, 1970, 김영석, 2019: 71에서 재 인용; Pettv & Caccioppo, 1996). 이때 태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 념과 사고 구조, 가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설득 이론에서 태도 변화를 설득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태도가 인지 적 요소를 포함하며,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8) 이상을 바탕으

⁴⁸⁾ 김영석(2019)에서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으로 신념, 습관, 의견, 가치를 들고, 그중 특히 신념은 태도의 인지적 요인을 이룬다는 점을 설명한다. 행동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와 함께 태도의 구성 요소로 여겨진 적도 있었으나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행동을 태도의 구성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태도와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로,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면서 독자의 가치와 신념, 의견, 나아가 독자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독자의 태도이며, 독자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는 감정 표현, 행위에 대한 판단 표현,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가치 평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가 체계기능언어학과 대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운 평가어 이론⁴⁹⁾에 따르면,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의 체계는 세 가지 의미론적 영역에 관련된다.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AFFECT), 사람이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JUDGEMENT),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 평가(APPRECIATION)가 그것이다. 이들 요소의 한 가지 또는 둘 이상이 결합하여 기본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Martin &

⁴⁹⁾ 평가어 이론은 필자나 독자의 태도가 텍스트에 표현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태도를 분석할 방법을 제시해 준다. 평가어 체계는 '태도', '개입', '강도'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태도(attitude)' 평가어에 의해서 감정이나 느낌의 내용이 표현되고, '개입 (engagement)' 평가어를 통해서 하나의 명제가 표상하는 대화적 공간이 드러난다. 이대화적 공간은 화자(필자) 자신의 목소리만 담고 있는 단성적(monogloss) 표현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다른 목소리를 포함하는 다성적(heterogloss) 표현을 통해 확장된다. 명제에 담긴 확신의 정도는 '강도(graduation)' 평가어를 통해 드러난다(Martin & White, 2005: 34-38). 이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Ⅱ-3]과 같다.



[그림 Ⅱ-3] 평가어 자원 개관(Martin & White, 2005: 38)

사실이므로 태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도 있고,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김영석, 2019: 69-117).

White, 2005: 42-45).50)

독자의 태도는 독자를 주어로 하여 직접적으로 서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신명선(2009)은 필자가 독자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목소리로 드러난다고보고 "가상 필자가 예상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어성(語聲)"으로 규정하여 논의하면서51), 이 목소리가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가상 필자와 예상 독자가 일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이 유지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신명선, 2009: 226, 232). 필자의 정체성뿐 아니라 예상 독자의 정체성 역시 가상 필자의 어성 즉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필자의 태도와 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자원으로는 인칭 대명사나 높임법, 구어 또는 문어 양식(mode)의 선택(신명선, 2009: 230-231), 평가어 자원(White, 2020; 이슬비, 2016), 상위담화(Crismore et al., 1993; Hyland, 2005) 등이 연구되었다.이 가운데 화이트(White, 2020; White, 2021)의 연구는 특히 내포 독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서 본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에 따르면 어떤 진술이 평가어 중 개입(engagement)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필자의 태도뿐 아니라 독자가 필자의 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되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텍스트 속

⁵⁰⁾ AFFECT, JUDGEMENT, APPRECIATION의 번역어는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개념 설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통번역 연구(마승혜, 2011; 우경조, 2021)나 국어교육 연구(박진희·주세형, 2020) 등에서 AFFECT는 감정 또는 감정평가, JUDGEMENT는 판단 또는 행위평가, APPRECIATION을 가치 평가, 사물평가 등으로 번역하였다. 본고에서는 감정, 판단, 가치 평가라는 번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황 인식'이 해당 상황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독자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 표현을 함께 쓰고자 한다.

⁵¹⁾ 신명선(2009) 역시 글쓰기의 의사소통이 가상 필자와 예상 독자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텍스트에 나타나는 독자상이 실재 독자와는 구별되는 텍스트 내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가상 필자가 예상 독자에 대해 갖는 입장을 나타내는 어성 외에도 "소재·주제에 대해 갖는 입장을 '어조(語調)'로, 어성 어조에 의해 종합적으로 위치 지워지는 필자의 입장을 '자세(stance)'로 규정"하여 논의하였다(신명선, 2009: 232).

에 추정된 독자(putative reader)의 태도가 필자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거나(like-minded), 중립적 즉 설득 가능하거나(uncommitted/persuadable), 필자의 태도와 불일치(unlike-minded)하도록 정렬(align)된다고 파악하였다. 그가 언론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독자 태도를 필자가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양상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필자와 추정된 독자의 태도 정렬의 언어적 실현 양상(White, 2020)

필자와 추정된 독자의 태도 정렬	실현 양상
일치	 (1) 주어진 명제를 전제함. (2) 명제가 정당화를 통한 지지 없이 단성적으로 단언됨. (3) 부사어를 통한 필자/수신자 동의 표시 (물론, 명백히, 틀림없이 등) (4) 필자가 느낀 충격이나 놀라움을 수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암시됨. (5) 수사적 질문에 대한 특정한 답을 함으로써 수신자도 필자에게 동의할 것으로 가정됨. (6) '보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중립적 /설득 가능함	(1) 용인(entertain) 표현: 인식 양태, 증거성 및 관련 형식 (2) 논쟁되고 있는 명제를 지지하는 근거나 정당화 과정
불일치	(1) 수신자의 반대나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단언함. (2) 부정을 통해 수신자의 생각을 시정함.

그런데 <표Ⅱ-1>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의 태도는 평가어나 언어 형식 외에도 전제의 활용이나 정당화 과정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아모시(Amossy, 2000/2003)는 필자가 명시적인 명사 지칭, 청중에대한 기술, 인칭대명사의 사용에 더하여 공유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실들을 통해 담화 속에 청중의 이미지를 기재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비슷한 인식이 파네스톡(Fahnestock, 2011)의 수사적 문체론 연구에도 나타나는데, 그는 명명이나 돈호법, 청중의 분리나 배제를 비롯한 다양한수사법이 텍스트 속에서 독자를 표상한다고 분석하였다. 정혜승(2013)도독자와 의사소통하려는 필자의 노력은 언어 표현을 넘어서 텍스트 구조

나 텍스트 내용, 독자 고려 전략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필자의 설득 전략을 바탕으로 한 수사적 이동 전략을 통하여 필자가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정혜승, 2013: 220-227).5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내포 독자 구성은 독자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태도는 감정, 행위에 대한 판단, 상황이나 사물에대한 가치 평가로 나타난다. 이때 독자의 태도는 언어 형식과 텍스트의구조, 내용, 공유된 전제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방식으로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함으로써 필자는 텍스트 내에 내포 독자를 구성할 수 있다.

3) 설득 전략을 활용한 수화자의 태도 조정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는 이미 파악된 실재 독자의 태도와 다른 수화자의 태도를 구축해 나간다. 필자가 논증을 펼치고 설득 전략을 구사할때 수화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가정되고, 필자가 글의 내용을 전개함에 따라서 필자 쪽으로 수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수화자는 텍스트 내에서 변화해 나가는 역동적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에 사용된 언어적 자원들은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독자에 대한 직접적인서술은 물론 필자가 인식하거나 예상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독자의 태도를 나타내 준다. 그에 더하여 필자의 감정, 인식,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함의하기도 한다. 텍스트의 전개 속에서 필자의 목소리와 태도의 변화는 그런 전개에 따라 대응하는 수화자의 변화를 상정하고, 그런 변화와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는 정체성을 지닌 내포 독자를 만들어 나간다.

⁵²⁾ 정혜승(2013)은 수사적 호소를 바탕으로 제안된 수사적 이동 전략을 다시 서수현과 함께 수정·발전시킨 PAIR 전략을 필자가 독자의 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틀로 삼 았다.

그런데 텍스트 내의 한 지점에서 수화자에게 가정된 태도는 언어 형식을 통해 구축될 수 있지만, 수화자의 태도 변화 과정은 문법적 절이나하나의 명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 변화의 추이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설득적 글쓰기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논증과 설득 전략의 구사라고 할 수 있다. 인성적·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의 활용은 그러한 설득 행위를 통해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독자와 태도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기대 혹은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와 함께 추론할 때 독자가 자신과 비슷한 태도를 지니게 되거나 적어도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독자에게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필자가 이렇게 기대하는 독자야말로 텍스트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포 독자인 것이다.

따라서 설득 전략의 구사 양상을 통해서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인성적·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기본 요소로 삼고 이전략들이 결합된 방식을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득 전략과 수화자의 태도 조정 양상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적 설득이 반드시 수화자의 판단 내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감성적 설득 전략이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감성적 설득뿐 아니라 이성적 설득을 펼쳐야 할 수도 있다.

수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한 내포 독자 구성 전략의 바탕을 이루는 인성적·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적 설득 전략은 필자의 공신력(credibility)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필자의 공신력을 이루는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전문성, 신뢰성, 선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McCroskey & Young, 1981, 김영석, 2019에서 재인용). 전문성은 필자가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성은 필자가 사심 없는 태도로 설득 행위에 참여하고 있음을, 선의는 필자의 설득 행위가 청중을 배려하고 청중의 유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권순희 외(2018)는 학습 필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신 성실성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이성적 설득은 논증을 활용한 설득 전략이다. 논증의 유형과 이성적설득 전략에 대한 연구는 신수사학과 논증 이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 논증 도식에 대한 연구는 전제와 결론 즉 논거와주장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을 밝혀 주는데(민병곤, 2004:61), 논증 도식은 필자와 독자가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구축하거나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논증 도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킨포인트너의 유형 분류가 비형식 논리학, 수사학, 화용·대화론 등 다양한 논증 이론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체계화한 성과로 받아들여지며 논증 담화나 글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민병곤, 2004; 이영호, 2016; 김서윤, 2016), 이를 중심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킨포인트너(Kienpointner, 1992)는 결론(conclusion)과 논거(argument), 보증(warrant, 보장 또는 전제)을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서 이들의 관계 를 중심으로 논증을 분류하였다. 킨포인트너의 논증 도식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53)

⁵³⁾ 킨포인트너(Kienpointer, 1992: 182). 민병곤(2004), 김서윤(2016), 권순희 외(2018)을 참고함. 권순희 외(2018)에서는 이 도식에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가 제시한 분리 도식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표 Ⅱ-2> 킨포인트너(Kienpointner)의 논증 도식 분류(Kienpointer, 1992: 182)

논증 도식		특성	
보증 사용	포함 도식	정의, 유-종 관계, 전체-부분 관계에 의한 논증	
	비교 도식	동일성/유사성, 차이, 상호관계에 의한 논증	
	대당관계 도식	모순, 반대, 역, 양립불가에 의한 논증	
	인과 도식	원인-결과, 행위-결과, 목적-수단에 의한 논증	
보증 생성	귀납적 예시 도식	보장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설명적 예시 도식	사례로부터 보장을 이끌어 내어 활용하는 논증	
유추	유추 도식	일반적 보장을 사용하지 않는 논증	
권위	권위 도식	권위를 사용한 논증	

감성적 설득 전략은 독자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을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득 담화 연구나 설득 이론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소구를 중심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박재현(2016)에서는 공포 소구, 유머 소구, 성적 소구, 온정 소구를 대표적인 감성적 소구로 소개하였으며, 김영석(2019)에서는 공포, 일체감, 죄의식, 상호호혜성, 부조화, 유머, 성, 따스함, 환심, 희소성,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소구들을 소개하고 여러 소구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감정적 호소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겨지지만, 감정이 사람의 동기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설득 행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김상희, 2011).

이상에서 살펴본 설득 전략들은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전략을 구사하려면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전략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구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가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이 전략들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필요하며, 독자 구성이 그러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독자 구성은 독자의지식, 요구, 관심사를 고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득 전략의 운용에는 독자에 대한 기대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성적 설득은 기본적으로 수화자가 필자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이성적 설득 즉 논증을 활용한 설득은 수화자를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을 존재로 구성해 나간다. 특히 논증의 바탕을 이루는 통념이나 전제는 필자와 수화자가 합의하고 있거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감성적 설득은 필자와 수화자가 공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의 재현과 필자와 수화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된다. 실재 독자는 그 자체로서는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므로 내포 독자를 이루지 않지만, 필자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표상하고 재현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구축한다. 텍스트 내에서 필자는 독자와 상호작용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구축하고 서로의 태도를 조정해 나가는데, 이때 필자의 상호작용 상대는 실재 독자의 재현이 아니라 수화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화자는 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 존재이며, 변화의 과정을 표상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이룬다. 평가어를 비롯한 언어 자원들을 통해실재 독자를 재현하고 수화자의 태도를 표상할 수 있지만, 수화자의 태도는 주로 설득 전략에 의해 조정된다. 실재 독자의 재현과 수화자의 변화 양상을 통해 구축된 내포 독자는 인격적 특성을 띠며, 필자가 지향하거나 실재 독자에게 제안하는 보편성을 제시한다.

4.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연구의 작문 교육적 의의

1) 응답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자의 독자 인식 신장

조선 시대의 상소문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치적 위계 질서

가 분명한 환경에서 소통되던 양식이다.54)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평등이 이념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면에서 조선 시대와 매우 다르고, 이런 환경에서 과거의 상소문 양식은 그 형식그대로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학습자가 그 양식을 익혀 상소문을 생산하게 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의 설득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응답적 이해로서 발생한 이 양식의 글쓰기 방법은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 유의미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 연구가 지닐 수 있는 작문 교육적 의의 한 가지는 학습자의 응답적 상호작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우리는 권위적인 담론들 속에살아가며, 그로 인해 상소문의 필자들이 정치적인 위계에 맞서야 했던 것처럼 현대의 개인들도 어떤 권위 앞에서 중요한 가치를 옹호해야 할 필요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면에 있어서 상소문의 필자들이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오히려 현대의 학습자들은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서 다양한선행 발화와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주장을 생성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과제는 권위적인 발화를 내적으로 대화적인 발화로 재인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응답적 상호작용 역량을 요구한다. 즉 다양한 선행 발화와 그 발화자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필자는 자신의 발화가 구성하는 자신과 독자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독자를 인식하고 구성할 줄 아는 능력이 이러한 역량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한다.

⁵⁴⁾ 상소문은 조선 시대 이전에도 생산되고 소통되었으므로 모든 상소문이 성리학적 가 치관 속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상소문 자료의 절대 적인 부분이 조선 시대의 것이고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 역시 조선 시대의 상소문이므로 논의의 범위를 조선 시대로 국한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상소문 쓰기는 내포 독자 구성을 통해 응답적 이해를 표현한 사례로서 현대 학습자의 독자 인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상소문 필자가 독자를 인식하고 구성한 방법, 내포 독자를 텍스트에 구축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를 구성하고 내포 독자를 통해서 설득 전략을 조정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실재 독자를 인식하고 우리의 설득적 글쓰기를 통해서 구성되는 독자의 상을 스스로 가늠하면서 좋은 설득적 글쓰기를 추구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설득 전략 구사를 위한 독자 교육 내용 제시

상소문이라는 실제 글쓰기 양식에서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설득적 글쓰기에서 설득 전략이 독자 요소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 상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설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독자를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 설득적 글쓰기에 중요하다는 인식 이 오랫동안 있어 온 만큼 독자와 관련하여 교육할 내용은 연구가 더 필 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자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⁵⁵⁾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56)

- 이 중에서 [12화작03-04]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⁵⁵⁾ 교육부(2015: 61).

⁵⁶⁾ 교육부(2015: 82).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 하도록 한다.57)

위에 인용한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독자에 대한 분석이 논거를 마련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심화 과목인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정도를 독자 요인으로 반영하여, 대개 독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정도를 분석 요소로 삼고 있다. 이러한 범박한 독자 분석은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데 활용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 독자의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설득 전략의 구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독자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주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독자를 고려하는 필자의 의도가 실현되는 양상을 관찰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가 글을 쓰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는 학습자가 과제에 따라서 초고를 작성하게 한후에 독자 요인을 제시하여 독자를 고려하여 초고를 고쳐 쓰도록 하고,두 텍스트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독자 요인이 글쓰기에 어떤 차이를 가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정혜승·서수현, 2010). 또 다른 방법은 사고구술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글을 쓰는 동안 이루어지는 사고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독자를 고려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어떤 표현을 통하여 실현되는지 추적하는 것이다(유상희, 2008; 정혜승 2013).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필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한 학습자의 글쓰기 양상을 글쓰기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글쓰기 양상을 파 악할 수는 있되, 학습자가 독자를 고려한 양상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을

⁵⁷⁾ 교육부(2015: 83).

만큼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한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곤란함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 맥락에서 소통된 텍스트, 전문 필자가 쓴 글을 분석하여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문은 높은 문화적 소양과 문장력을 갖춘 전문 필자들이실제 필요를 위하여 쓴 글이므로 설득적 글쓰기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준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고구술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필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쓰기가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하여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보면, 텍스트를 통해서 얻어 낼 수 있는 의미는 애초에 필자가 품었던 의도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결국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며, 그렇다면 과거의 글쓰기 양식인 상소문 자료도 독자 구성양상을 관찰할 훌륭한 현장이 될 수 있다.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 중에서도 내포 독자 구성 양상에 대한 연구는 실재 독자에 대한 인식과 필자가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독자 역할이 설 득적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하고 설득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축적해 온 독자와 관련한 교육 내용은 주로 독자를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독자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의 부분에 한정되는 표현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정혜승(2013)에서 비로소 인성적·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독자 고려 전략을 제안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다양한 전략의 목록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전략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독자를 고려한 다양한 설득 전략은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설득 전략을 언제 어떤 효과를 위하여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 주는 교육 내용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설득하고자 하는 목표 독자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필자가 설득 전략을 통해 어떻게 어떤 독자를 구성하게 되는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Ⅲ.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정립한 내포 독자의 개념과 그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상소문에 내포 독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상소문에 실재 독자의 태도가 재현된 양상을 알아보고, 필자가 설득전략을 활용하여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가 텍스트에 구성한 내포 독자의 상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1.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양상

문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삼는 상소문 장르의 특성상, 필자는 실재 독자인 임금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텍스트 속에서 재현한다. 이때 재현은 필자의 인식과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구성 행위이고, 따라서 재현된 실재 독자는 현실 속 수신자와 구별되는 존재로, 내포 독자를 이루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상소문에서 필자가 실재 독자를 재현한 양상을 그 재현 방법과 재현된 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실재 독자의 태도 서술

(1) 협력적 소통 가능성의 발견

설득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의 변용을 의도하는 폭력적이거나 비윤리적 인 의사소통 방식과 구별된다(O'Keefe, 2016). 이는 곧 설득적 글쓰기의 수신자에게도 이 의사소통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현실 속의 수신자는 텍스트의 수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로 텍스트를 읽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의 소통을 향한 의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텍스트를 통한 설득적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필자와 독자 사이에 문제에 대한 태도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문제에 관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공유하는 것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상소문의 필자 역시 텍스트에 소통 자체에 대해 협력적인 내포 독자를 구성함으로써 설득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인 다. 필자는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를 텍스트에 재현함으로써 내포 독자의 태도가 소통 행위 자체에 대해 긍정 적인 것으로 구축해 나간다.

<정유봉사>에서 상소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실재 독자의 태도를 서술한 예를 볼 수 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국가 존망의 위기가 머리카락 하나 용납할 사이 없이 박두하였으므로, 군신(君臣)이 다 함께 근심하며 가능한 모든 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처럼 미천한 사람도 어찌 구구하게나마 생각하는 것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스스로 오활(迂闊)하게 여겨지기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u>마침 구언(求言)하시는 날을 당하게 되었으므로</u>,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58) (밑줄은 인용자)

인용문에서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근심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궁구하면서 구언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사실 <정유봉사>의 수신자인 선조는 당시 간언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선조 25년(1592)과 26년, 27년에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거듭하여 구언을

⁵⁸⁾ 최립, 이상현 역, <정유봉사>, 『간이집(簡易集)』 제1권, 한국고전번역원. "臣伏以國家存亡。間不容髮。君臣同憂。謨猷亦殫矣。雖如臣賤微。豈無區區識慮。而自以迂闊。 不敢進言。適遇延訪之日。終亦不容於默也。"

시행하고 언로를 열 것을 청한 내용을 보면 임금의 간언 수용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조정 관료들 사이에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590 <정유봉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 중 한 가지 역시 간언에 대한 임금의 태도이다.

그러나 임금이 간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 상황에 대해 필자의 주장을 펼 수 있으려면 임금에게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협력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수신자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내포 독자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필자는 소통에 참여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실재 독자에게서 발견하여 텍스트에 표상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구언을 시행한 실재 독자의 행위 자체를 서술하고, 이에 더하여 실재 독자가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 느끼는 감정, '구언'이라 는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방식을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실재 독자는

^{59) 『}선조실록』 32권, 25년 11월 2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언로가 오랫동안 막힌 나머지 비록 금백(金帛)으로 상을 주고, 관작으로 권장하여 사방의 말이 이르도록 해도 오히려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자만한 기색은 혹 사람을 거절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當言路久塞之餘, 雖賞以金帛, 獎以官爵, 以來四方之言, 而猶懼其不至, 況訑訑聲色, 或近於拒人者乎?)

[『]선조실록』 42권, 26년 9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을 경계하여 말없이 따르는 것을 좋은 계책이라고 하고 바른 말 하는 것은 실책이라고 하면서 아부하여 구차스럽게 용납되기를 취하고 있으므로, 언로가 막힌 것이 요즈음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점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전폐(殿陛) 아래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니, 신들은 매우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是故, 人皆括囊, 以言爲戒, 指循默爲良謀, 謂謇諤爲失策, 依阿軟熟, 以取苟容,言路之塞, 到今益甚。 長此不已, 則竊恐不測之變, 迫在殿陛, 而無肯出一言者, 臣等寒心焉。)

[『]선조실록』 53권, 27년 7월 9일 을유 두 번째 기사. "한 번 계하(啓下)한 뒤에는 전혀 결과가 없으며 논설이 어긋나면 웃고서 방치하고, 언어가 강직하면 불쾌히 여겨 버리기도 하며, 옛 습관에 젖어 고치지 않고 너그러운 뜻으로 비답을 내리고도 채용하지 않아 길고 짧은 차자와 상소를 받아 놓고 좀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있으니, 전하의 궐정에 말을 하는 자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지진의 변고에 따라 구언(求言)하는 하교를 내려 언로를 활짝 열고서, 미천한 사람이라하여 가볍게 보지 말고, 진부하다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기휘(忌諱)를 범하였다 하여 죄주지 말고, 오활하다 하여 거부하지 말아서 사방을 보는 눈이 반드시 밝고 사방을 듣는 귀가 트이게 하여 국맥(國脈)을 붙잡아 세우는 터전을 마련하소서." (一番啓下, 了無歸宿; 論說齟齬, 則笑而置之; 言語謇愕, 則忤而棄之。 安於故習而不變, 優旨答之而不用, 長箚短章, 受而飽蠹, 則殿下之庭, 宜其無言者也。 伏願殿下, 特因地震之變, 別降求言之教, 洞開言路, 勿以微賤而輕之, 勿以陳腐而忽之, 勿以觸諱而罪之, 勿以迂遠而拒之, 俾四目必明, 四聰必達, 以爲扶植國脈之根基焉。)

현재 상황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여겨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근심"하는 감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구언이 계책을 찾아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 에 재현된 실재 독자는 상소문을 통한 소통 행위를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책으로 여겨 소통에 대해 협력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한편, 협력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실재 독자의 태도는 상소문의 초점이 되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유봉사>에서는 임금이 재위한 세월 동안 "나태함이 없이 부지런한 모습만 보여 주었을 뿐 두드러진 허물이나 과실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서술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60) <병자봉사>에서는 임금이 필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臣)은 시기와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저의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하다가 거듭 대간(臺諫)의 논핵(論劾)을 받고 거의 예측할수 없는 지경에 빠질 뻔했지만, 다행히도 주상께서 밝은 지혜로 신의본심을 통찰해 주시고 세세히 곡진하게 분별하여 석명(釋明)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는 헤아려주심을 입었습니다. 비록 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변명케 할지라도 이보다는 더할 수 없을 것이니, 주상의 보살핌에 감격하여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뇌를 으깨고 간을 쪼개어 죽더라도 어찌 갚을 수가 있겠사옵니까?61)

필자 최명길은 이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청나라와의 외교 현안을 논의

⁶⁰⁾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그런데 우리 전하께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행하신지 삼십 년 동안에 나태함이 없이 부지런한 모습만 보여 주셨을 뿐 두드러진 허물이나 과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시고서, 최근 다섯 해 동안 거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도록 번연히 깨달아 재앙을 소멸시킬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然我殿下厲精爲治三十年。有亹亹之效。而無形顯之過。豈有不享天心。至於幾亡五年。尚不得其幡然悔禍也乎。)

⁶¹⁾ 최명길, 신해진 역(2012), <병자봉사 제삼>, 『병자봉사』, 서울: 역락, 71. "臣不量時勢。妄陳愚見。重被臺評。幾陷不測。幸賴聖明洞察臣之本情。委曲分釋。靡有餘蘊。雖使臣自爲辨明。無以過此。感激恩眷。涕淚交流。破腦刳肝。豈足仰報。"(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하는 맥락에서 '군사 기밀은 대신들과만 은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이 말이 논란이 되어 대간이 필자를 논핵하자 임금은 대간의 말을 물리치고 필자를 두둔하였다.62) 필자는 화의(和議)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 일을 서두에 언급하였는데,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인 태도를 발견하여 이를 텍스트에 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통해서 상소문의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서 자신 과의 소통, 그리고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발견하여 텍스트에 재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구언 등 소통을 가능하게 한 실재 독자의 행동, 바람직한 임금이 되고자 하는 모습, 임금이 필자를 우호적으로 대한 경험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실재 독자를 재현하였다. 이때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인 모습을 찾고 이를 텍스트에 드러내어 표상한 것을 통해 필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내포 독자가소통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지닌 존재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 문제 상황과 관련된 태도의 직접적 서술

필자는 실재 독자의 태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상소문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가 자신이 문제로 인식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텍스트에 재현할 것으로 예상할수 있는데, 실제로 텍스트에서 실재 독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논상제소>의 일부이다.

신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정희왕후(貞熹王后)는 나라가 위태하고 불 안한 때를 당해서 먼저 큰 계책을 정하고 이미 듣고 결단하기를 임금 과 같이 하여 보우해 다시 편안케 해서 그 공(功)이 사직(社稷)에 있 고 전하(殿下)의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우러나서

^{62) 『}인조실록』 33권, 14년 9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에 기밀 유지에 대한 최명길의 발언이, 9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에 이에 대한 간원(諫院)의 논핵과 임금의 답변이 보인다.

여러 신하의 기년복(朞年服) 입는 제도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3년의 제도를 따라서 대왕(大王)의 복(服)과 같이 하려 하시니, 신은 벼슬이 시종(侍從) 자리를 더럽히고 있어서 그 정희왕후의 사직을 보우한 공과 또 전하의 사모하는 정성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미 그 만분의 일이나마짐작하고 있으니, 신이 아무리 무식하오나 또한 어찌 기년복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생각하겠습니까.63)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에서 필자는 실재 독자의 상황 인식과 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하였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왕후이 자 성종의 할머니로, 예종이 승하했을 때 성종을 임금으로 결정하고 성종이 장성하기까지 청정(聽政)을 함으로써 왕권의 승계와 안정에 중요한역할을 한 인물이었다.⁶⁴⁾ 세조의 사망에 이어 1년 2개월만에 예종도 사망하고 13세의 어린 임금이 즉위한 상황은 단종대(端宗代)의 혼란을 연상시킬 만큼 왕위에 대한 도전이나 변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태로운상황이었지만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은 원상제(院相制)의 시행과 함께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송웅섭, 2011: 26-30). 이러한상황을 배경으로, 필자는 정희왕후의 죽음을 당한 임금의 감정을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⁶³⁾ 김흔, 양주동 역, <논상제소>, 『속동문선』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臣竊惟貞熹王后當國家危疑之際。首定大策。權同聽斷。保佑又安。功在社稷。而殿下悲傷念慕出於至誠。以群臣服朞之典爲歉。欲從三年之制。以擬於大王焉。臣職忝侍從。其於貞熹保佑之功與夫殿下念慕之誠。固已窺其萬一矣。臣雖無狀。亦豈以朞年之服。爲足於心歟。"

^{64) 『}성종실록』 1권, 즉위년 11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비가 얼마간 슬피 울고 나서 정현조(鄭顯祖)와 권감에게 명령하여 여러 원상(院相)에게 두루 묻기를, "누가 주상(主喪)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신숙주 등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이 일은 신(臣)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교지(敎旨)를 듣기 원합니다."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원자(元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月山君)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者山君)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마는 세조(世祖)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太祖)에게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久之, 大妃御康寧殿東便室, 召叔舟等及權城入。 大妃哀泣良久, 命顯祖及城, 遍問諸相曰: "誰可主喪者?" 叔舟等同辭啓曰: "此非臣等所敢議。 願聞敎旨。" 大妃曰: "元子方在襁褓, 月山君素有疾病。 者山君年雖幼, 世祖每稱其器度,至比之太祖,令主喪何如?" 叔舟等對曰: "允當。" 議遂定。)

이 감정이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행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발생한다. 즉 필자는 임금의 슬픔이 슬픔에 그치지 않고 도덕 규범을 따르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기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한다. 필자는 '임금이 여러 신하의 기년복 입는 제도를 부족하게 여긴다'는 진술을 통해 '기년복 입는 제도'에 대한 임금의 가치 평가를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실재 독자는 정해진 예법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정해진 예법에 어긋나더라도 왕후의 상을 3년상으로 치르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실재 독자의지극한 슬픔과 그 슬픔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자신의 정리(情理)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표현할 수 없게 규제하는 예법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이어져 예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태도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실재 독자의 감정과 행동을 서술하여 이러한 태도를 텍스트에 재현하였다.

< 사간원차자>에서도 실재 독자의 불만족감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감정으로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필자는 그 감정을 노여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명하며 실재 독자의 태도를 서술한다.

- (가) 그리고 박정(朴炡)과 유백증(兪伯曾)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하읍(下邑)에 엄체(淹滯)되어 있다가 가까스로 시종(侍從)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또 수령으로 교차(交差)시키도록 하였는데, 다른 적임자가 어찌 없기에 이번에 차례로 특별히 제수하셨단 말입니까. 성상의 뜻을 살펴보건대 노여워하시며 견책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으시 닌, 이것이 바로 조정의 진신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하는 이유이며 사론(士論)이 저상(沮傷)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65)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 (나) 혼조(昏朝 광해군의 조정을 말함) 때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사대부들이 뜻을 세워 뭔가 큰일을 해 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저 멀리 떠나 숨으려는 생각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상의 시대를 맞게

⁶⁵⁾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朴炡, 兪伯曾等。久淹下邑。甫還侍從。守令交差。豈無他人。今者次第特除。聖意不無譴怒。此朝紳之所以疑駭。士論之所以傷沮者也。"

되어서는 전후로 간절하게 유지(有旨)를 내리시면서 매번 붕당(朋黨)을 짓지 말도록 경계시키는 한편 이미 갈라진 당파에 대해서도 대화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설령 유백증이나 박정이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표방하려 했다 하더라도, 맑은 조정의 사대부들 가운데 그 누가 그들과 서로 등을 진 채 짓밟으려고 하겠습니까.66) (밑줄은 인용자)

(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대신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몇 등급이나 죄를 올려 처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일을 점차로확대시켜 각종 폐단이 마구 나오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거꾸로 대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여기는 점이 있게 하고 계시니, 이것이과연 사태를 진정(鎮定)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게 하는 데에 적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67)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간원차자>는 인조(仁祖)가 '붕당을 지었다'는 혐의로 장유(張維), 박정(朴炡), 유백증(兪伯曾)을 외직(外職)으로 좌천시켜 버린 데 대하여 필자가 이는 잘못된 인사(人事)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붕당 문제에 대한 임금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글이다. 따라서 좌천된 인물들에 대한 임금의 평가, 감정, 붕당에 대한 태도 등이이 글의 문제 상황을 이루는데, 필자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재현하는 가운데 이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필자는 박정, 유백증에게 처분을 내린 실재 독자의 감정 상태가 '노여움'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명하고 서술하여 문제가 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하였다. (나)에서는 임금이 노여워하는 이유를 필자가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붕당'이라는 현상에 대한 임금의 가치 평가와연결시키고 있다. 임금이 유지를 통해 매번 붕당을 경계했다는 것을 서술함으로써 붕당에 대한 실재 독자의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재현한 것이

⁶⁶⁾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自昏朝變亂以來。士大夫不樂進取。惟懷藏遁。及遭聖朝。 前後懇惻之旨。每以朋黨爲戒。已分之黨。尚欲保合。設令兪, 朴之論。自欲標榜相異。 清朝士大夫。孰肯與之分背而相踶乎。"

⁶⁷⁾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今殿下不徇大臣之議。罪之加數等。延及漸廣。鬧端橫生。 反使大臣。有所不安。此果合於鎭定調劑之圖乎。"

다. (다)에는 임금의 이러한 감정과 가치 평가가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었음이 드러나 있다. 대신의 의논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처벌하고, 폐단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실재 독자의 감정과 행동으로 드러난 태도를 서술하여 실재독자 태도의 문제적인 측면을 텍스트에 재현하고, 이를 통해 내포 독자를 구성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소문에서 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발견하여 이를 일부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텍스트 안에 실재 독자를 재현하였다. 이는 실재 독자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명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실재 독자의 가치 평가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가치 평가는 필자가 파악한 실재 독자의 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현되는데, 필자는 <사간원차자>에서 보듯 가치 평가가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상제소>에 나타나듯 감정적 반응이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현하기도 한다. 실재 독자의 태도 중 인물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실재 독자의 행동 자체를 서술함으로써 드러내기도 하는데, 필자는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실재 독자의 행동이나 판단을 서술하여 실재 독자를 재현하고, 텍스트에서 이를 조정해 나감으로써실재 독자와는 구별되는 내포 독자를 구성해 나간다.

2) 필자 태도와의 정렬 여부 표현

(1) 사회・문화적 전제를 활용한 협력적 관계 구축

필자가 독자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유된 전제를 활용하는 것으로(Amossy, 2000/2003; White, 2020), 공유된 전제는 실재 독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서도 실재 독자를 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별도의 정당화 과정 없이 활용된 전제는 독자와 필자 사이에 합의된 판단이나 통념,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텍스트 외부에 수신자로서 존재하는 실재 독자는 그 전제를 다시 평가하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글 속에서 어떤 명제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나타나는 것은 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활용하는 것은 독자를 그 전제에 동의하는 존재로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내포 독자를 이루는 것으로볼 수 있다.

상소문에서는 소통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를 활용하여 실재 독자를 필자와의 소통에 협력적인 존재로 재현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때 활용되는 전제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것이고, 필자가 이 명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재 독자를 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재 독자를 재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서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의 태도가 정렬된 양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은 수화자의 태도와 달리 텍스트의 전개에 따라 조정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실재 독자에게서 발견하고 텍스트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텍스트에 표상하기 때문에 실재 독자에 대한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간원차자>에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살펴보건대, 요즘 들어 조정의 진신(搢紳)들 사이에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전하께서 관원을 임명하실 때의 그 뜻이 심상치 않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인재를 진퇴(進退)시키는 기틀과 관련되고 국가가 다행스럽게 되고 불행스럽게 되는 근본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u>신 등이 언관(言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u> 대략 한두 가지조목을 진달드림으로써 전하께서 미처 생각하시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드릴까 합니다.⁶⁸⁾ (밑줄은 인용자)

⁶⁸⁾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伏以臣等。俱以庸懦。素昧臧否。雖忝淸顯。有同聾瞽。其於時議之情變。已事之是非。實所未知。不敢强爲之說。第見比來朝紳之間。氣色弗靖。 御批差除。旨意非常。此人材進退之機。邦國否泰之本。臣等以言爲職。不容緘口。略陳 一二。冀以裨補闕遺。"

위 인용문은 이식의 <사간원차자>의 서두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이 상소문에서 필자는 붕당 문제를 두고 조정(朝廷)과 대립하고 있던인조가 붕당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신하들을 더 신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당시 임금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소문을 통한 소통은 사간원의 언관들의 판단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 임금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만큼 소통 행위에 대한 수신자 즉 실재 독자의 우호적인 언행, 판단이나 감정 등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필자는 단지 언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상소문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자신이 "언관(言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많은 없"다고 단언할 뿐, 언관의 책임이나 직무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직접적인 단언은 언관이나 언로(言路)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필자가 언관의 책임에 대한 실재 독자의 이해와 동의를 전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재 독자를 언관의 직무를 존중하고 언관에 의해 시작되는 소통 행위에 허용적이고 협력적인 독자로 재현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내포 독자를 소통에 대해 협력적인 존재로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논상제소>에서도 사회·문화적인 전제를 활용하여 실재 독자를 재현하고 내포 독자를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 예를 제정(制定)한 이는 주공과 공자만 한 이가 없으니, 후세에 주공과 공자 같은 이가 다시 나와도 오히려 감히 고칠 수 없거늘 하물며 주공과 공자의 이하에 있는 자가 감히 경솔히 선왕의 만세(萬世)의 고칠 수 없는 예를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까.69)

인용된 부분에서 필자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위상에 대한 실재 독 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들은 예를 제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인물이

⁶⁹⁾ 김흔, 양주동 역, 앞의 글. "古之制禮者。莫若周公孔子。後有如周公孔子者復起。猶不敢易。而况下於周公孔子者。敢輕議先王萬世不易之禮而變更之耶。"

며, 그만한 권위를 지닌 인물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단언하고 있는데, 주공과 공자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필자가 논증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명제에 대한 실재 독자의 태도는 조정이나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필자와 실재 독자의 협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제를 활용하여 필자는 실재독자를 필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서 공유된 전제를 발견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의 필자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신하와 임금에게 각각 부여된 역할과 책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실재 독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를 찾아 그것을 전제로 활용함으로써 실재 독자를 텍스트에 재현하였다. 이러한 재현을통해 필자는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인 태도, 대화를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2) 문제 상황에 대한 필자와 실재 독자의 태도 불일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재 독자는 일반적 상황에서 협력적 소통이가능한 대상으로 재현되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실재 독자와 필자의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필자는 문제 상황 자체나 실재 독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일치를 드러낸다. 즉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에 필자의 평가와 판단이 드러나는데, 필자는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다성적으로 표현하여 실재 독자의목소리를 개입시킴으로써 실재 독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사간원차자>의 다음 부분에는 조정(朝廷)의 상황에 대한 실재 독자의 가치 평가가 필자의 평가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혼조(昏朝 광해군의 조정을 말함) 때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사대부들이 뜻을 세워 뭔가 큰일을 해 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저 멀리 떠나숨으려는 생각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상의 시대를 맞게 되어

서는 전후로 간절하게 유지(有旨)를 내리시면서 매번 붕당(朋黨)을 짓지 말도록 경계시키는 한편 이미 갈라진 당파에 대해서도 대화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설령 유백증이나 박정이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표방하려 했다 하더라도, 말은 조정의 사대부들 가운데 그 누가 그들과 서로 등을 진 채 짓밟으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박정 등으로 말하면, 애당초에 단지 한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보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행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분당(分黨)의 설이 나오게 된 데에 불과하니, 만약 평상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서로들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그때의 일을 저절로 잊게 되면서 다시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령 "새로 진출한 사람들이 부박(浮薄)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스러운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 등은 확신하고 있습니다.70) (밑줄은 인용자)

인용문에서 필자는 박정과 유백증에 대한 실재 독자의 판단, 조정의 분열 여부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반박하며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가고, 이를 통해 내포 독자의 태도를 구성하기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의도하는 과정에서 실재 독자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앞 문단에 밑줄 친 부분에서 필자는 붕당을 없애려는 임금의 의도를 신하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누가 서로 짓밟으려고 하겠는지' 질문하고 있다. 수사적 질문을 활용하여 수화자가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이는 없다'고 응답하도록 텍스트를 구성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대화가 필요해지는 이유는 실재 독자가 '사대부들이 서로 등을 진 채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필자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한편, 이에 일치하지 않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함으로써 수신자가 변화해야 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⁷⁰⁾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自昏朝變亂以來。士大夫不樂進取。惟懷藏遁。及遭聖朝。 前後懇惻之旨。每以朋黨爲戒。已分之黨。尚欲保合。設令兪, 朴之論。自欲標榜相異。 清朝士大夫。孰肯與之分背而相踶乎。況炡等。始初只因糾摘一二人而有過差者。遂有分 黨之說。若平心相處。自當日遠日忘。無復痕跡耳。縱有新出浮薄之說。臣等決知終不爲 聖朝患也。"

이어지는 문단의 끝에서 몇몇 신하들 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필자의 평가는 이러한 현상이 '조정의 근심거리'라는 평가를 부정함으로써 실재 독자와 필자 사이의 태도 차이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필자가 어떤 진술을 부정하는 것은 수신자의 생각을 시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로 간의 태도가 불일치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White, 2020).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정 표현을 통해 텍스트 속 대화 상대인 수화자가 생각을 시정하도록 하는 가운데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병자봉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근래에 신을 공격하는 의론은 몇몇 젊은 신진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온 조정이 바람이 휩쓸리듯 동조하고 더러는 아부까지 합니다. 그 사이, 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면서도 둘러서서서로 보기만 하며 끝내 감히 신의 참마음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름이아니라 한 번 입을 열기만 하면 서로 잇따라 화의(和議)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화(主和)라는 두 글자가신의 일생 동안 허물이 됨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신의 마음으로는 오늘 화친(和親)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겠사오니, 청컨대 전후로 탑전에서 아뢴 뜻으로 반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71) (밑줄은 인용자)

이 글에서 필자는 청나라와 화의를 맺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후금(後金)이 국호(國號)를 "금(金)"에서 "청(淸)"으로 변경하고 청을 황제의 나라로 칭하자 조선은 청나라와의 외교를 단절하였는데, 이에 따라전란(戰亂)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청나라에 국서(國書)를 전하게 하는 방책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외교 관계의 재개를 비롯하여 화의를 이루려는

⁷¹⁾ 최명길, 신해진 역(2012), 79-80. "今日攻臣之論。出於若干年少之口。而舉朝靡然。或相和附。其間非無知臣誣枉者。而環立相視。終不敢明臣心事者。無他。一開口則相隨而入於和議科臼中故也。此見主和二字。爲臣一生身累。然於臣心。尚未覺今日和事之爲非。請以前後榻前所陳之意。反覆而明之。"(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정책은 조정 안팎에서 척화(斥和)를 주장하는 신료들에게 강력하게 비난을 받았는데, 인용문에서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화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을 밝힌 뒤 필자는 '화친하는 일이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화의론(和議論)에 대한 자신의 가치 평가를 드러냈다. 여기서도 필자가 부정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거론된 주체는 "몇몇 젊은 신진"과 "온 조정"으로, 필자는 임금을 이 가운데 포함시켜 재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에서 필자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임금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화의론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실재 독자와 자신의 의견이 정렬을 이루지 못했음을 즉 일치하지 않아 의견을 서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상소문의 필자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할 때 이에 차이를 보이거나 대립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어떤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부정하거나 수사적인 질문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필자는 다름이 아니라 실재 독자의 목소리를 개입시킴으로써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다성적인 표현은 수화자의 태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실재 독자의 태도가 시정되거나 부정되는 지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자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실재 독자를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상소문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실재 독자의 행동을 포함하여 그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필자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실재 독자의 태도 일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실재 독자를 재현하였다.

이때 필자는 실재 독자에게서 재현할 요소를 선택하거나 실재 독자의

태도와 행동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내포 독자를 구성하였다. 즉 실재 독자의 태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서도,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서 텍스트에 재현함으로써 텍스트의 내포 독자를 소통의 대상으로 구축해 나갔다.

재현된 실재 독자의 태도는 필자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실재 독자의 태도를 인식하고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필자는 실재 독자의 협력적인 태도를 대개 초점화된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견하였다. 필자가 실재 독자에 대해서 평소에 관찰한 바, 이전의 경험,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협력적인 태도와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비하여 텍스트의 화제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실재 독자의 감정이나 가치 평가, 판단 양상이나행동 등을 발견하여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재현하였다.

이렇게 재현된 독자는 필자와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소통에 대해 협력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도를 조정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내포 독자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필자가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하면서 내포 독자를 구성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화자의 태도 조정 양상

설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텍스트를 전개하고 설득 전략을 운용하는 과정은 독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필자가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독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 내에서 필자가 구축한 직접적 대화의 상대자이므로 수화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수화자의 태도가 조정되어 가는 양상은 독자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와 그러한 변화가 지향하는 방향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소문에서 필자가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양상과 이를

통해 내포 독자를 구성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인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수화자가 어떤 태도를 강화하거나 형성하거나 제거해 나가는지, 이러한 조정이 지향하는 독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1) 점층적 전개를 통한 협력적 태도 강화

일반적으로 상소문의 논지는 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염은열(1996)은 <간타위소>의 논지 전개 방식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런 현상을 '구체화'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신자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인물"인 왕이기 때문에 필자가 이런 방식을 취하여 완곡하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수신자 스스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염은열, 1996: 81-82). 이러한 논지 전개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전제를 내면화하게 하는 전략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72) 여기서는 이러한 구체화의 방식이 텍스트를 전개해 나갈수록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나 문제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실재 독자와 필자 사이의 차이를 점점 더 강도 높게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는 데 먼저 주목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필자는 소통 행위에 대해 실재 독자에게서 발견한 우호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수화자에게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논상제소>, <정유봉사>, <사간원차자>, <병 자봉사>의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논상제소>는 전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상대 주장을 따랐을 때 예상되는 문제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논의를 좁혀 나갔다. <정유봉사>는 나랏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임금의 태 도를 문제로 여기는데, 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⁷²⁾ 본고에서는 이 구체화의 방식이 필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독자와 더불어 전제를 정당화하게 해 주는 것으로이해한다. 여기서는 텍스트 전개의 특성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 'Ⅲ. 2. 2) (2)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위 판단 기준의 내면화'에서는 전제를 정당화하는 측면에 대해 상술하도록 하겠다.

나타나고 임금의 잘못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간 원차자>에서도 텍스트가 전개되어 가면서 임금의 인사처분이 합리적이 지 않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임금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다. <병자봉사>에서도 역시 필자가 펼치려고 하는 주화론의 핵심적인 주장 은 논지가 전개됨에 따라서 뒷부분에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 연구 대상 텍스트의 논지 전개

	정유봉사		병자봉사
[1] 선왕이 제정	[1] 서두: 구언에	[1] 간언의 필요	[1] 임금에 대한
한 예의 한계를	응하여 상소를	성 발생	
벗어나서는 안	올리게 됨	[2] 관직 임명의	뜻 및 변무의
됨	[2] 네 가지 주제	기본 원칙	필요성
[2] 상제를 정한	를 제시함	[3] 현재의 문제	[2] 문제 상황: 군
것은 인정을 생		상황: 잘못된	
각하여 알맞은	로 잘 살펴야	외임	에서 신진의 이
	함	[4] 문제의 원인	
위한 것임	[4] 신하들 사이	분석: 붕당의	대응
[3] 반론 반박	에 편당이 없이	존재 여부에 대	[3] 문제의 본질
		한 임금의 잘못	평가: 주화파로
의 제도를 따르	끌어야 함	된 판단	몰릴 것을 두려
는 것은 예를	[5] 신하들이 간	[5] 문제의 근본	워하는 조정의
제정한 선왕의	언을 하도록 독	적 해결 방법	분위기
뜻이 아님]	려해야 함	제시	[4] 당면한 외교
[4] 상대 논리의	[6] 백성이 임금	[6] 맺음말: 전망	문제에 대한 대
문제점	과 함께 보존되	과 기대 효과	책
[5] 맺는말: 일신	고 싶어 하는		[5] 맺음말: 자신
의 위험과 왕에	마음을 가질 수		의 충정과 무고
대한 불복을 무	있게 다스려야		함, 사직 의사
릅쓰고 간언을	함		진달
하는 이유 및	[7] 네 가지 조목		
재고 요청	의 의의와 실천		
	의 중요성		

텍스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했던 것을 텍 스트를 맺는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자가 내용을 전개해 오는 가운데 수신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수신자에게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텍스트를 읽는 동안 취하는 내포 독자 역할에 변화가 기재되어 있기때문이다. 필자는 대화의 과정에서 수화자가 앞의 내용에 동의하였음을 상정하고, 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그다음 내용으로 옮겨 감으로써 내포 독자에게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부여한다.

<정유봉사>와 <사간원차자>의 논지 전개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정유봉사>는 임금이 자신을 잘 살펴 스스로 성실하고, 조정에 분열이 없도록 잘 이끌고, 신하들의 간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백성을 살리기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그런데 논의하는 문제가 임금 자신에 대한 것에서 백성에 대한 것으로 옮겨 가면서 필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 (가) 그런데 우리 전하께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행하신 지 삼십 년 동안에 나태함이 없이 부지런한 모습만 보여 주셨을 뿐 두드러진 허물이나 과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시고서, 최근 다섯해 동안 거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도록 번연히 깨달아 재앙을 소멸시킬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73) (밑줄은 인용자)
- (나) 우리 전하께서 영무(英武)하신 것으로 말하면 옛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할 것인데, 저 왜적의 근심거리야 하루아침에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척결할 수 있는 내부의 일까지도 <u>어찌하여 꺼려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만 한단</u>말입니까.74) (밑줄은 인용자)
- (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吾君不能 謂之賊]" 하였

⁷³⁾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然我殿下厲精爲治三十年。有亹亹之效。而無形顯之過。豈 有不享天心。至於幾亡五年。尚不得其幡然悔禍也乎。"

⁷⁴⁾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以我殿下英武邁古。雖不能一日已夫在彼之憂。而在我好惡影響中者。何憚而在其猶然也。"

는데, 우리나라 신하의 경우는 또 어찌 오군불능(吾君不能) 정도로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선유(先儒)가 말한 바 '난리가 일어났을 때 절조를 굳게 지키면서 의리에 입각해 죽는 인사가 필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또 어찌하여 이런 풍조를 이롭게 여기고 그들과 서로 편안하게만 지내려고 하면서 통렬히 개혁해 보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 신은 삼가 의아해할 따름입니다.75) (밑줄은 인용자)

(라) 제로(諸路)에서 급무(急務)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오직 산성 (山城)의 일에 불과할 따름인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노약자들을 데리고 들어갈 성질의 곳이 전혀 못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경보(警報)가 발생할 경우 차례로 붕괴되는 것이 예전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찌하여 무작정 물력(物力)만 허비하면서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는 우리들을 또다시 고생시킨단 말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76) (밑줄은 인용자)

(가)-(라)는 <정유봉사>의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가)에서 (라)로 갈수록 임금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스스로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에서 '문제를 그냥 놔둔다'로, 다시 '현재의 상황을 편안하게 여긴다'에서 '백성의 고생을 헤아리지 않고 물력을 허비하고 있다'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필자의 입장은 임금에 대해 판단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에서 임금의 무관심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간다.

이때 (가)-(라)에 재현된 행동과 태도는 실재 독자인 현실의 임금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 독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필자와 소통하고 있는 수화자는 '어찌하여… 말입니까?' 하는 수사적 질문에 답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 이 수사적 질문들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고 답하며 필자에게 동의하는 수화자를 가정한다. 일면 도발적일 수도 있는 이

⁷⁵⁾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孟子曰。吾君不能。謂之賊。此又豈止如吾君不能者。而先儒所謂臨難必無伏節死義之士。正指此也。殿下亦何利於此。而與之相安。莫爲使之痛革也乎。臣竊惑焉。"

⁷⁶⁾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而諸路急務。不過山城。審非扶老携幼以歸之地。以謂一朝有警。次第崩潰。未必不如始者。乃何故虛費物力。重困我於未翦盡之間也。"

수사적 질문들을 강도를 높여 가며 반복함으로써 필자는 선행한 논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통 행위를 허용하는 존재로 수화자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수신자가 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기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는 셈이 된다.

《사간원차자》의 경우, [1]-[3]이 당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처분을 논하는 부분이다. 인조대(仁祖代)의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서(功西)와 그렇지 않은 청서(淸西)로 나뉘었고, 인조는 공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위 초부터 청서, 남인(南人), 북인(北人)을 모두 기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조 3년에 소북(小北)의 인물을 대사헌(大司憲)에 중용하려 하자 청서가 강력히 반발했고, 임금은 이들을 편당(偏黨)이라 하고 배격하여 청서의 소장파(小壯派)인 박정(朴炡)과 나만갑(羅萬甲)을 귀양 보내라고 했다가(이성무, 2007: 205-208), 우의정 신흥(申欽)의 만류에 철회한 일이 있었다.77)이후 인조 7년에 인사 추천권을 가진 전랑(銓郞)을 의망(擬望)하는 과정에서 나만갑에 대한 평가가 다시 문제가되었는데, 임금은 나만갑이 편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여 그를 유배에 처하고, 나만갑을 신구(伸救)하거나 도우려고 했던 장유, 박정, 유백증을 좌천시켜 지방직에 임명해 버렸다.78)

당시 대사간이었던 이식은 장유가 좌천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간원차자>를 올려 이러한 인사처분과 붕당 문제에 대한 임금의 태도에 대해 간언을 했는데, [1]에서는 자신이 시의에 어두워 일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겸양의 말을하고, [2]에서는 인재의 등용 및 임명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를 확인하였다.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3]인데, [3]은 다시 세 부분으로나눌 수 있다.

[3] 현재의 문제 상황: 잘못된 외임(外任)

[3-1] 장유 좌천의 문제점: 대제학을 나주 목사(牧使)로 강등시킨 것은 전례 없이 모욕적인 처분임.

^{77) 『}인조실록』 9권, 3년 7월 12일 무오 두 번째 기사.

^{78) 『}인조실록』 21권, 7년 7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 [3-2] 박정과 유백증 좌천의 문제점: 붕당을 지었다고 의심하여 노여워하는 마음으로 좌천을 시킴.
- [3-3] 나만갑에 대한 처분에서 드러난 문제점: 대신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죄를 몇 등급이나 올려서 처벌함.

장유를 좌천시킨 건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내린 동기나 근거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고, 그것이 전에 없던 파격적인 처분이라는 점과 지방 수령들이 그를 하급 관리로 대우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과 유백증에 대해 논하면서 비로소 임금이 인사를 결정하는 근거가 붕당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나만갑을 처벌한 일에 대해 논하기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행태가 도에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논지가 전개됨에 따라 실재 독자의 문제점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논의 전개 과정에서 수화자가 실재 독자의 행동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여 필자에게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필자 발언에 대한 허용의 정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수화자의 협력적 태도가 강화된 결과는 상소문의 결사(結辭) 부분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마) 신이 <u>잠자코 있는 것이 제 몸을 보호하게 되는 줄 모르는 게</u> 아니요, 또한 "옳습니다"하는 것이 전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u>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u>, 감히 어리석은 소리를 해서 <u>부월(斧鉞)의</u> <u>벌을 무릅쓰는 것</u>은 참으로 선왕의 법은 변동할 수 없는 때문입니다. 엎드려 원하오니 전하는 자세히 생각하소서.⁷⁹⁾ (밑줄은 인용자)
- (바) 그런데 한편으로 신이 이른바 실제로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어찌 한두 가지 의논을 올려 어리석은 충성심을 바치고 싶지야 않겠습니까마는, 삼가 살피건대 그동안 장소(章疏)를 올려 실제로 조치해야 할 일을 의논드릴 때마다 으레 유사(有司)의 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신의 허물을 만회할 만한 하나의 말이 있어도 한 장의 휴

⁷⁹⁾ 김흔, 양주동 역, 앞의 글. "臣非不知默默之爲可保身。亦非不知諾諾之爲可順旨也。敢爲瞽說。以干斧鉞之誅者。誠以先王之典不可變也。伏願殿下留心焉。"

지 조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선 그렇게 하는 일은 놔두고서 먼저 큰 도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 이 역시 유사에게 그냥 넘겨주시는 대신성상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보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참람된 헛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복주(伏誅)되지만 않는다면, 그때에 가서 이어서 신의 의논을 진달드려도 늦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은 지극히 황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80) (밑줄은 인용자)

(사) …오직 성상께서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그의 말까지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조정에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성상의 결재를 바랍니다.⁸¹⁾ (밑줄은 인용자)

(마)-(사)는 각각 <논상제소>, <정유봉사>, <사간원차자>를 맺는 결사 부분이다. 이들 결사에는 공통적으로 실재 독자가 소통 행위나 텍스트 내용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거나 또는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마)에서는 자신이 '임금이 옳다고 해야 순종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고 하여, 실재 독자를 순종을 요구하는 존재이자 필자와 의견이 대립하는 존재로 표상하였고, (바)에서는 과거에 상소문에 별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실재 독자의 행적을 서술하여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재현하였다. (사)에서는 자신의 말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실재 독자가 필자의 말을 버릴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 더나아가 (마)와 (바)에서는 '부월의 벌'이나 '복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임금에게는 자신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있고, 그 정도로 상소 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상소 행위에 대한 실재 독자의 부정적 판단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필자는 그러한 판단의 문제점을 수화자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초점화된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발화

⁸⁰⁾ 최립, 이상현 역, 앞의 글. "亦豈不欲效愚一二。而竊見邇間上章疏論事爲者。例歸有司。得片辭覆過。爲一故紙而已。臣之姑舍是。而先其大者。誠願免付有司。直蒙聖明留神。幸不以狂僭誅死。則繼而有所進焉。非晚也。臣不勝激切兢營之至。"

⁸¹⁾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惟聖明勿以人廢言。則朝廷幸甚。取進止。"

시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재 독자의 태도에 대해, 자신이 그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말을 '버리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실재 독자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정한다. 이렇게 하여 필자는 내포 독자에게 필자와 함께 실재 독자의 태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정도로 허용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 포함되지 않은 <병자봉사>의 경우에는 결사에서 사직의 뜻을 밝히는데, 필자의 질병을 소상히 아뢰고 사직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수화자가 필자의 청을 받아들여 줄 만큼 우호적이고 은혜로운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 역시 내포독자를 협력적인 대화자로 구성하기 위한 필자의 노력을 드러내 보인다.

상소문의 텍스트 전개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필자가 문제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여 가는 점층적 전개를 통하여 수화자에게 협력적인 태도를 강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텍스트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여, 수화자가 점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텍스트 전개는 텍스트의전개 과정에 따라서 실재 독자를 재현하는 내용과 실재 독자와 필자의의견 차이의 정도가 달라지게 하는데, 필자가 문제로 여기는 실재 독자의 태도는 텍스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수화자의 허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강화됨에 따라 내포 독자 역시 협력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구성된다.

2)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통한 보편성 구축

(1) 인과 관계를 활용한 바람직한 불안 형성

상황을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근거에 행위의 판단 기준을 두는 경우에 실재 독자의 감정적 반응 역시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감정적 반응은 독자 태도의 일부를 이루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재 독자가 느끼는 부적절한 감정을 바람직한 감정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수화자에게 새로운 감정을 형성해 나가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내포 독자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 구성해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가 개인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족감을 가지는 경우에 필자는 인과 도식을 활용하여 그 불만족감을 보다 바람직한 불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치 규범을 위반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결과의 필연적 성격을 논증함으로써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 불안감은 가치 규범에 순응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바람직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논상제소>에서는 예법을 어기고 예외적인 상제를 시행했을 때의 문 제점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선왕이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참작하여 3년(三年), 기년(春年), 대소 공(大小功), 시마(總麻) 복(服)의 제도를 만들어서 높이고 줄이고 했으니, 만약 시마가 부족하다 하여 대소공의 복으로 입고 기년이 부족하다 하여 3년의 복으로 입을 수 있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9년도 부족하다 할 것이니, 신은 모르겠습니다. 3년을 부족하다 하면 마땅히 몇 해를 입을 것입니까. 의논하는 사람이 만약 여주(女主)로서⁸²⁾ 정사를 들었으며 군도(君道)가 있으니, 상복의 제도도 자연 대왕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끝에 가서 생기는 폐단은 장차 무씨칠묘(武氏七廟)를 세우고야 말 것이니, 그 해(害) 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⁸³⁾(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정해진 예법으로는 정리를 다 풀 수 없다고 느껴 예법

⁸²⁾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에는 "여주(女州)"로 되어 있으나 원문 자료에 "여주(女主)" 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⁸³⁾ 召亳, 양주동 역, 앞의 글. "先王酌其輕重。制爲三年朞功總之服以隆殺之。若可以總爲不足而服功之服。以朞爲不足而服三年之服。則其勢必有以三年爲不足者矣。臣不識以三年爲不足者。當服幾年。議者若曰女主聽政。有君道焉。喪服之制。自可同於大王。則末流之弊。將至於立武氏七廟而後已。其爲害可勝道哉。"

을 어기면서까지 그 슬픔을 만족스럽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예법 자체가 소용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선 그는 예법에 따르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엔 '반드시 9년도 부족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제를 늘리는 것으로는 불만족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제시한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더하여, 예법이 유명무실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신자의 해결책대로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행동하다 보면 정해진 규범과 제도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규범을 위반하여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욕망도 만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사회적 질서도어지러워진다는 것을 인과 관계를 활용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태도가 '무씨칠묘를 세우는 데 이를 수 있다'고까지 하여, 왕조의 정체성 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수화자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지' 묻는수사적 질문이 '무씨칠묘를 세우는 것과 같은 폐단의 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수화자와 필자 사이의 공유된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것이 다소 과장된 문제 제기라 할지라도, 필자는 이를 활용해 수화자의 감정적 반응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결국 해가 되고, 그정도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는 판단과 그 해로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수화자와 필자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감정적 반응은 이성적 설득 전략, 즉 논증을 활용한 합리적추론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화자는 일련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거침으로써 감정적 반응을 조정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과 관계를 활용한 논증이 독자의 감정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에서 필자는 잘못된 행동과 결정이 불러올부정적인 결과를 인과 관계를 통해 보여 주고, 그 결과의 심각성에 수화자가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는 수화자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감정이 정책에 대한 가치 평가나 실재 독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되어 수화자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다. 수화자의 태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 수신자가 경험하는 내포 독자의 역할은 합리적 존재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위 판단 기준의 내면화

실재 독자인 임금이 가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필자가 지향하는 독자의 변화는 문제행동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포함한다. 독자가 가치 규범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적용하여문제 행동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자가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독자가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소문에서는 필자가 전제를 정당화하여 확립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텍스트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수화자가 전제를 내면화하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염은열(1996)은 상소문에서 텍스트가 전개될수록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을 밝히고, 이러한 논지 전개 방식을 문제 구체화 또는 초점화 방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텍스트가 전개되는 내내 임금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임금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염은열, 1996: 82). 이러한 텍스트 전략은 필자 입장에서 완곡하거나 공손한 태도를 표현하여 메시지의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독자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 구체화 방식은 보편 원칙으로서의 전제를 내면화하도록 독자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체화 방식으로 텍스트를 전개하자면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논의를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전제의 타당성을 평가하 거나 재정립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논지를 구체화할수록 앞서 재정립한 전제를 문제 상황이나 문제 행동의 평가에 적용하게 되므로, 수화자는 문제 행위에 대한 판단과 태도를 변화시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논상제소>의 경우에서, 문제를 구체화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통해 일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강조점을 둠으로써 수화자가 전제를 내면화하 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 시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논상제소>의 논지 전개 방식

텍스트 내용	논증 구조	
[1] 태사의 상례를 전거로 듦: 선왕이 제정한 예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됨	전제 제시	
[2] 정희왕후의 상제 문제		
[2-1] 임금이 정리와 은혜를 생각하여 3년상 을 치르고자 함	불안정조건 ⁸⁴⁾	
[2-2] 상제를 정한 것은 인정을 생각하여 알 맞은 제도를 세우기 위한 것임	전제 정당화	
[3] 왕후로서 대왕의 제도를 따르는 것은 예를 제정한 선왕의 뜻이 아님	반론 반박	
[3-1] 선례가 없어 예법을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	(상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반박)	
[3-2] 송나라와 주나라의 선례와도 맞지 않음		
[4] 상대 논리의 문제점		
[4-1] 3년이나 그 이상의 상제로도 불만족감 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반론 반박 (상대 주장을 수용했을	
[4-2] 왕후와 대왕의 상제를 구별하지 않으면 무씨칠묘를 세우는 데 이를 수 있음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	
[5] 맺는말: 일신의 위험과 왕에 대한 불복을 무릅쓰고 간언을 하는 이유 및 재고 요청	주장 반복	

⁸⁴⁾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2008)에 따르면 논증이 제기하거나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는 '불안정조건과 그에 따라 발생하게 하는 손실의 합'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해결책보다 일반 원칙을 논증하는 데 텍스트의 상당 부분이할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2008)에 따르면,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 논증문에서 '문제'를 이루는 불안정조건과 손실은 서론에 함께 제시되지만, 문제 제기에 목적을 둔 논증문에서는 불안정조건이 서론에, 손실은 본론에 제시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논상제소>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 방식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문에서 이러한 텍스트 전개 방식은 단지 손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임금과의 소통 맥락에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둔 텍스트 전개 방식을 통해 필자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당화하고 확립하기 위한 논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함의되거나 공유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증을 통해 정당화되고 확립된 전제를 바탕으로 반론을 펼침으로써 필자는 수화자가 문제 행동에 대해 판단을 조정하도록 지원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화자의 판단을 조정해 나간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은 들으니 권(權)은 곧 경(經)입니다. 선왕이 만든 예법으로 평상시에 언제고 마땅히 시행하는 것은 경이요. 선왕이 만들지 않은 것이로되 변(變)을 당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권이니, 어찌 선왕이 이미 제정한 만세(萬世)에 고칠 수 없는 예를 반대로 하여 권이라할 수 있습니까. 송(宋)나라 조정에 모후로 정사를 들은 이가 하나만이 아닌데, 그중에 더욱 뚜렷한 이는 조후(曹后)·고후(高后)였으니, 그 때에 신하로서 한기(韓琦)·사마광(司馬光)·여대방(呂大防)·범순인(范純仁) 같은 무리들이 당당히 조정에 있었으나 상제의 변경한 것은 도무지 들은 일이 없었으니 그때에도 이의가 없었고 후세에도 잘못했단 말이 없는 것은 어쩐 때문입니까.85) (밑줄은 인용자)

다. 이때 불안정조건(destabilizing condition)이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 조건, 상황"을, 손실(cost)은 "불안정조건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쁜 상태. '비용'이나 '대가'"를 의미한다(Williams & Colomb, 2007/2008: 109).

⁸⁵⁾ 김흔, 양주동 역, 앞의 글. "臣聞權卽經也。先王所制。禮法常久。當行者經也。先王所 未制。適變而處之當者權也。安有反先王所已制萬世不易之禮。以爲權者乎。其在宋朝。

(나) 선왕이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참작하여 3년(三年), 기년(朞年), 대소공(大小功), 시마(總麻) 복(服)의 제도를 만들어서 높이고 줄이고 했으니, 만약 시마가 부족하다 하여 대소공의 복으로 입고 기년이 부족하다 하여 3년의 복으로 입을 수 있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9년도 부족하다 할 것이니, 신은 모르겠습니다. 3년을 부족하다 하면 마땅히 몇해를 입을 것입니까.86) (밑줄은 인용자)

(가)는 송나라의 사례에 '예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송나라에서 모후로서 청정을 했던 인물들의 상제를 특별히 높이지 않았던 행위를 판단할 때, 그 당대에나 후대에일관성 있게 그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행위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뿐 아니라 예법대로 기년상을 치르는 행위가 불경스럽거나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함의한다.

밑줄 친 부분에는 '청정(聽政)한 모후의 상제라 할지라도 예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수화자의 응답이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는 수화자는 '조후·고후'와 당시 송나라 조정의 명신(名臣)이 특별하다는 인식을 필자와 공유하고, 일반적인 원칙이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와 수화자는 예법에 따라 기년 상을 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함께 이르게 된다.

(나)는 슬픈 감정과 극진한 정리에 따라서 행동할 때 적절한 한계가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여기서 암시된 수화자의 반응은 '몇 해를 더한다 해도 부족함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는 것이기때문이다. '부족하다'는 불만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이후에도 감정을 근거로 판단하게 만들어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기준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는 1년이 아니라 3년도 부족하다고

母后聽政非一。其尤卓然者。曰曹曰高。當時之臣。有若韓琦,司馬光,呂大防,范純仁 輩。堂堂立朝。而喪制之變。寂無聞焉。而當時無異議。後世無貶辭何也。" 86) 김혼, 앞의 글. 각주 83 참고.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느낌과 감정은 합당한 규범에 따라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법을 구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수사의문문을 활용하여 수화자의 목소리가 개입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이때 수사의문문은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상정하는 표현 방식으로, (가)에서는 '상제에 변경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는 답을, (나)에서는 '3년이 부족하면 몇 년이 마땅한지 정할 수가 없으므로 부족하다는 감정을 기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답을 함의한다. 논의가 전개되어 텍스트의 이 지점에 이르면 수화자 역시 필자의 판단을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소문에서 필자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전제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둠으로써 수화자가 행위를 판단하는 바람직한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전제를 주어진 것으로 활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활용해 그 전제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치 규범을 확립하고, 수화자가 바람직한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구체화 또는 초점화 방식의 텍스트 전개 방식을 활용한 것이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알 수 있다.

(3) 필자 공신력을 활용한 정당성과 효용성의 결합

상소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문제 상황 가운데는 실재 독자와 필자가 어떤 행동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은 어떤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과연이로운 것인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간원차자>가 제출된 상황에서 임금은 자신의 인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논상제소>의 경우 임금은 상제를 변경하려는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필자와 실재 독자 사이의 판단의 차이는 항상 정당성과 효용성중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간원차자>의 상황에서 임금은 자신이 일부 신하들을 좌천시킨 행위가 붕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로 붕당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로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는 <병자봉사>가 다루는 상황에서 임금은 화의(和議)를 이루는 것이 병화(兵禍)를 피하게 해 주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화이론(華夷論)에 비추어 정당한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로인해 실재 독자는 필자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하더라도 실재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이득이 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도 이득이 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된다.

상소문의 수신자는 군주제(君主制)에서 정치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임금이므로,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면에서 필자와 실재독자가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임금이 정치적 측면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 여부에 효용성 판단 기준을 두는 경우에 그러하다.

<병자봉사>에서 실재 독자의 이러한 태도가 재현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근래에 신을 공격하는 의론은 몇몇 젊은 신진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온 조정이 바람이 휩쓸리듯 동조하고 더러는 아부까지 합니다. 그 사이, 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면서도 둘러서서서로 보기만 하며 끝내 감히 신의 참마음을 밝히지 않는 것은 <u>다름이아니라 한 번 입을 열기만 하면 서로 잇따라 화의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u>. 이것은 주화라는 두 글자가 신의 일생 동안 허물이 됨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신의 마음으로는 오늘날 화친하는 일이 잘못임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전후로 탑전에서 아뢴 뜻을 거듭 밝혀주시기를 청하나이다.87) (밑줄은 인용자)

⁸⁷⁾ 최명길, 신해진 역(2012), 79-80. "今日攻臣之論。出於若干年少之口。而舉朝靡然。或相和附。其間非無知臣誣枉者。而環立相視。終不敢明臣心事者。無他。一開口則相隨而入於和議科臼中故也。此見主和二字。爲臣一生身累。然於臣心。尚未覺今日和事之爲非。請以前後榻前所陳之意。反覆而明之。"(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이 부분에서 필자는 화의를 주장하는 자신에 대해서 조정의 반감이 거세다는 것을 밝혀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의론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조정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지만, '온 조정'이 휩쓸릴 정도라면 사실 임금도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조반정의 명분이었고 보면, 임금이 주화론을 채택한다는 것은 반정과 왕권의 정당성을 위협받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했다. 인조반정이나 왕권과 관련된 이러한 사정은 필자가 굳이 드러내어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 임금에게도 조정 신료들에게도 민감하게 인식되고있었을 것이다(이성무, 2007). 여기서 결국 실재 독자인 임금이 조정의의론과 그에 따른 자신의 입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전란의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화의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는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재 독자가 지니는 이러한 태도는 그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내포 독자를 특수성을 극복한 보편적 존재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상소문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수화자가 어떤 정책이나 행위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는 면에서 필자와 같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있다. 즉 필자는 임금의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곧 그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임을 논증함으로써, 정당한 행위가 단지 옳은 것이라고 논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옳은 일이 곧 이로운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득 전략은 필자와 독자가 속해 있는 문화적 질서 속에서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바로 임금에게 왕권이 맡겨진 것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므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임금의 권위를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매우 원론적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구체적인 행위의 판단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소문의 필 자는 자신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구사하여 수화자에게 필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성과 효용성을 결합해 낸다. 전문적인 식견, 사심 없는 태도와 임금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금에게 권한을 바람직하게 실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자는 고사(故事)나 전거(典據)를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바 탕으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병자봉사>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이 이렇게 기미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한갓 이해에 관계된 말만 하여 <u>임금을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u> 시기와 형편을 참작하고 의리를 재량하면서 선대 유학자들의 정론에 고증도 하고 조종께서 행하신 사적을 참고도 하여, 이렇게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백성을 보호할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도리에 해로울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사리에 합당할 것임을 더할 수 없이 충분히 헤아려보니, 기필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88)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자신이 '시기, 형편, 의리'를 두루 염두에 두고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전거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필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주장은 수화자가 우선 '시기, 형편, 의리'에 따라 주장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동의할 것을 전제한다. 필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주장이 '백성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사리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공유된 전제 위에서 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필자의 태도를 확언한 진술에는

⁸⁸⁾ 최명길, 신해진 역(2012), 90-91. "故臣之爲此羈縻之言者。非敢不顧是非。徒爲利害之 說。以誤君父也。酌之以時勢。裁之以義理。證之以先儒之定論。參之以祖宗之往迹。如 是則國必危。如是則民可保。如是則害於道理。如是則合於事宜。靡不爛熟思量。有以信 其必然。"(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遅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수화자의 다른 의견이 개입하지 않고, 필자가 제시하는 전망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제시됨으로써 필자의 공신력에 동의하는 수화자가 표상되었다.

한편 "임금을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은 필자의 선의를 확인하게 해 줌으로써 수화자로 하여금 '필자가 임금을 그르치려 한다'는 인식을 시정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선의도 입증하여 주장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뒷받침하려고 한 것을 볼수 있다.

<사간원차자>에서는 문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는 전문적 식 견을 드러냄으로써 수화자에게 필자를 신뢰하는 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 이 드러난다.

아조(我朝)에서 붕당의 걱정이 있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랑(銓郞)의 권한이 막중한 관계로 국가의 정사가 아래로 옮겨지면서 신진(新進) 기예(氣銳)의 인물들이 걸핏하면 흔단(釁端)을 만들어 내기 때문인데, 실로 백 년에 걸친 이 유폐(流弊)가 반정(反正) 이후에도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직 밝으신 임금과 묘당의 중추적인 신하들이 한 시대의 현재(賢才)들에 대해서 미추(美醜)와 장단점(長短點)을 빠짐없이 강론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북돋아 주고 가꿈은 물론 수준별로 등급을 정하고 반열에 차례로 서게 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관직에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붕당과 색목(色目)만 저절로 없어질 뿐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지의 기운이 크게화통하여 만물이 이루어지는 시대[天地交泰之會]가 또한 도래할 것이니, 오직 성상께서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그의 말까지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조정에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성상의 결재를 바랍니다.89)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붕당의 걱정'이 있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붕당 문제를 해결하고

⁸⁹⁾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若我朝朋黨之患。則有由來矣。銓郎柄重。國政下移。新進氣銳。易生瑕釁。此實百年流弊。反正以後。猶未盡祛者也。惟明主與廟堂心膂之臣。講論一代賢才妍媸短長。無所遁隱。然後培植而裁取之。品藻序列。任之勿疑。則豈惟朋黨色目。自底消滌。實亦天地交泰之會也。惟聖明勿以人廢言。則朝廷幸甚。取進止。"

조화와 안정이라는 이로운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이 부분은 상소문의 끝부분으로, 이 글의 목적은 이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논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 해결책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이를 해결할 최선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붕당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이 임금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여 붕당을 해소하고 "천지의 기운이 크게 화통하"게 하는 성공적인 정치를 펼치는 것이 필자가 바라는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전문성과 선의를바탕으로 필자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곧 필자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신의 식견과 그 식견을 활용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보여 줌으로써 필자의 전문성과 선의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주장이 정당성뿐 아니라 효용성도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때 필자가 '붕당에 대한 걱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냄에 따라 수화자는 필자에게서 자신의 염려를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수화자는 필자가 제시하는 붕당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의 해결책을 평가하게 된다. 필자는 이 과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붕당과 색목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인식에 수화자와함께 이르기를 시도한다.

필자의 사심 없는 태도를 드러내어 신뢰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신하로서 자신의 소임을 확인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간원차자>에서는 임금이 인사처분을 내릴 때 '심상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여,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필자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러나 필자가 "언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으므로 상소문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이, 이는 사간원에

⁹⁰⁾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다만 살펴보건대, 요즘 들어 조정의 진신(播紳)들 사이에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전하께서 관원을 임명하실 때의 그 뜻이 심상치 않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인재를 진퇴(進退)시키는 기틀과 관련되고 국가가 다행스럽게 되고 불행스럽게 되는 근본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 등이 언관(言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대략 한두 가지 조목을 진달드림으로써 전하께서 미처 생각하시지 못했던 점을

서 언론 활동을 담당하는 신하로서의 본분을 근거로 필자의 신뢰성을 제 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자봉사>에서는 필자가 주화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겪은 반대와 배척을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사심 없는 태도를 제시하였다.

어떤 이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여론이 한창 들끓으니, 채택되지 도 않을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이로울 것이 없다. 만약 억지로라도 벼슬길에 나아가 비국(備局)에서 주선한다면, 그래도 보탬이 없지 않 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이치에 가 까웠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몰골을 이끌고 한창 기세등등한 조정 대 신의 의론을 거스르더라도 대궐에 들어가서는 탑전(榻前)에서 아뢰고, 나와서는 대신들과 논쟁하느라 입술이 타고 혀가 마르도록 스스로 그 만둘 줄 몰랐습니다. 무릇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 어서이겠습니까? 진실로 종사(宗社)와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근 심할 뿐, 일신의 이해(利害)를 다시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정 (朝廷)에 참으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의당 애처롭고 불쌍히 여겨야 하거늘, 그런데도 도리어 성난 눈으로 서로 보며 행여 뒤질세라 공격하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에서였겠습니까? 호역(胡譯)을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보낸다면 일각이 급하옵니다. 그런 데 주상께서는 의론이 정해진 뒤에도 아직 여전히 이리저리 둘러대기 만 하시면서 난색을 보이시니, 젊은 신진들의 의론으로 하여금 그 사 이의 틈바구니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떠나는 것이 늦게 되면 될수록 용만(龍灣)에 머물러 있는 것이 또한 그만큼 오래일 것입 니다. 요사이 서쪽 변방의 소식을 듣건대 오랑캐가 이미 소굴로 돌아 갔다고 하니, 아마도 훗날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근심거리가 있을 듯 합니다. 화친하는 일은 이미 가망이 없고, 정세(情勢)상 장차 앉아서 병화(兵禍)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니,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 묘당에 대해 유감이 없을 수 없으며, 젊은 신진들의 과격 한 주장은 또한 깊이 나무랄 것도 못 될 것입니다.91) (밑줄 및 굵은

보완해 三皇外 합니다." (伏以臣等。俱以庸懦。素味臧否。雖忝淸顯。有同聾瞽。其於時議之情變。已事之是非。實所未知。不敢强爲之說。第見比來朝紳之間。氣色弗靖。御批差除。旨意非常。此人材進退之機。邦國否泰之本。臣等以言爲職。不容緘口。略陳一二。冀以裨補闕遺。)

⁹¹⁾ 최명길, 신해진 역(2012), 92-93. "或有謂臣者曰。時議方峻。空言無益。若能黽勉出

글씨는 인용자)

필자는 자신이 "다 죽어가는 몰골"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 대신들과 임금을 설득하였으며, 이는 "일신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였다. 인용문에 이어지는 상소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자세히 서술하며 사직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필자가 겪고 있는 개인적 어려움이 더 강조된다. 이러한 서술은 필자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필자 공신력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수화자의 답은 '종사를위한 것 외에 다른 뜻이 전혀 없다'고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화자는 "다 죽어가는 몰골"을 한 필자를 직접 목격한 존재로서 필자를 애처롭게 여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특히 필자가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에 관계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인용문에서 필자는 "앉아서 병화(兵禍)를 기다리고 있는" 불안감과 현실에 대한 긴박한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단지 필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화자가 역관을 청나라에 급히 들여보내는 행위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공유하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수화자가 필자의 태도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망설이고 있는 실재 독자의 모습을 표상하여 실재 독자의 태도를 수화자와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실재 독자가 조정의 척화 여론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병화를 불러들이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 단언을 통

任。周旋備局。則猶不爲無助。臣亦惟之。此言近理。故扶策垂死之形骸。觸冒方張之廷議。入陳於榻前。出爭於大臣。焦唇乾舌。不自知止。凡若是者。豈有他哉。誠悶宗國之將危。而不暇更計一身之利害耳。朝廷之上。苟有惻隱之心者。宜若在所哀矜。而乃反怒目相視。攻擊如不及。亦獨何心哉。胡譯不送則已。送則一刻爲急。而榻前議定之後。猶存遷就。自示難色。得令年少之論。有以乘其間隙。離京旣晚。停灣且久。近聞西報。賊已還穴。似有後期無益之憂。和事已無可望。勢將坐待兵禍。到此地頭。不能無憾於廟堂之持重。而年少過激之言。亦有所不足深責者矣。"(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해서 필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수화자의 동의를 가정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수화자가 조정 내부의 논의가 왕권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야를 넓히도록 하고, 백성을 보호한다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외부로부터 왕권이 위협받는 결과를 고려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상소문에서 수화자가 필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성적 설득 전략을 구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과사심 없는 태도를 수화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전개한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수화자가 필자 주장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데 동의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필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수화자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가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내용을 구성해 나갔다.

지금까지 상소문에서 수화자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내포 독자를 보편성을 지닌 존재로 구축해 나간 양상을 살펴보았다. 상소문에서 필자들은 수화자가 잘못된 행위가 불러올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도록 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과 관계를 활용하였다. 인과 관계를 활용한 논증은 부정적인 결과의 필연성을 입증함으로써 수화자에게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였다.

필자는 행동이나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면에서도 수화자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텍스트 전개 방식을 활용해보편적 가치를 지닌 원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행위 판단이나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수화자가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필자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은 수화자가 행동이나 정책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대해 필자가 주장하는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필자들은 수화자의 태도를 이렇게 형성함으로써 내포 독자에게 보편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수화자가 태도를 조정해 나감으로써 가치 규범을 내면화 하고, 보편적 원칙에 비추어 행위의 결과를 전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수화자는 감정적 반응, 행위에 대한 판단과 정책에 대한 가치 평가 등 태 도의 모든 범주에 걸쳐서 필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타당한 태도를 형성 해 나간다.

3) 부정적 태도 제거를 통한 특수성 극복

(1) 비교를 활용한 상황의 특수성 재평가

상소문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금이 가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임금이 당면한 상황이 가치 규범이 적용되지 않을 만한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논상제소>가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 준다. 이 경우에 임금은 정희왕후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예법에 따르지 않고 따로 상제를 정하여 시행하려 한다. 당면한 상황이 특수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청정(聽政)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킨 업적에 대한 평가, 인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그의 죽음에 대한 임금의 지극한 슬픔이라는 감정적 반응과 결합하여 임금의 태도를 구성한다. 상황과 인물에 대한 이러한 가치 평가와 감정적 반응은 결국 예법에 따라기년상(朞年喪)을 치르는 것이 '부족하다' 즉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하고, 3년상을 치르는 것이 타당하고 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인식은 감정적 반응과 결합하여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게 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상소문에서는 실재 독자가 이렇게 특수성에 기반하 여 상황을 인식할 때, 수화자가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를 조정하도록 필 자가 설득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태도를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수화자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상황을 재인식하고 보편적 존재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소문의 필자는 비교 도식을 활용하여 특수해 보이는 상황들의 기저에 있는 보편성을 확인하 여 전제를 정당화하고 확립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다. 상소문에서 비교 도식은 고사(故事)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물론 고사의 인용이 한 가지 논증 방식으로만 고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필자는 설명적 예시 도식을 활용하여 고사로부터 보편적인 원칙을 도출하여 이를 전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를 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사와 현안 사이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드러내어 현안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고사를 활용하면 비교 도식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할수 있다.92)

비교 도식을 활용하는 논증을 통해 수화자가 상황 인식을 변화시키도 록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내포 독자를 보편적 존 재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나름대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례들 과 현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화자가 현재 문제 상황에 내재한 보편성 을 확인하고, 당면한 상황이 특수한 정도를 재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화자는 비교를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이 보편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 을 만큼 보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수해 보였던 다른 상황들에서도 같은 전제가 적용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제를 재확립하고 보편 청중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

< 는상제소>에서 비교를 통해 독자의 특수성을 약화하고 보편성을 강화해 나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필자는 태사(太姒)의 상례(喪禮)를 비교 대상으로 들어 정희왕후의 상례라는 현안이 지닌 특수성을 약화시켰다.

주(周)나라 태사(太姒)는 문왕(文王)을 도와 이남(二南)의 화(化)를 이룩해서 천하가 삼분(三分)이라면 그 이분(二分)을 차지하게까지 되 었으니, 그 공덕(功德)은 거룩하다 할 수 있는데, 무왕(武王)과 주공(周

⁹²⁾ 이영호(2016)에서도 <병자봉사 제삼>에 설명적 예시 도식과 비교 도식, 권위 도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화의를 논했던 상황으로부터 설명적 예시 도식을 활용하여 화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비교 도식을 활용하여 왜란 때 화의를 맺었던 것보다 청나라와 화의를 맺는 것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 편의 텍스트 안에서 하나의 고사가 둘 이상의 논증 도식의 운용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公)이 상례(喪禮)를 치를 적에 특별히 더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부족한 생각이 있을 듯한데, 공자(孔子)가 무왕과 주공은 달효(達孝)가 된다고 칭찬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참으로 선왕(先王)이 만든 예(禮)로써는 법도를 넘어 지나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를 제정(制定)한 이는 주공과 공자만 한 이가 없으니, 후세에 주공과 공자 같은 이가 다시 나와도 오히려 감히 고칠 수 없거늘 하물며 주공과 공자의 이하에 있는 자가 감히 경솔히 선왕의 만세(萬世)의 고칠 수 없는 예를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까.93)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필자는 태사와 주공, 공자의 권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수화자의 동의를 상정한다. '태사의 공덕은 거룩하고, 예를 제정한 이는 주공과 공자만 한 이가 없다'는 단언은 별도의 정당화 과정 없이 선언적 으로 제시됨으로써 실재 독자와 수화자, 필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원 칙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또한 이들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이들이 후세에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란 말은 곧 이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따로 구별되는, 예외적인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예를 제정한 이로 주공과 공자만 한 이가 없다'는 진술은 곧 태사와 정희왕후, 주공·공자와 임금을 비교하게 한다. 이 비교의 결론은 정희왕후의 공덕이 태사의 공덕에 비하기 어렵고, 임금이 공자와 주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문제 상황이 정해진 예법을 어김으로써 해결해야 할 만큼 특수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통하여 '선왕이 만든 예를 따라 법도를 넘어 지나 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규범을 '정희왕후의 상례'라는 구 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수화자는 이 일반 원칙의 구체적 적용을 목격한다. 인용문 마지막에 이 '만세의 고칠 수 없는 예를 변경할

⁹³⁾ 召亳, 양주동 역, 앞의 글. "周之太姒贊文王成二南之化。以至三分天下而有其二。其功德可謂盛矣。而武王周公之治喪。不聞有加疑。若歉然。而孔子稱武王周公爲達孝何哉。誠以先王制禮。不可過也。古之制禮者。莫若周公孔子。後有如周公孔子者復起。猶不敢易。而况下於周公孔子者。敢輕議先王萬世不易之禮而變更之耶。"

수 있겠는가?'라는 수사적인 질문은 수화자가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답할 것을 함의함으로써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다.

다음 인용문에서 필자는 비교의 대상을 확대하여 논의를 펼쳐나간다.

군천(君親)의 은혜는 망극(罔極)하고 신자(臣子)의 정리는 무궁 (無窮)하니 진실로 무궁한 정리를 따라서 망극한 은혜를 갚으려 하면 상복 입는 기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인정을 참작하여 그 알맞은 제도를 세워서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굽히고 그대로 나가게 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고 따라오게하여 천하후세(天下後世)에 감히 그 제도를 넘을 수 없게 했으니 그런때문으로 백어(伯魚)가 출모(出母)의 상(喪)을 당해서 울지 않아야 하는데 우니 공자가 잘못이라 했고, 자로(子路)가 누님 복을 벗을 때가되어도 벗지 않으매 공자가 또한 글렀다 했으니, 어찌 예(禮)가 다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요 더해서는 불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94)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상황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예법을 어겼던 사례들을 들어 비교를 계속해 나간다. 각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백어나 자로에게는 상례의 기한을 넘기고도 곡을 하거나 상복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정리에 맞고 따라서 예에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위 있는 존재인 공자는 이들의 행동을 예법에 어긋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를 들어 정해진 예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어서 반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송나라에서 섭정을 했던 모후들의 상제를 변경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현안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에서 신하와 자식의 정리(情理)가 끝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로 드러난다. 정리가 끝이 없다는 것은 각 상황의 당사자에게는 그 상황의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각 상황의 특수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성격이야말로

⁹⁴⁾ 召亳, 양주동 역, 앞의 글. "然君親之恩罔極。臣子之情無窮。苟循無窮之情。而欲報罔極之恩。則服喪之期。未知其終。故先王酌人情而立其中制。使賢者俯而就之。不肖者企而及之。而天下後世。不敢有所踰越。故伯魚於出母之喪。當不哭而哭。孔子非之。子路有姊之喪。可以除而不除。孔子亦非之。豈不以禮盡則已。不可加也耶。"

상례가 지니는 보편적 성격이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감정과 그 감정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할 제도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법으로 감정을 제어하게 하는 규범은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어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요구하지만 불초한 사람에게도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지닌다.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 상황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전제를 확립하는 논증 과정은 수화자가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실재 독자는 정희왕후의 죽음을 예법의 제약을 뛰어넘을 만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예법이 제정된 의도를 다시 고찰하고 다른 특수한 상례들을 살펴보건대, 정희왕후의 죽음이나 그에 대한 임금의 망극한 슬픔은 예법이 한정하는 범위 안에 편입되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수사적 질문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전제에 대한 수화자의 동의를 함의한다.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자는 수화자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여 가치 규범을 준수하는 쪽으로 태도를 이동해 가도록 독자 역할을 구성한 것이다.

전제는 대개 독자와 필자 사이에 공유된 판단이고, 더군다나 상소문의 필자와 독자는 동일한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므로 전제를 진술하지 않아도 수신자가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것이 없다(Williams & Colomb, 2007/2008: 263). 그러나 실재 독자가 이를 자신의 태도로 내면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황 인식에 문제를 드러낼 때, 필자는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전제를 재확립하는 논증 과정을 통해 수화자의 상황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수화자가 특수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포 독자를 보편적 존재로 구축할 수 있다.

(2) 대화 참여자 확장을 통한 자기중심적 인식의 중지

상소문의 수신자인 임금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신민 전체에게 영

향을 미치고, 나아가 후세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 따라서 임금의 권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경륜, 폭넓은 시야와 멀리 볼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된다. 상소문을 통해 필자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시야와 지혜, 책임감을 임금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5)

이를 위해 필자는 대화 참여자를 확장함으로써 텍스트 내의 수화자를 둘러싼 맥락을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드러나도록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수화자를 자신의 이해관계라는 특수성 즉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합리적인 존재로서 구축해 나간다. 따라서 필자가 수화자와 자신 외의 대화 참여자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방식이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이자 설득 전략이라고할 수 있다.

수화자를 둘러싼 맥락은 공간적 맥락 또는 시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간적 맥락을 구성하는 경우에 필자들은 임금과 신하들, 백성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다. <정유봉사>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을 대화 참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왕권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를 활용하고, 독자가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극복하도록 독자를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백성을 수고롭히는 어떤 일을 벌이기만 하면, <u>백성들이 언제나 근심하고 원망하면서</u> 도망쳐 흩어지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으며, 심지어는 드러내 놓고 <u>"차라리 적이 빨리 쳐들어와서 이 일이 끝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u>고 말을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을 담당한 중외(中外)의 신하들이 조치를 잘못한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u>백성들의 눈에는 근본이 되는 경사(京師)에서 기필코 지켜</u> 내려는 계책이 아직도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로(諸路)에서 급무(急務)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오직 산성(山城) 의 일에 불과할 따름인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노약자들을 데리고 들

⁹⁵⁾ 신두환(2004)에서는 눌재 양성지의 『남원군주의(南原君奏議)』에 김수온(金守溫)이 부친 서문을 인용하여 상소문을 잘 쓰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양과 포부, 경 륜과 현실을 꿰뚫는 시각과 통찰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신두환, 2004: 13-14).

어갈 성질의 곳이 전혀 못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u>하루아침에 경보</u>(警報)가 발생할 경우 차례로 붕괴되는 것이 예전처럼 되지 말라는 보 장이 없는데, 어찌하여 무작정 물력(物力)만 허비하면서 가까스로 숨 이 붙어 있는 우리들을 또다시 고생시킨단 말인가." 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가 정신을 고취시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임금을 가까이 여겨 믿으면서 다 함께 보존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96)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백성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임금에게 전란을 겪으며 황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수화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백성을 논의의 맥락에 참여시켰다. 백성의 목소리는 '근심과 원망'의 감정, 현실적 계책을 내놓지 못하는 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지금 쌓고 있는 산성은 쓸데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임금의 태도와 행동이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이때 수화자는 백성의 발화 내용과 그 내용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존재로 조정되어 간다. 백성의 발화 내용은 수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로 제공된다. 이 새로운 정보는 수화자의 인식을 보충하고, 수화자가 백성에게 응답해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필자는 이와 함께 '백성이 임금과 함께 보전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전제를 활용하였다. 이는 곧 백성의 상황인식과 평가를 존중하는 편이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여 백성을 대화의 맥락에 포함시키는 것은

<sup>96)

3</sup> 引, 이상현 역, 앞의 글. "若以今日言之。民之後於城築。役於海防。役於操鍊。後於 委輸。無非所爲備賊者也。始民之遇賊。被其鋒焰。蓋慘極矣。其孑遺者之於死亡者。非 其父兄則其子弟也。勇者冤憤。怯者畏怖。孰不以備賊爲願欲哉。然而一役之興。民輒愁 怨。逃散相踵。至有顯言寧賊速來以已是役者。此非特中外當事之臣施措失便之故。亦民 覩夫京師根本。尚無必守之計。而諸路急務。不過山城。審非扶老携幼以歸之地。以謂一 朝有警。次第崩潰。未必不如始者。乃何故虛費物力。重困我於未翦盡之間也。當此之 時。而苟微大段規畫作國家精神。以凝民志。則終不親信於上。有與之俱存之心也決矣。"

수화자가 자신의 지위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게 해 준다. 수화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의 식할 때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산성 쌓는 일을 재평가하고 구체 적인 방책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시간적 · 역사적 맥락 속에서 대화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맥락에 수화자를 위치시킴으로써 수화자가 자기중심적인 상황 인식을 멈추고 보편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평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고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고사는 단지 권위 있는 전거나 따라야 할 선례로 기능하지 않고, 수화자가 보편 타당한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를 그들의 태도와 일치시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맥락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구성된 맥락은 수화자가 현실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재독자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병자봉사>에서는 석진(石晉)의 고사97)와 임진왜란 당시

⁹⁷⁾ 최명길, 신해진 역(2012), 80-81. "대개 석진(石晉)의 고조(高祖)가 하동(河東)에서 군 사를 일으켰을 때, 상유한(桑維翰)은 거란(契丹)에게 '아들'이라 칭하고 '신하'라 칭하 여 군사를 빌어서 중국을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거란을 더욱 공손히 섬겼으니. 중국이 당한 수치와 모욕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출제 (出帝)가 즉위하자, 경연광(景延廣)이 '거신청손(去臣稱孫)'을 건의하고, 거란의 사신에 게 말하기를, "어른이 화가 나면 와서 싸우도록 하자. 손자의 나라에서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유한이 여러 차례 공손한 말로 거란에게 사과하자고 청했으나, 출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석진의 병력은 거란보다 못하지 않았던 데다 신하라 칭하는 치욕은 실로 천하 사람들이 다 같이 느 끼는 분노였으니, 상유한의 간언(諫言)은 의당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거란이 해마다 쳐들어와 노략질하였으나 그때마다 석진에게 패하였으니, 하상(河上), 단주(澶州), 상주(相州), 양성(陽城), 정주(定州) 등의 싸움에서 석진의 위엄도 다소 펴 졌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노여움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니 중국이 피 폐해져 스스로 보존할 수가 없게 되자, 비로소 사신을 보내어 다시 신하라 칭하기를 청하였지만 거란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거란이 크게 쳐들어와서 석진은 마침내 망하였습니다." (蓋石晉高祖之起兵河東也。桑維翰勸令稱子稱臣於契 丹。借兵以取中國。事成之後。事契丹益恭。其爲中國之羞辱。莫此爲甚。出帝卽位。景 延廣建議去臣稱孫。言於契丹使曰。翁怒則來戰。孫有十萬橫磨劍以待之。桑維翰屢請遜 辭以謝契丹。出帝不聽。蓋其時石晉兵力不下於契丹。而稱臣之辱。實天下之人所共憤。 則桑維翰之諫。宜其不能入也。其後契丹連歲入寇。輒爲晉所敗。河上之戰。澶州之戰。 相州之戰。陽城之戰。定州之戰。石晉之威。亦已少伸。而契丹之怒囂然未已。中國罷 敝。不能自存。始乃遣使請復稱臣。契丹不許。及三年。契丹大舉入寇而石晉遂亡。최명 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화의를 주장한 성혼(成渾)의 사례⁹⁸⁾를 들었다. 석진의 고사에서 필자는 황제가 거란에 대해 스스로를 아들이자 신하로 칭하게 한 상유한(桑維翰)과 의리를 바로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거란을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키도록 한 경연광(景延廣)을 비교하고, 경연광이 비록 명분을 좇았지만 나라를 보전할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음을 비판한다. 상유한에 대해서는 천자로 하여금 오랑캐에게 신하로 자청하게 한 것은 과하였지만 실정에 맞게 먼 훗날을 내다보며 국정을 도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자는 주자(朱子)의 《자치통 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호안국(胡安國)의 사론(史論)을 인용하여 주자가 상유한뿐 아니라 명분을 중시한 경연광도 비판하였고, 호안국이 경연광을 칭찬하는 가운데 부족하게 여긴 것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필자는 성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당면한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임진왜란 당시 화의를 주장했던 성혼이 뭇사람들의 공박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했던 말과 여러 사람에게 답했던 서신을 활용하면서, 필자는 자신에 대한 논박에 성혼의 목소리로 답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이렇게 역사적 선례를 살피면서 필자는 순(舜)임금과 주(周)나라 태왕 (太王)의 고사까지 들어, 덜 중요한 명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더 근본 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때에 맞게 처리할 일이 있다는 전제를 정당화하

⁹⁸⁾ 최명길, 신해진 역(2012), 83. "일찍이 선묘조(宣廟朝) 갑오년 사이에 명나라 장수들이 군사를 부리어 싸우는 데 힘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강화(講和)하여 적을 물리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명나라 조정에 청하게 하였는데, 옛 신하 성혼(成渾)이 맨 먼저 허락할 만하다고 아뢰었고, 물론(物論)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정암(李廷麓)이 성혼의 뒤를 이어서 강화를 발언하다가 장차 중죄를 입게 되기에 이르자, 성혼이 당시정승 류성룡(柳成龍)과 함께 그의 충성을 유독 가엾게 여겨 임금 앞에 나아가 말을같이하여 그를 잘 변호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성혼이 먼저 나아가 아뢰기를, "이정암의 말은 절의를 위해 죽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고 하니 선조(宣祖)께서 대로하시자, 성혼이 황공하여 사죄하였고 류성룡은 끝내 감히 더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曾在宣廟朝甲午年間。天朝諸將。倦於用兵。始有講和退賊之計。令我國奏請天朝。故臣成渾首陳可許之意。而論者譁然非之。及全羅監司李廷麓繼發講和之言。將被重罪。渾與時相柳成龍獨憐其忠。約於上前同辭教解。渾先曰。廷雜之言。乃以伏節死義爲心者也。宣廟大怒。渾惶恐謝罪。柳成龍遂不敢言而退。최명길, <병자봉사 제삼>,『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고, 이러한 맥락에서 주화론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99 다음 인용문에서 그는 주화론에 대한 평가 근거와 평가를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므로 신이 이렇게 기미책(羈縻策)을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한갓 이해에 관계된 말만 하여 임금을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시기와 형편을 참작하고 의리를 재량(裁量)하면서 선대 유학자들의 정론(定論)에 고증도 하고 조종(祖宗)께서 행하신 사적을 참고도 하여,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도리에 해로울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사리에 합당할 것임을 더할 수 없이 충분히 헤아려보니, 기필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100)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주화론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그것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고 사리에 도 합당한 계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⁹⁹⁾ 최명길, 신해진 역(2012), 87-88. "일이란 본디 명분이 아름다우나 실제는 그렇지 않 은 경우가 있사옵니다. 위대한 순임금 같은 이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장가를 들었 사온데, 만일 아내를 맞이할 때 반드시 부모에게 고하는 것이라는 말로 순임금을 힐 난하는 자가 있다면 순임금은 필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태왕이 적인의 침략 을 피해 빈 땅을 떠나가셨는데, 만일 나라의 군주는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라 는 말로 태왕을 책망하는 자가 있다면 태왕도 또한 필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 다. 그러하오나 순임금과 태왕은 끝내 혹자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인륜을 무 너뜨리거나 나라를 망치는 길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대체로 일을 수행하는 방도에 는 정상적인 것과 임기응변적인 것이 있으며, 일에는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과 늦게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때가 어디에 있든 의도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께서 <주 역>을 지을 때에 중도를 정도보다 귀하게 여긴 것도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하오 나 이치를 미혹됨이 없이 보고 덕을 어그러지지 않게 잡은 군자가 아니고서는 뉘라서 능히 알맞은 때를 짐작하고 소견을 굳게 지켜서 한 세상의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事固有名美而實不然者。如大舜不告而娶。如有以娶妻必告之語。致詰於舜者則舜必難於 爲對。太王避狄去邠。如有以國君死社稷之說。致責於太王者則太王亦必難於爲對。然舜 與太王。終不拘於或者之言。而自甘於廢倫亡國之歸。蓋道有經權。事有輕重。時之所 在。義亦隨之。聖人作易。中貴於正。良以此也。然非見理不惑。執德不回之君子。孰能 斟酌得宜。確守所見。以了一世之事者哉。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 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¹⁰⁰⁾ 최명길, 신해진 역(2012), 90-91. "故臣之爲此羈縻之言者。非敢不顧是非。徒爲利害之 說。以誤君父也。酌之以時勢。裁之以義理。證之以先儒之定論。參之以祖宗之往迹。如 是則國必危。如是則民可保。如是則害於道理。如是則合於事宜。靡不爛熟思量。有以信 其必然。"(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遅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주자, 호안국, 성혼과 같은 "선대 유학자들"과 순임금이나 주나라 태왕 같은 "조종(祖宗)"이 겪었던 역사적 선례와 당면한 상황의 공통점, 선인 들이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가치관을 바탕으로 내린 것이다.

이때 필자가 대화에 참여시키는 선대 유학자들이나 조종은 필자와 수화자 모두 그 권위와 보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필자는이 보편적 존재들을 향하여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고증하고 해아려 이롭고 사리에 합당한 방법을 찾았다'고 답할 수 있음을 수화자에게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렇게 보편적 존재들과 그들에게 대립했던 존재들로 구성된 맥락을 구축함으로써, 수화자가 그 속에서 누구와 태도를 같이할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필자뿐 아니라 보편타당한 권위를 지닌다른 존재들에게 응답해야 하는 맥락 속에서 수화자는 주화론이란 현상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멈추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치 평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태도를 조정하게 된다.101102)

이상에서 상소문의 필자가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여 공간적 혹은 역사적 맥락을 구축함으로써 수화자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도록 태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적 맥락의 구성은 수화자가 백성까지 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역사적 맥락의 구성은 수화자가 이상적 인물들, 보편적 권위를 지닌 인물들과 자신의 태도를 정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서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는 것이 수화자로 하여금 그 속에서 유리적·도덕적 위계 질서를 발견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확인함으로써

^{101) &}lt;병자봉사>에서 고사를 인용한 것에 대하여 이영호(2016)는 킨포인트너의 논증 도식 개념을 활용하여, 사례로부터 전제를 도출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설명적 예시 도식과 비교 도식, 권위 도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증 도식의 사용이 수화자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편적 존재들과 같은 편에 놓음으로써 그들과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화론에 대해 실재독자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¹⁰²⁾ 이 연구의 목적은 척화론과 주화론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더 정당한 담론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이해관계와 옳고 그름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데 있지도 않다. 본고는 이런 이념적 문제에서 한쪽 편을 들거나 역사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문제 상황을 파악한 시각과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하거나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한 방식을 통해 설득적 글쓰기의 수행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자기중심적인 인식이나 평가, 판단에서 벗어나고 특정 청중으로서 지니는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동의 목적 중심의 논증을 통한 불안 해소

실재 독자와 필자 사이의 태도 및 입장 차이는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차이이기도 하다.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 지위를 위협받는다고 느껴 불안감과 분노를 느낄 때 그의 상황 인식 즉 현상에 대한 가치 평가와 문제 해결 행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간원차자>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하들이 붕당을 이루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재 독자가 느끼는 '노여움'이 직접적인 서술로 재현되어 있다. 이 노여움은 붕당 그 자체에 대한 염려에 더하여 '임금이 붕당을 짓지 말도록 경계시켰는데도 신하들이 붕당을 지은 상황'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도 비롯한다. 만약사실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곧 임금이 신하들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재 독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권력과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재 독자의 이러한 불안감은 <병자봉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소문에서 <병자봉사>에서 실재 독자인 임금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정의 여론과 필자의 대립이 서술되는 가운데 필자의 곤란함이 잘 드러나고, 이러한 상황 서술은 그 상황속에서 실재 독자의 감정과 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 아래 인용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이지만 이제 감정적 반응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신이 이렇게 기미책(羈縻策)을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한갓 이해에 관계된 말만 하여 <u>임금을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u> 시기와 형편을 참작하고 의리를 재량(裁量)하면서 선대 유학자들의 정론(定論)에 고증도 하고 조종(祖宗)께서 행하신 사

적을 참고도 하여,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도리에 해로울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사리에 합당할 것임을 더할 수 없이 충분히 헤아려보니. 기필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늘 생각하건대, '우리의 국력은 고갈되어 가고 오랑캐의 병력은 오히 려 강성하니, 우선 정묘년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는 동안, 시간을 벌어 정치를 펴서 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민심을 수습하 여 성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며, 변방의 수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군사 를 단속하여 동요함이 없게 하면서, 저들의 빈틈을 엿보는 것으로 우 리나라의 계책을 삼으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여겼사온 데, 이는 이미 평소 마음에 간직했던 것인데다 또 남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방을 두려워하는 근심이 오히려 마음속에 절실하던 차에, 묘당의 의론도 또한 많이 신과 서로 비슷하 다는 것을 듣고, 누구라도 비방을 나누어 받는 자가 있기를 바랐습니 다. 용골대 차사(差使)가 객관(客館)에 머물고 있었을 때 처음 논쟁하 였고 상호(商胡)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다시 진언하였는데, 두 번 모 두 은미한 뜻을 대강 보여 그 단초를 열었습니다만, 감히 말하고자 하 는 바를 죄다 아뢰지 못하고 임금과 재상들의 처분을 기다렸사옵니다. 그런데 아뢴 말은 이미 효과가 없었던 데다 진언할 기회조차 여러 번 놓치고서는 집에서 크게 탄식하게 되니, 마음의 병이 점점 심하여졌습 니다.103) (밑줄은 인용자)

인용된 부분에서 주화론을 주장하는 필자에 대한 조정의 비난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필자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당장의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것, 그리하여 '임금을 그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임금이 필자의 주장을 따르면 임금 역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¹⁰³⁾ 최명길, 신해진 역(2012), 90-91. "故臣之爲此羈縻之言者。非敢不顧是非。徒爲利害之說。以誤君父也。酌之以時勢。裁之以義理。證之以先儒之定論。參之以祖宗之往迹。如是則國必危。如是則民可保。如是則害於道理。如是則合於事宜。靡不爛熟思量。有以信其必然。常竊以爲國力方竭。虜兵尚强。姑守丁卯之約。以緩數年之禍。得以其間。發政施仁。收拾民心。築城儲糧。益固邊備。斂兵不動。以觀彼釁。爲我國計。無出此者。旣以素定於心。又以屢言於人。然而畏謗之心。猶切於中。且閒廟堂之議。亦多與臣相近。冀或有分謗之處。故一爭於龍差在館之日。再陳於商胡未到之前。而皆略見微意。以發其端。不敢盡其所欲言。以俟君相之處分。而言旣無效。累失事機。浩嘆私室。心病轉甚。"(최명길, <병자봉사 제삼>, 『지천집(遲川集)』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

그른 일을 하게 되고 만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재 독자 인 임금이 느꼈을 부담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화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필자는 자신이 출사했던 이유와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정을 진달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며 글을 맺는다. 그가운데 '비방이 두려워 근심했다'고 솔직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서술을 통해서 이 불안감과 근심을 필자만이 아니라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느낀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대신들의뜻도 자신의 뜻과 비슷하다고 파악하고 임금과 대신들이 그 뜻을 실현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정 신료들의 비방이 심했다는 언급은 대신들과 임금이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텍스트 내에서 임금의 감정적 반응이 자신의 권력과지위가 위협받는데 대한 불안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송웅섭(2013)에서도 신하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할 때 임금의 정치적 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권력과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임금의 불안감은 상소문의 소통 상황에 일반적으로 내재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인 임금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위협받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바람직하고 타당한 행동을 하는 데 방해를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화자의 태도 조정은 텍스트에 표상된 실재 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소문의 필자가 권력과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수화자의 감정적 반응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은 주로 반론 반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 재 독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 상황이나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기 때문이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상대 주장을 반박하여 상황 인식을 변화시키면 불안감도 함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화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수화자의 상황 인식을 변화시키기를 시도하는데, 이는 수화자와 필자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필자는 수화자와 자신 사이에 공동의 목적을 먼저 모 색하고, 일단 필자와 수화자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확인되면 목적과 수 단 중심의 인과 도식을 활용하여 논증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간 원차자>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인재를 얻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탄식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대부들 가운데 붕당의 이름을 받게된 이들을 보면 대다수가 총명하고 재능이 있어 대중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정승이 이들을 제대로 길러 주고 화합시키면서 분열되지 않게끔만 해 준다면, 비록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른 가운데 같음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大同)의 멋진 정치를 이루는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104)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필자는 신료들이 붕당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수화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붕당을 극도로 싫어하고 '붕당처럼 보이는 것'마저 경계하는 것은 붕당을 이루는 신료들이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당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왕권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05) 붕당이 변질되어 세도를 추구할 때 이러한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현재 '붕당처럼 보이는 것'이존재하는 현실은 임금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필자는 현실에 대한 실재 독자와 자신의 인식 차이를조정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 인식 차이를 조정하면 독자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붕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인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을 수화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수화자의 인식 변화는 붕당을 문제로 인식하는 근본적

¹⁰⁴⁾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人材之難。終古所嘆。自古士大夫。被朋黨之名者。多是聰明材力爲衆所推之類也。若其君相。果能裁成保合。不使潰裂。則雖於同中有異。異中有同。終不害其爲大同也。"

¹⁰⁵⁾ 이태진(1990)은 왕이 붕당 간 분쟁에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붕당 간 갈등과 대립 과정에서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왕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붕당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임금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인 이유에서 출발한다. 물론 붕당은 왕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필자는 왕권이 존재하는 이유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왕권이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 전제는 따로 정당화하거나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시된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는 수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대동의 정치'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

여기서 발견한 '대동(大同)의 정치'라는 것이 임금과 사대부가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이므로, 이를 통해 이들의 경쟁 관계보다 협력 관계를 전면에 부각할 수 있게 된다. 이 공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하고 그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있고뛰어난 인재는 뭇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마련이고, 필자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따르기 때문에 인재는 붕당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붕당의 오해는 인재를 알아보게 해 주는 척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임금의 권위에 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재평가를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멋진'일을 이루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데서 오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수화자의 불안을 해소한다.

이 상소문의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대저 사론(士論)이 서로 갈라져 갈등을 빚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u>크</u> <u>나큰 불행</u>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훌륭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어느 쪽이 삿되고 부당한지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가령 우이(牛李)의 시비(是非)나 원우(元祐)의 삼당(三黨) 등을 예로 들더라도, 그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이아니라 후세에 와서도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당과를 모조리 제거해 버렸다면, 이덕유(李德裕)의 정술(政術)이나 정이천(程伊川)의 정학(正學)까지도 배척되고 버려지는 운명에 처하게되었을 것이니, 세도(世道)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떻다 하겠습니까.106)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인용자)

¹⁰⁶⁾ 이식, 이상현 역, 앞의 글. "大抵士論之携貳。乃國家之大不幸。其賢邪得失之跡。未

인용문에서 "국가의 크나큰 불행"이라고 한 것은 사론이 갈라진 데 대한 가치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실재 독자인 임금이 국정 책임자로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분노 등의 감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감정적 반응은 상당 부분 이런 현상이 임금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평가에서 나오고, 즉각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행위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필자는 '사론이 갈라지는 것이 국가의 불행이므로 이런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의견에 차이가 생길 때 한 편을 제거함으로써 차이를 해소하려 한다면 응당 그릇된 쪽을 제거해야 할 것인데, 서로다른 사론 가운데 어느 쪽이 정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한 편을 선불리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명적 예시 도식과 비교 도식을 함께 활용하여, 송나라의 사례로부터 '타당한 쪽을 제거하는 것의 해악이 부당한 것을 그냥 둘 때의 손해보다 크다'는 전제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 상황이 송나라의 사례와 비견할 정도로 타당한 쪽과 부당한 쪽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때 필자는 송나라의사례를 들어 어느 쪽이 옳은지 '현재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과 잘못하면 '정술'과 '정학'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단언하는 속에 수화자의동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논증 도식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대동의 정치'라는 공동의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관계를 밝히는 인과 도식을 뒷받침한다. 결국 필자는 모호한 상황을 용인하고 포용하는 것이 '정술'과 '정학'을 보전하는 방법이고 세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실재 독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화자를 변화시켜 갔다. "세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떻다 하겠습니까?"라는 수사적질문에는 '정술'과 '정학'을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수화자가 '사론의 차이가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암

易明也。若牛季之是非。元祐之三黨。非但當年不能平。後世亦不能定。設使盡去其黨。 則李德裕之政術。程伊川之正學。當並在棄斥中矣。其於世道何如耶。"

시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의 불안감이 문제 상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특히 실재 독자가 권력을 지닌 존재이므로 그의 권위와 지위가 위협받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소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재 독자와필자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수화자를 상대로 필자의 주장이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는 논증을 펼침으로써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하고 특수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수화자는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당면한 상황이나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을 새롭게 평가하고 필자가 지향하는 보편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소문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화 상대인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양상을 살펴보았다. 상소문의 필자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수화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화하거나 형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소문에서 필자가 수화자에게 강화해 나가는 태도는 소통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로, 필자는 텍스트를 점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였다. 텍스트의 앞부분에서 보다 일반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텍스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재 독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더 뚜렷하게 재현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수화자의 허용적 태도를 강화한 것이다.

상소문에서 필자가 수화자에게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바람직한 불안감, 보편적 원칙에 기준을 둔 행위 판단, 어떤 현상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타당한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바람직한 불안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잘못된 행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과 관계를 활용하여 논증하였으며, 수화자가 보편적 원칙을 행위 판단기준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전제를 정당화하는 논증을 펼쳤다. 전제를 정당화하는 논증은 텍스트가 구체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며, 이는 텍스트의 점층적 전개 양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수화자가 어

떤 행위나 정책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분리하지 않고 그 연관성을 인식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필자는 필자 공신력을 강화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화자가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내포 독자는 보편성을 지닌 존재로 구성될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수화자에게서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기도 하는데,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 인식이나 자기중심적인인식, 자신의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 등이 제거하고자 하는 태도에 해당하였다. 상황의 특수성을 재평가하고 상황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자는 비교 도식을 활용한 논증을펼쳤다. 수화자가 자기중심적 인식을 극복하는 과정을 구축하기 위하여필자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대화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수화자가맥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일치시켜야 할 보편적인 존재를 발견하도록논증을 구사하였다. 또한 필자는 수화자와의 공동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론을 반박하는 논증을 활용하여 수화자가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화자가 논증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필자는 내포 독자를 특정 청중으로서의 특수성을 극복하는 존재로 구성해 나갔다.

3. 상소문에 구성된 내포 독자상의 성격

앞에서는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한 양상과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필자가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상소문에 구성된 내포 독자상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실재 독자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재현된 태도와 필자가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방향성을 통해 상소문에서 필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내포 독자가 어떤 보편성을 지향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구축하고자 한 내포 독자상을 확인함으로써 내포 독자상이어떻게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1) 협력적 대화자

상소문에서 실재 독자가 협력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재현될 때, 그 협력적 태도는 주로 소통 행위 자체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유봉사>에서는 실재 독자가 구언 교지를 내린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실재 독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재현하였다. <사간원차자>에서는 언관의 직무가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이고 이 언로는 확보되어야한다는 사회·문화적 전제를 활용하여 실재 독자의 태도를 재현한 예를 볼수 있었다. 즉 필자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실재 독자의 태도와 의견이 필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드러내어 논의하고 나아가 독자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소통 행위에 대해 협력적인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은 주로 텍스트 전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상소문이 논지를 구체화하는 방식에 따라 전개됨에 따라 텍스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제 상황과 관련된 실재 독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더 두드러지게 재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재 독자에 대한 재현의 초점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서 텍스트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실재 독자가 파편화된 존재로 재현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실재 독자의 태도 재현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차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일관성은 텍스트 전개에 따라 실재 독자 재현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수화자의 태도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텍스트 내에서 수화자의 태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자의 설득 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반응하여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소문에 재현된 소통에 협력적인 독자의 태도와 비판의 강도를 높여 가는 논지 전개가 지니는 방향성을 살펴보면, 수화자의 변화가 소통에 대해 협력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내포 독자는 협력적 대화자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로 구축되었다. 이때 내포 독자가 협

력적이라는 것은 모든 주장에 허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 행위를 허용하고, 설득 과정을 통해 기존의 태도를 조정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점차 깊이와 강도를 더해 가며 논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협력적 대화자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상소문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필자가 내포 독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성격이 내용 생성과 텍스트 전개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격이 실재 독자에게서 협력적 소통에 관한 태도와 역량을 찾아내서 재현할 지시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필자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점진적으로 배열할원리도 '협력적 대화자'라는 내포 독자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점진적으로 허용적 태도를 강화하는 수화자에게 어떤 강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논지의 전개 방식과 실재 독자 재현의 정도를 결정할 수있기 때문이다.

2) 가치 규범의 준수자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소문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재현한 실재 독자의 부정적인 태도 가운데는 규범을 어기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 평가나 감정, 행동 판단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상황 인식, 욕망과 관련된 불만족감, 자의적인 기준 에 따른 행위 판단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치 평가와 감정, 행위 판단은 서로 맞물려서 문제 행동이나 문제 상황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논상제소>의 경우, 텍스트에 재현된 실재 독자의 태도에 따르면, 정희왕후가 매우 훌륭하고 특별한 인물이라는 판단과 지극한 슬픔이라는 감정적인 반응은 이 상례가 보편적인 예법으로는 치를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 또는 가치 평가와 함께 일어났다. 이러한 감정과 상황 인식은 결국 예법과 달리 3년상을 치르려는 행동을 '예법에 따라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지극한 정리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다'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태도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태도의 여러 부면이 어우러져서 개인적 욕

망을 추구하는 실재 독자를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재현되는 실재 독자의 태도는 필자가 인식하고 재현한 것으로, 필자가 독자를 구성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논상제소>의 예를 다 시 들자면, 실제로 임금이 3년상을 치르려고 한 데는 다른 이유나 정치 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임금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 인식은 텍스트에 재현된 것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필자는 문제 상황을 개인적 욕망과 가치 규범의 대립 속에서 이해하고, 실재 독자에게서 이 러한 문제적 태도들을 발견하여 텍스트에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재 독자의 태도를 분석하고 재현하는 데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필자의 이해와 해석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은 문제 해결하기를 지향하는 설득적 글쓰기이므로, 필자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실재 독자에게 변화의 방향, 지향해야 할 인격이나 정체성을 제시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텍스트 전개 과정 속에서 수화자 즉 대화 상대의 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득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가능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교 도식을 활용한 논증을 통해 상황의 특수성을 재평가했다. 전제를 정당화하는 논증을 통해서 행위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도했는데, 이는 보편 원칙의 타당성에 대해 수화자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과정으로, 수화자가 보편적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태도를 조정하기 위한것이었다. 개인의 욕망에 집중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만족감은 규범을위반했을 때 얻게 될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는데, 이 새로운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를 활용하여잘못된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입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상소문에서 개인적 욕망과 가치 규범의 대립을 중심으로 실재 독자를 재현한 양상과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간 양상을 확인한결과, 이러한 설득 전략의 활용과 텍스트 전개를 통해서 필자가 내포 독자의 정체성을 '가치 규범의 준수자'로 규정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 쓰기를 통해서 필자는 실재 독자가 개인적인 욕망을 통제하

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고 절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가치 규범의 준수자라는 내포 독자의 성격은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추구되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성리학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수양의 목표는 욕망을 제어하고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강상규, 2003; 김영민, 2007; 송웅섭, 2013; 박병구, 2016). 필자는 문제 발생의 원인 또는 문제 해결의 장애물을 실재 독자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고, 그 결함을 극복해 나갈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내포 독자를 가치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존재로 구성해나감으로써 수신자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소문에서 활용된 설득 전략을 되돌아보건대, 유교적 가치관을 이루는 전제들을 확립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이러한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3)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

상소문에 재현된 실재 독자의 부정적인 태도 가운데 일부는 독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독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때 실재 독자의 태도는 권력 유지를 목표로 상황을 평가하거나 행동을 판단하고, 권력이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재현된다.

예를 들어, <사간원차자>에는 실재 독자가 붕당에 대해 몹시 부정적이고, 붕당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임금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편당을 이루고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여워하는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몇몇 신하를 당파적이라고 판단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과도한 인사 처분을 내리는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필자가 인식하여 텍스트에 재현한 실재 독자의 태도로, 필자의 인식과 분석을 거

쳐 텍스트에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소문에서 필자들이 이렇게 실재 독자에게서 권력 지향적인 인식과 불안감을 발견하여 재현할 때 실재 독자는 권력의 소유와 강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이러한 문제적 태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수화자와의 대화를 통해 실재 독자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 은 정치적 위계의 정점에 있다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필자들이 수화자에게서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는 양상은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여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중지시키고, 확장된 참여자의 맥락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발견하여 독자가 권력자로서 느끼는 위협과 불안을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자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인성적 설득을 통하여 독자가 필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권력 유지에도 이로움을 납득하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갔다.

이렇게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추구하면서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현된 독자로 하여금 권력자로서의 특수성을 극 복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변화의 방향이 지향하는 내포 독자는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라고 할 수 있다. 상소문의 수신자는 필자보다 정치적 위계에서 우위에 있는데, 필자는 이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부정 하지는 않는다. 상소문을 통한 설득 행위의 목적은 수신자에게서 그 권 력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런데 문제 상황, 신하와 임금 사이의 갈등은 그 권력 행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임금은 왕권의 강화를 원하지만 신료들의 소임은 왕권을 견제하고 그 권위의 도덕적 행사를 견 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이태진, 1990). 이 긴장 관계를 필자는 권력의 소유 자체를 지향하는 실재 독자와 구별되는 내포 독자를 구성함으로써 해소해 나가는데, 이때 내포 독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목적과 책임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존재이다. 이를 위하여 상소문의 설득 전략과 논증 구사는 내포 독자에게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된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상소문의 필자가 내포 독자의 성격을 '협력적대화 참여자', '가치 규범의 준수자', '권력의 바람직한 실행자'로 구성했고, 이를 위해 실재 독자와 수화자를 분리하였으며 논증 요소와 설득 전략을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내포 독자를 협력적대화자로 구성하기 위하여 실재 독자에게서 소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하여 이를 표상하되, 실재 독자의 태도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표상하거나 필자와 임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전제를 활용하여 협력적 태도를 재현하였으며, 텍스트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합의를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의 심도와 강도를 높여 감으로써 내포 독자를 협력적 대화자로 구성해 나갔다.

내포 독자를 가치 규범의 준수자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실재 독자에 게서 개인적 욕망을 중시하는 태도를 발견하여 이를 객관화하고, 가치 규범을 담고 있는 전제들을 정당화하여 확립해 나가는 과정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전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평가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권위적인 규범에 대해 수화자와 대화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설득 전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내포 독자에게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재 독자에게서 왕권의 유지와 강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를 발견하고, 이러한 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임금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필자가 수화자를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권력 지향적인 태도가 오히려 권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책임감을 강조하며, 반론 반박을 통하여 원론에 충실한 행동이 권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육 설계

1.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의 전제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모형과 목표에 대해 전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을 활용한 독자 구성 교육은 10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친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7차~2015 개정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또는 작문 과목에서 독자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표 IV-1>과 같다.

<표 Ⅳ-1> 제7차~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독자 관련 쓰기 영역 성취기준

교육과정	독자 관련 쓰기 영역 성취기준
제7차	[9쓰-(5)] 독자. 주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작문-작문의 원리-작문의 상황] ① 구체적인 작문 상황을 구성하는 작문 과제, 예상 독자, 목적 등을 분석한다. [작문-작문의 원리-작문 과정에 대한 재고 및 조정] ② 예상 독자의 요구와 목적에 비추어 글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고쳐 쓴다.
2007 개정	[8쓰-(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9쓰-(4)]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쓴다. [작문] ① 작문의 목적, 주제, 독자 등 작문 상황을 분석한다.
2009 개정	[중쓰-(1)]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화법과 작문-(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화법과 작문-(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 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2015 개정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독자 분석에 대한 교육 내용이 10학년 이후 선택 과목 또는 심화 과목수준에 배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자를 분석하고 고려하고 나아가독자를 구성하는 활동은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에 해당하므로 학습자가작문의 다양한 원리와 기능을 어느 정도 학습한 후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상소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상소문에 나타난 쓰기방법을 분석하는 활동 역시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사고력, 배경지식을 요구하므로,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을 활용한 독자 구성 교육은 10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친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을 작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현시적 교수 모형(박영목, 2008)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시적 교수 모형은 작문 전략을 교수·학습하는 데 적합하도록 직접 교수법을 변형한 것으로(권순희 외, 2018: 282), 박영목(2008)은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현시적교수 모형을 <표 IV-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교사는학습자가 작문 전략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직접 전략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구안하게 된다.

<표 IV-2>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현시적 교수 모형(박영목, 2008: 284)

지도 단계	교수・학습 활동
1. 교사의 설명과 시범	① 작문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 ② 작문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 방법에 관한 교사의 시범 ③ 작문의 심리적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사고 구술
2. 교사 안내 중심 작문 활동	① 작문 과제의 수행을 위한 학생들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증대 ② 교사와 학생이 함께 작문 전략의 적용을 위한 연습 활동 ③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 교사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을 해 주고,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지원하며, 작문과 토론의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 제공 ④ 학생들은 소집단 혹은 전체 집단 활동의 과정에서 사고 과정 공유
3. 개별 학생 중심 독립적 작문 활동	① 학생 개인별로 작문 전략의 적용을 위한 연습 활동 ② 개별 학생들에 대한 교사 또는 동료 학생의 주기적인 피 드백 제공
4. 실제 작문 상황에서의 작문 전략 적용 활동	① 새로운 장르 혹은 구조의 글에 대한 작문 전략의 적용활동 ② 더욱 난해한 글에 대한 작문 전략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활동

현시적 교수 모형이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을 활용한 작문 교수·학습에 적합한 이유는 상소문이 고전산문으로서 지니는 특성과 내포 독자구성이 작문 과정에서 지니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소문은 전문 필자가 구체적 맥락에서 생산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작문의 실제적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그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여 상소문으로부터 글쓰기 방법을 탐구하거나 상소문 쓰기의 원리와 전략을 현대의 설득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소문이설득적 글쓰기로서 갖는 교육적 가치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이해와 학습을 지원하려면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과 시범이 필요한데, 현시적 교수모형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탐구하여 전략을 학습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학습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내포 독자 구성은 반복적인 기능이 아니라 주어진 수사적 상황에 따라서 필자가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면에서도 현시적 교수 모형을 통한 학습이 적합하다. 권순희 외(2018)에서는 현시적교수 모형의 강조점이 "작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권순희 외, 2018: 282) 즉 전략을 학습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포 독자 구성은 필자가 문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독자의 역할을 표상해 나가는 활동으로서, 이를 위하여 필자는 글쓰기 목적과 상황에 맞게 어떤 독자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고 쓰기 행위를 수행한다. 이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고 전략적 사고를 익혀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시적 교수 모형은 학습자가 이러한 단계적 경험을 통해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시적 교수 모형을 적용하면 상소문을 활용 한 설득적 글쓰기의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의 모형은 [그림 IV-1]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지도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의 설명과 시범	내포 독자 구성 개념에 대한 설명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에 대한 설명	
	Ŷ	
교사 안내 중심 작문 활동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해• [교사 중심 활동] 상소문의 내포 독자 분석• [학습자 중심 활동] 상소문의 내포 독자 분석• [학습자 활동] 상소문 텍스트를 활용한 내포 독자 구성 연습	
	\bigcirc	
개별 학생 중심 독립적 작문 활동	· · · · · · · · · · · · · · · · · · ·	
$\hat{\Gamma}$		
실제 작문 상황에서의 작문 전략 적용 활동	• 다양한 설득적 글쓰기 상황에 대한 내포 독자 구성 활동	

[그림 IV-1] 상소문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의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모형

이때 교수·학습은 학습 자료이자 모범 텍스트인 상소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활동을 포함한다. 상소문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가 상소문이설득적 글쓰기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지니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 상소문으로부터 글쓰기 전략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다. 그에 더하여 개별 상소문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내포 독자 구성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소문 텍스트를 이해하는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은 읽기 활동 및 토의 활동과의 연계를 추구한다.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실재 독자 및 청중에 대한 인식과 독자의 반응에 대한 인식의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쓰기와 읽기 활동의 통합은 쓰기 교육의 지향점으로 늘 강조되어 온 것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을 조정하는 국면에서 자신의 글의 독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필자로서

독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내포 독자의 역할과 정체성을 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료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경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내포 독자에 대한 인식과 구성 능력으로 내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내포 독자 구성을 통해 지향하는 설득적 글쓰기 교육은 바람직한 설득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학습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한다는 것이 설득 효과만을 추구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수하면서 독자에게 어떤 태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는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실재독자에게 영합하여 실재 독자의 승인을 얻는 데 몰두하거나 설득 전략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페렐만과 올브레히트-티테카(Perelman & Olbrecht-Tyteca, 1959/1969)는 설득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나 청중에 대해서는 연설자가 설득을 하지 않기로 결심할 자유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그와 비슷하게 필자에게는 어떤 실재 독자를 대상으로 삼아 설득할지 결정하고 어떤 내포 독자를 구성할지 결정할 자유와 책임이 있고, 설득적 글쓰기가 타인의 인격을 보완하고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은 쓰기 교육이 바람직한 설득을 지향할 이유가 된다.

이러한 쓰기 교육은 독자 즉 타인에 대한 응답적 인식을 지닌 필자의 성장을 지향한다. 이는 쓰기 교육이 학습자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지향 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어떤 이념적 목표점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 니다. 오히려 응답적 인식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직면한 맥락을 재구 성하고, 올바른 가치나 지향점을 새롭게 탐색하고, 때로 어떤 논의에 참 여하지 않거나 양분되어 있는 선택지 외의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응답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대중에의 영합이나 필자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태도의 조장이 아닌 바람직한 설득 행위를 위하여 필자가 갖추어야 할 응답적 이해 능력은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소문은 바람직한 설득을 지향한 글쓰기의 실제적 사례로서, 필자의 응답적 이해가 어떻게 설득적 글쓰기로 실현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줄 수 있다. 상소문을 통해서 학습자는 필자들이 실재 독자의 문제 를 어떻게 진실하게 파악하고 표상하였는지, 어떤 내포 독자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며 그런 내포 독자를 구성하려고 한 이유와 실제로 내포 독자를 구성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응답적 이해의 한 양상을 탐구하고, 전략적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내용

1)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해

학습자가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내포 독자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설득적 글쓰기에서 그 구성 양상을 파악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수 있다.

학습자가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은 '내포 독자 확인하기', '상소문의 내포 독자의 특징 파악하기', '상소문에 나타난 내포 독자 구성 방법 파악하기'를 세부 주제로 하여 구안할수 있다.

내포 독자를 확인하는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내포 독자의 개념과 존재를 확인하고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내포 독자가 실재 독자와 구별되는 텍스트 내 존재이며, 글쓰기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동안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텍스트 내 역할로서, 텍스트 전개 속에서 구성되어 간다. 단, 이 단계에서는 내포 독자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실재 독자와 내포 독자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수화자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심화 단계의 학습 내용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상소문의 내포 독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은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

축함으로써 실재 독자에게 보편성을 부여하고 바람직한 정체성을 제안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는 텍스트의 부분마다 단편적인 이미지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고 구축되어 간다. 상소문에서는 내포 독자가 '협력적 소통자', '가치규범의 준수자',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로 나타나는데, 학습자는 텍스트로부터 이를 파악함으로써 설득적 글쓰기가 인격체 간의 소통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상소문에 나타난 내포 독자 구성 방법을 파악하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것이 실제로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상소문 쓰기에서는 내포 독자를 협력적 소통자로 구성하기 위하여 실재 독자에게서 소통에 우호적인 태도를 발견하여 텍스트에 재현하고, 논지를 점층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내포 독자에게 '가치 규범의 준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자는 실재 독자의 문제적 태도를 재현하고, 논증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태도의 변화 과정을 상정하였다. 필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가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하여 가치 규범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구축해나갔는데, 이를 위하여 비교 도식과 인과 도식을 활용하고 문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로서 내포 독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고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활용한 인과 도식을 구사하고 필자의 공신력을 강화하였다.

[학습활동 예시]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신은 들으니, 주(周)나라 태사(太姒)는 문왕(文王)을 도와 이남(二南)의 화(化)를 이룩해서 천하가 삼분(三分)이라면 그 이분(二分)을 차지하게까지 되었으니, 그 공덕(功德)은 거룩하다 할 수 있는데,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이 상례(喪禮)를 치를 적에 특별히 더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부족한 생각이 있을 듯한데, 공자(孔子)가 무왕과 주공은 달효(達孝)가 된다고 칭찬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참

으로 선왕(先王)이 만든 예(禮)로써는 법도를 넘어 지나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를 제정(制定)한 이는 주공과 공자만 한 이가 없으니, 후세에주공과 공자 같은 이가 다시 나와도 오히려 감히 고칠 수 없거늘 하물며 주공과 공자의 이하에 있는 자가 감히 경솔히 선왕의 만세(萬世)의 고칠 수 없는 예를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신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정희왕후(貞熹王后)는 나라가 위태하고 불안한 때를당해서 먼저 큰 계책을 정하고 이미 듣고 결단하기를 임금과 같이 하여 보우해다시 편안케 해서 그 공(功)이 사직(社稷)에 있고 ①전하(殿下)의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우러나서 여러 신하의 기년복(基年服) 입는 제도를부족하게 생각하고 3년의 제도를 따라서 대왕(大王)의 복(服)과 같이 하려 하시니, 신은 벼슬이 시종(侍從) 자리를 더럽히고 있어서 그 정희왕후의 사직을 보우한 공과 또 전하의 사모하는 정성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미 그 만분의 일이나마짐작하고 있으니, 신이 아무리 무식하오나 또한 어찌 기년복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군친(君親)의 은혜는 망극(罔極)하고 신자(臣子)의 정리는 무궁(無窮)하니 진실로 무궁한 정리를 따라서 망극한 은혜를 갚으려 하면 상복 입는 기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인정을 참작하여 그 알맞은 제도를 세워서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굽히고 그대로 나가게 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고 따라오게 하여 천하후세(天下後世)에 감히 그 제도를 넘을수 없게 했으니 그런 때문으로 백어(伯魚)가 출모(出母)의 상(喪)을 당해서 울지 않아야 하는데 우니 공자가 잘못이라 했고, 자로(子路)가 누님 복을 벗을 때가되어도 벗지 않으매 공자가 또한 글렀다 했으니, ①어찌 예(禮)가 다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요 더해서는 불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왕후로서 대왕의 제도를 따르는 것은 선왕의 예를 제정한 뜻이 아닌데, 의론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는 인정(人情)에서 우러나는 것이니 가다가 권도를 따라 적당히 변경할 때가 있다."하고, 또 말하기를, "모후(母后)로서 정사를들은 것부터 벌써 비상시의 일이었은즉 그 상제(喪制)도 또한 평상시 제도에 국한할 수 없다."하여, 공덕이 있는 조종(祖宗)과 문무(文武)의 세실(世室)은 백세라도 불천(不遷) 한다는 설로서 부회(傳會)하는 데까지 이르니 신은 그윽히 이상히 여깁니다. - 김혼, <논상제소(論喪製疏)> 중에서

내포 독자 확인하기

- 1. 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독자(임금)의 생각과 행동을 말해 보자.
- 2. ①은 필자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예상한 표현이다. ①에 동의하는 독자는 ①에 나타난 독자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상소문의 내포 독자의 특징 파악하기

3. 필자는 독자가 ③과 같은 태도에서 ⑥과 같은 태도로 변화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⑥을 참고하여, 필자가 구성하고자 하는 독자는 가치 규범(예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닌 존재인지 알아보자.

상소문에 나타난 내포 독자 구성 방법 파악하기

- 4. 이 글에 다음 설득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자.
 -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지닌 대상이나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편적 원칙이나 전 제가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독자의 특수한 사정을 극복 하여 보편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논증한다.
- (1) 독자의 상황을 어떤 사례들과 비교하였는가?

사례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논의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먼저 전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한 보편적 원칙을 문제 상황이나 문제행동의 평가에 적용하여 독자가 보편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 (2) 지켜야 하는 가치 규범(전제)을 정당화한 부분은 어디인가?

정당화한 가치 규범에 비추어 문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심화 학습] 실재 독자, 수화자, 내포 독자에 관해서 알아보기

- 1. 위 글에서 임금이 이미 한 행동이나 전에 표현한 적이 있는 태도를 찾아보자.
- 2. 위 글에서 필자에게 대답하거나 말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찾고, 어떤 말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예) "공자(孔子)가 무왕과 주공은 달효(達孝)가 된다고 칭찬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 무왕과 주공은 어머니의 상제를 특별히 다르게 치르지 않고

예법에 따라서 했군.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자가 칭찬한 이유는 뭐지? 예법을 잘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닐까?

3. '2.'에서 찾은 목소리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존재로 달라져 가는지 말해 보자.

[개념] 설득적 글쓰기의 내포 독자

- 실재 독자: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 실제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다. 설득적 글을 쓸 때 필자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 다.
- 실재 독자 재현: 필자가 실재 독자의 태도나 행동 등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글 속에 표현하는 행위.
- 수화자: 글 안에서 필자와 대화하는 독자. 필자에게 대답하기도 하고, 글의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글의 각 부분에 따라 수화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필자는 수화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득 전략을 활용한다.
- 내포 독자: 실재 독자가 글을 읽는 동안 취하도록 글 속에 마련된 역할. 실재 독자의 재현과 수화자의 태도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필자가 실재 독 자에게 부여하고 싶은 정체성과 역할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글을 전개 할 방향과 설득 전략을 활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학습활동 제재 이해를 위한 학습자료의 예시]

• 다음을 참고하여 <논상제소>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상소 배경 알아보기

<학습자료>

이 상소문은 조선 세조의 왕비이자 성종의 할머니였던 정희왕후(貞熹王后)가돌아가셨을 때 신하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성종과 신하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 정해진 예법에 따르면 왕후의 상(喪)을 당했을 때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했고, 이를 '기년상(朞年喪)'이라고하였다. 그러나 정희왕후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이 장성할 때까지 정치를 도우며 왕권을 안정시킨 인물이었으므로 성종은 정희왕후를 각별하게 여겨왕의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3년상을 치르기를 원했다. 이 상소문은 3년상을 치

를 것을 주장하는 임금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제목은 '상제(喪制: 상례에 관한 제도)에 대해 논하는 상소문'이라는 의미이다.

관련된 고사 알아보기

<학습자료>

- 태사는 문왕의 왕비이자 주나라 무왕과 주공의 어머니이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운 인물이고, 주공은 무왕의 동생으로 뛰어난 인품과 실력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소문 본문에서는 태사가 문왕을 도와 천하의 삼분의이를 차지하게 한 업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인 무왕과 주공이 예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상례를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백어(伯魚)가 출모(出母)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1년이 지났는데도 곡을 하였는데, 공자가 듣고는 "아, 심하구나."라고 하자 백어가 마침내 그만두었다. 그리고 자로(子路)가 누이의 상에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는데도 상복을 벗지 않았는데, 공자가 "선왕이 제정한 예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한다."라고 하자 자로가 드디어 상복을 벗었다." 김매순(金邁淳), 『대산집(臺山集)』 107) 중에서.
- → 이 고사는 『예기(禮記)』에 전한다. 백어는 공자의 아들로, 아버지(공자)와 이혼한 생모의 상을 치르면서 예법으로 정해진 기간(1년)이 지났는데도 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곡을 하였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로, 누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예법에 정한 기간이 넘어서도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공자는 이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백어와 자로 모두 슬프고 애틋한 마음에서 예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공자는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어구 해설

달효(達孝):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한결같이 지극한 효도.

시종(侍從): 조선 시대에, 홍문관의 옥당(玉堂), 사헌부나 사간원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통틀어 이르던 말.

불초(不肖):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권도(權道):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공덕이 있는 조종(祖宗)과 문무(文武)의 세실(世室)은 백세라도 불천(不遷) 한다":

세실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위패(位牌)를 모시던 종묘(宗廟)의 신실(神室)을 가리킨다. 이 문장은 공덕이 있는 왕과 주나라 문왕, 무왕의 위패가 있는 묘실은 헐어서 치우지 않고, 그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음으로써 다른 임금의 위패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회(傅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2)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수행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제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에 대한이해를 학습자가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포 독자 구성 교육의 내용과 학습활동의 예시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먼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쓰기 활동은 여러 유형의 설득하는 글쓰기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에서는 설득적 글쓰기의 유형을 '설득하는 글',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로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요소를 '논거와 설득 전략', '필자의 관점', '현안 분석 및 해결'로 초점화하였다(교육부, 2015: 77, 82-83). 이 중 설득하는 글은 비평하는 글과 건의하는 글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득하는 글의 교육 내용 요소인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논거와 설득 전략'은 비평하는 글과 건의하는 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상소문의 글쓰기 방법을 고찰하여 독자 구성이 설득 전략을 생성하고 운용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쓰기수행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쓰기 유형인 '설득하는 글' 일반에 적용할수 있다.

한편 상소문이라는 제재에 주목하여 볼 때,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은 설득하는 글의 하위 유형인 비평하는 글과 건의하는 글의 학습에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설득적 글쓰기로서 상소문의 특성에서알 수 있듯이 상소문은 현안에 대한 비평적 성격과 해결책을 제안하는 건의하는 글로서의 성격을 두루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소문의독자 구성 양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생성과 조직 전략은 비평하는 글과 건의하는 글의 초점화된 내용 요소인 필자의 관점 수립과 현안 분석과 해결의 생성과 조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¹⁰⁷⁾ 김매순, 이정원 역, <논추후성복행연상지의(論追後成服行練祥之疑)>, 『대산집(臺山集)』 제41권, 한국고전번역원.

이와 같이 현대의 다양한 유형의 설득하는 글쓰기 상황에서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서는 쓰기 수행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재 독 자와 내포 독자의 분리는 구성하고자 목표로 삼는 내포 독자의 상을 설 정하도록 하고, 독자를 재현하고 수화자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설득 전략의 생성과 논지 전개 방식을 조정하므로, 교수·학습 내용은 '(1) 실 재 독자 분석 및 내포 독자 구성 목표 설정', '(2)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 한 내용 생성', '(3)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조직'으로 구안될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에 제시된 다양한 학습활동을 참고하여, 다음 '학습활동 계획 예시'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예시로 삼아, 학습활동 내용을 제안하도록 하겠다.108)

<표 Ⅳ-3>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설득적 글쓰기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

교과서	설득하는 글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
미래엔	진로에 대한 태도 잊힐 권리	• 통학로 안전 문제	• 로봇 세금 부과
비상	• 실패에 대한 태도	· 동물원	• 교복 착용
	• 청소년의 욕설 남용	• 벽화 마을 조성	• 교복 불편 사항
지학사	・ 노인 기준 연령 상향	• 소규모 학교 통폐합	· 쓰레기 불법 투기
	• 존엄사 도입	• 로봇세 도입	• 동물 실험
창비	· 기부 문화 · 디지털 디톡스	• 동물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강좌 개설 사회 기구 창설
천재교육	• 노키즈존	· 온라인에서 부정확한 뉴스의 확산	·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 불편

^{108)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설득적 글쓰기 단원의 제재들의 내용을 개관하면 <표 IV-3>과 같다.

[학습활동을 위한 문제 상황 예시]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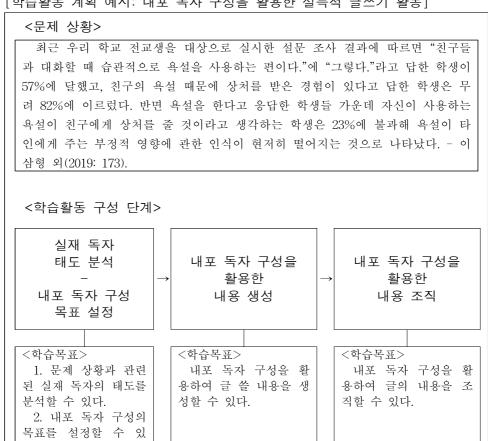
최근 우리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편이다."에 "그렇다."라고 답한학생이 57%에 달했고, 친구의 욕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학생은 무려 82%에 이르렀다. 반면 욕설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3%에 불과해 욕설이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삼형 외(2019: 173).

이 문제 상황은 비평하는 글과 건의하는 글의 상위 유형에 해당하는 설득하는 글의 제재 중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 상적 상황을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설정 함으로써 내포 독자 구성이라는 새로운 전략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학 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시의성보다 학습자의 현실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문제 상황을 활용하여 전략을 학 습하고 내면화하여, 보다 특수하고 전문적인 주제로 글을 쓸 때 전략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호(2013)에서는 논증 글 쓰기의 위계화 방안을 논하면서, 논제가 추상성을 띨수록 학습자가 대상 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그는 건의문 등 상황 맥락 중심의 설득적 글쓰기가 비평문 등의 해석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 기보다 기초에 놓인다고 보았고,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주된 학습자로 설정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 학습자에 대해 논의한 것이 지만, <화법과 작문> 과목 및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가 심화된 지 식으로서 설득 전략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 은 타당성을 지닌다.

아래 항목에서는 교육 내용과 함께 이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의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학습활동의 예시는 아래(1)-(3)의 항목에서 학습활동 예시①-③으로 연계하여 제시할 것이다. 예

시 학습활동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에서 학습활동을 단 계별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는 글쓰기 과정이 선조적이라는 의미는 아 니며, 본고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은 동시적·회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을 전제한다(권순희 외, 2018: 86-87).

[학습활동 계획 예시: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활동]



(1) 실재 독자의 태도 분석 및 내포 독자 구성 목표 설정

다.

설득적 글쓰기의 목적이 독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실재 독 자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태도는 감정, 행위에 대한 판단,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이루어지는 독자의 특성으로, 필자와독자 사이의 태도 차이가 설득적 글쓰기의 필요성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실재 독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글쓰기와 관련된 문제상황을 이해하게 해 주고, 글쓰기의 목표로 삼을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해 줄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습자의 글쓰기에는 상소문과 같이 수신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활동에서 쓰기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수신자를 지정해 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신자를 정하거나 불특정의 보편 독자를 대상으로 쓰기를 수행하게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실재 독자는 수신자에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필자가 소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선행 발화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학습자는 자신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반응을 보이고 싶은 대상에 대하여 태도를 분석하고 쓰기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학습자가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야 할 명제적 지식은 다음과 같다.

 태도를
 • 감정적 · 정서적 반응

 구성하는
 •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

 요소
 • 상황 · 현상 · 사물 · 정책 · 방안 등에 대한 가치 평가

이를 바탕으로 실재 독자의 태도 분석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독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독자의 지식, 요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한 관련성이나소통에 참여하려는 동기나 의지 등109)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¹⁰⁹⁾ 독자의 지식, 요구, 관심사는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독자를 분석하는 주된 요인으로 (Flower, 1993/1998),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도 독자 고려의 요소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독자의 능력과 동기는 정교화가능성모델 이론에서 수신자의 설득 메시지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요인으로, 이 역시 설득 담화의 메시지의 생성과 조직을 위해 고려할 정보에 해당한다(Petty & Caccioppo, 1996; 박재현, 2016).

실재 독자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감정적 ·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 어떠 사라이나 해외에 대히

- 어떤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는가? 그 판단의 내용은 무엇인가?
- 과 그렇게 판단하는가?
- 어떤 상황 · 현상 · 사물 · 정책 · 방안 등을 평가하고 있는가?
 - 그 평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

학습자는 실재 독자가 지닌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하고자하는 내포 독자의 상을 설정할 수 있다. 상소문의 경우에는 내포 독자가 '협력적 소통자', '가치 규범의 준수자',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여 학습자는 내포 독자에게 구축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소통에 대한 태도, 보편적 원칙에 대한 태도, 구체적 행위에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다.¹¹⁰⁾ 실재 독자를 분석하고 내포독자 구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쓰기 수행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예시①: 실재 독자 분석 및 내포 독자 구성 목표 설정하기]

학습목표

실재 독자의 태도 분석

- 1. 문제 상황과 관련된 실재 독자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 2. 내포 독자 구성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아래 <문제 상황>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문제 상황>

최근 우리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편이다."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57%에 달했고, 친구의 욕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무

¹¹⁰⁾ 후속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이는 내포 독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범주가 세 가지에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포 독자의 정체성 예시는 학습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상소문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내포 독자 구성과 글쓰기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려 82%에 이르렀다. 반면 욕설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3%에 불과해 욕설이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삼형 외(2019: 173).

- 1. 주장을 정해 보자.
- 2. 태도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실재 독자의 태도를 분석해 보자. 문제 상황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독자 유형①	독자 유형②	독자 유형③	•••
감정				
판단				
가치평가				

3. 상소문의 내포 독자에 대해 학습한 것을 참고하여, 독자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태도를 중심으로 실재 독자를 분석하여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의 어떤 부면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이 반응을 보여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구성하고자 하는 내포 독자의 정체성을 설정함으로써 텍스트에서 의도해야 할 수화자 태도 변화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전략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생성

실재 독자에 대해 분석하고 내포 독자 구성의 목표를 결정하면, 실재 독자 재현과 수화자 태도 조정을 위한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상소문에 나타난 독자 구성 목표는 협력적 소통, 보편적 원칙의 공유,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으로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중 협력적 소통은 실재 독자에게서 소통에 우호적인 태도를 발견하는 내용 생성 전략으로 작용하되 주로 내용 조직 전략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편적 원칙의 공유와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을 중심으로 <표 IV -4>와 같은 내용 생성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표 IV-4>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생성 전략

내포 독자	내용 생성 전략		
구성 목표	실재 독자 태도 재현	수화자 태도 조정 전략	
보편적 원칙의 공유	• 보편적 원칙의 위반과 관련된 태도 자기중심적 상황 인식 욕망과 관련된 불만족감 자의적 기준에 따른 행위 판단	 비교를 활용한 독자의 특수성 약화 인과 관계를 활용한 바람직한 불안 형성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동 판 단 기준 내면화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	• 바람직한 행동을 가로막는 태도 도 이익 유지를 위한 상황 인식 이익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익 유지를 기준으로 한 행위 판단	 대화 참여자 확장을 통한 자기중심적 인식 중지 공동의 목적 중심의 논증을 통한 불안 해소 필자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정당성과 효용성의 결합 	

예를 들어, 내포 독자를 보편적 원칙을 공유하는 존재로 구축해 나가 고자 하는 경우, 특정 청중으로서 실재 독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독자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보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전략에 따라 비슷한 다른 사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독자에게 바람직한 불안을 구축하기 위한 인과 관계의 발견 역시 내용 생성에 기여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는 존재로 내포 독자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화 참여자를 확장하여 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독자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존재로서의 책임감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문제 상황의 맥락을 시간과 공간, 관계면에서 확장해 봄으로써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독자의 보편성을 보여 주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필자 주장의 정당성과 그 주장을 따랐을 때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다. 위 [학습활동 예시①]과 연계되는, 내용 생성 과정의 학습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예시②: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학습목표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글 쓸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최근 우리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편이다."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57%에 달했고, 친구의 욕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무려 82%에 이르렀다. 반면 욕설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3%에 불과해 욕설이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삼형 외(2019: 173).

• 다음 자료는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쓸 내용을 생성해 봅시다.

내포 독자	내용 생성 전략	
구성 목표	실재 독자 태도 재현	설득 전략
보편적 원칙의 공유	 보편적 원칙의 위반과 관련된 태도 자기중심적 상황 인식 욕망과 관련된 불만족감 자의적 기준에 따른 행위 판단 	 비교를 활용한 독자의 특수성약화 인과 관계를 활용한 바람직한불안 형성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동 판단 기준 내면화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	바람직한 행동을 가로막는 태도 이익 유지를 위한 상황 인식 이익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익 유지를 기준으로 한 행위 판단 ***********************************	 대화 참여자 확장을 통한 자기중심적 인식 중지 공동의 목적 중심의 논증을 통한 불안 해소 필자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정당성과 효용성의 결합

1. 자신이 설정한 내포 독자 구성의 목표를 확인해 보자.

2. '1.'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수화자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3. 자신의 내포 독자 구성 목표에 어울리도록, 위 표에 나타난 전략을 참고하여, 글에 포함할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해 보자.

전략	관련된 사례 /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	조정하기
		ı
		ı

4. 실재 독자의 태도를 참고하여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3.'의 전략을 수정해 보자. ('3.'의 표에서 '조정하기' 칸을 활용해 보자.)

이때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실재 독자와 내포 독자의 차이를 고려하고, 내포 독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수화자의 태도 변화 과 정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설득 전략을 탐색하 면서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데, 상소문에 드러난 설득 전략은 그대 로 모방하거나 답습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용 생성 활동을 안내하고 비계를 제공해 주는 예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실재 독자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전략을 수정해 보는 활동은 학습자가 수화자와의 대화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설득 전략을 수정 하거나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생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내용 조직

상소문의 논지 전개 방식 가운데 점층적 논지 전개와 문제 구체화 방식은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가 전개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나가는 점층적 전개는 이미 전개된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 소통의 태도를 강화해 나가는 내포 독자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문제 구체화 방식은 점층적 전개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으나 보편적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을 땀으로써 전제를 내면화해 나가는 독자를 구성하는 데 주된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를 그대로 내용 조직 전략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를 변형하거나 일반적인 내용 전개 방식1111)을 따랐을 때의 내포 독자 구성 효과에 대해서 탐색하며 내용 조직을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확인된 전략을 반복적 기능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설득 전략에 따라 생성한 내용을 배열하고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포 독자의 상과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용 조직 과정의 학습활동 예시이다.

[학습활동 예시③: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내용 조직하기]

학습목표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최근 우리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들

¹¹¹⁾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는 문제 제기 논증과 문제 해결 논증에 따른 전개, 동기화 단계에 따른 전개 방식 등이 있으며(박재현, 2016; 권순희 외,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일부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민병 곤 외, 2019).

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편이다."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57%에 달했고, 친구의 욕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무려 82%에 이르렀다. 반면 욕설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사용하는 욕설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3%에 불과해 욕설이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삼형 외(2019: 173).

• 다음 자료는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글의 전개 방식을 떠올려 봅시다.

내포 독자 구성 목표	내용 조직 전략
협력적 소통	소통에 우호적인 태도 재현 점충적 논지 전개
보편적 원칙의 공유	• 전제 정당화를 통한 행동 판단 기준 내면화

- 1. 자신이 설정한 내포 독자 구성의 목표를 확인해 보자.
- 2. 위 자료와 설득하는 글쓰기의 내용 전개 방식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내포 독자 구성 목표에 어울리도록 내용을 조직해 보자.

전개 단계	전개 내용

3. 전개 방식이 내포 독자 구성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생각하면서 내용 전개

순서를 수정해 보자. 더 필요한 내용이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

이때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글의 전체적인 전개 속에서 수화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내포 독자 구성에 어떻게 작용할지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가 다양한 전개 방식을 계획해 보면서 글의 조직 방식이 내포 독자 구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용 생성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내용을 더 생성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내포 독자 구성을 중심으로 한 설득적 글쓰기 수행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내포 독자 구성을 전략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독자 인식을 높이고 글쓰기 내용 생성과 조직을 교육할 내용을 마련하였다. 상소문의 독자 구성 양상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설득적 글쓰기의 전범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모방할 기능의 목록으로서가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예시이자 전략의 실제적 예시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글쓰기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재 독자의 태도 분석과 필자가 추구하는 내포 독자상에 대한 인식, 수화자의 태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독자를 분석하고 이해할 때 학습자가 독자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실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수 있게 해 주는 독자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3.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 방법

1) 내포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읽기 · 쓰기 활동의 통합

내포 독자 구성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 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읽기 활동은 다른 텍스트에서 구성하는 내포 독자의 모습과 내포 독자를 구성한 방법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소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독자 구성이 잘 된 글은 학습자에게 글쓰기의 전범이 되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파악하는 읽기 활동은 상소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포 독자 구성의 양상과 설득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내포 독자상과 구성 전략의 목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텍스트를 읽는 활동은 그 텍스트의 필자를 비롯한 실재 독자들,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기회가 되므로 쓰기 활동에 선행하거나 쓰기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소문역시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적 글쓰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내포 독자구성을 중심으로 한 설득적 글쓰기에서는 학습자가 문제 상황,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읽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포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읽기 활동에는 설득적 글쓰기의 전범으로서 상소문 읽기,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상황에서 실재 독자 이해를 위한 읽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전범 텍스트로서 상소문 읽기 활동은 앞에서 제안된 예시와 같은 활동을통해 내포 독자 구성 전략을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쓰기 활동에 연계된다. 실재 독자 이해와 분석을 위한 읽기 활동은 내용 생성 활동과 함께이루어지며, 읽기 활동을통해 실재 독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2) 내포 독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피드백 제공

내포 독자 구성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전략이자 필자가 내용을 조정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필자가 내포 독자의 역할과 성격에 기준을 두고 자신의 글을 읽고 평가할 때,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평가하는 경험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신이 구성하는 내포 독자의 정체성과 내포 독자 구성 전략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주로 고쳐 쓰기를 위한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데, 고쳐 쓰기를 위해서는 크게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글을 읽고 고쳐 쓰는 활동 과 동료들의 반응을 활용하는 활동이 있고, 교사는 반응의 초점이 될 질 문이나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한다(권순희 외, 2018).

이렇게 학습자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독자가 실제로 글을 읽고 반응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텍스트에 구축된 내포 독자의 정체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동료나 교사가 실재 독자로서 보이는 반응을 학습자 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포 독자 구성의 원리와 교수·학습 내용설계를 바탕으로 반응을 위한 질문의 예를 다음과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다.

	• 실재 독자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 그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감정적·정서적 반응을 보이는가?
실재	- 어떤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는가?
독자의 태도 재현	- 어떤 상황ㆍ현상ㆍ사물ㆍ정책ㆍ방안 등을 평가하고 있는가?
네도 제원	• 필자가 독자에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그 요소를 변화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필자와의 협력적 소통이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A =1 =1	• 수화자의 태도 요소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수화자	- 감정적·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태도의 변화 내용	- 어떤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좌 네 ㅎ	- 상황ㆍ현상ㆍ사물ㆍ정책ㆍ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변화 과정	• 설득 전략을 통한 수화자의 변화는 내포 독자에게 어떤 역할이나 정

	체성을 부여하는가?
	- 인성적 설득
	수화자가 필자에게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성적 설득
	수화자의 태도 요소를 변화시키는 논증 요소는 무엇인가?
	· 어떤 전제를 활용하였는가?
	· 그 전제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재정립하였는가?
	• 근거 자료에 그 전제를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 감성적 설득
	실재 독자의 협력적 반응을 저해하는 감정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수화자에게 새롭게 부여된 감정은 무엇인가?
	• 텍스트를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구성된 독자는 어떤 가치관이나 정
변화 결과	체성을 지닌 존재인가?
평가	• 이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 이 내포 독자는 실재 독자보다 어떤 점이 바람직한가?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설득적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필자에 의해 구성되는 내포 독자의 개념과 그 구성 원리를 밝히고, 상소문 쓰기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독자 인식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 설득 행위로서의 측면,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설득적 글쓰기를 살펴본 결과, 독자 구성은 글쓰기 과정 차원과 논증 차원,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층적 개념이라는 것을 밝혔다. 필자는 글쓰기 과정에서 실재하는 대화 상대자를 인식하고 선정하고 표상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참여자를 모색하거나 대화 상대자를 허구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독자를 구성하는데, 이는 필자의 인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논증 차원에서 특히 필자는 보편적 합리성을 지닌 보편 청중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독자를 구성한다. 이렇게 필자의 인지 속에서 표상되고 구성되는 독자는 텍스트로 실현되어야 텍스트를 통한 대화 상대자로 기능하게 된다. 텍스트에 기재된 독자는 실재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텍스트에 구축되며 실재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그 역할을 취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현시키므로 내포 독자라고 볼 수 있다.

내포 독자는 텍스트 내에서 실재 독자와 구별되고, 필자가 실재 독자에게 부여하는 역할 또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필자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재 독자의 태도를 표상하고 이를 텍스트에 내재한 대화 상대자 즉 수화자와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태도는 주체의 감정적 반응, 사람이나행위에 대한 주체의 윤리적 판단,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주체의 가치 평가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실재 독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기도하고 필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가운데 필자의 태도가 재현된 실재 독자나수화자의 태도와 일치하는지 함의되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필자는 논증 요소를 비롯한 이성적 설득 전략과 인성적 및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텍스트에서 실재 독자의 태도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 과정을 전개하고, 이렇게 하여 실재 독자와 구별되며 필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내포 독자를 구성한다.

독자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글쓰기 양식인 상소문 쓰기에서 필자가 내포 독자를 구성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상소문이 전제 군주를 수신자로 삼는 데 특징이 있는 양식이지만 필자가 수신자외의 대화 상대자를 텍스트 안에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응답적 이해를 실현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고찰이 학습자가 다양한 대화 상대자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쓰기 상황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여 설득 전략을 운용하는 현장을 경험하게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상소문의 필자가 내포 독자의 정체성을 '협력적 대화 참여자', '가치 규범의 준수자', '권한의 바람직한 실행자'로 구성했다는 것을 밝힐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실재 독자를 재현하고 수화자의 태도를 조정해 나갔다. 실재 독자의 재현은 직접적 서술이나 필자 태도와의 정렬 여부를 함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화자의 태도 조정은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고 협력적인 소통 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 구성 원리와 양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은 현시적 교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상소문의 내포 독자 구성 양상 이해'와 '내포 독자 구성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수행'으로 구성하였다. 상소문에 나타난 독자 구성 양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내포 독자 구성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내포 독자의 모습과 구성 양상 및 전략에 초점을 둔 읽기 활동을 학습 방법으로 삼아쓰기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재 독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의 쓰기 활동과 텍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내포 독자를 중심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가 설득 전략과 텍스트 구성 전략을 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 사이의 응답적 대화라는 관점에서 설득적 글쓰기에서 내포 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내포 독자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소문이라는 실제 자료로부터 그 양상을 밝혀 현대의 글쓰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소문은 필자가 실제 맥락 속에서 설득 전략을 구사하여 내포 독자를 구성하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바람직한 설득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독자 인식을 성장시키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탐색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교육적 가치가 있다.

참고 문헌

1. 자료

- 김매순(金邁淳), 이정원 역, <논추후성복행연상지의(論追後成服行練祥之 疑)>, 『대산집(대산집)』,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김전(金詮), 한국고전번역원 역, <속동문선서(續東文選序)>, 『속동문선 (續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김흔(金訢), 양주동 역, <논상제소(論喪制疏)>, 『속동문선(續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박세당(朴世堂), 최병준 역, <지천집서(遲川集序)>, 『서계집(西溪集)』,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서거정(徐居正), 한국고전번역원 역, <동문선서(東文選序>), 『동문선(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이식(李植), 이상현 역, <기사구월사간원차자(己巳九月司諫院箚子)>, 『택당선생 별집(澤堂先生 別集)』,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 c.or.kr).
- 정조(正朝), 홍기은 역, <인물3(人物[三])>, 『홍재전서(弘齋全書)』, 한국 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최립(崔岦), 이상현 역, <정유봉사(丁酉封事)>, 『간이집(簡易集)』, 한국 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최명길(崔鳴吉), <병자봉사 제삼(丙子封事[第三]>, 『지천집(遲川集)』,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 최명길(崔鳴吉), 신해진 역(2012), 『병자봉사』, 서울: 역락.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https://sjw.history.go.kr).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5])』,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 9호 [별책 05])』, 서울: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 61호 [별책 5])』,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서울: 교육부.
- 민병곤·김정자·박재현·김수학·김성해·윤다운(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미래엔.
- 박영목·이재승·전은주·김형주·이세영·이혜진(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천재교육.
- 박영민·박형우·구자경·김영민·박경희·조성만(2019), 『고등학교 화 법과 작무』서울: 비상.
- 이도영·김면수·김잔디·배현주·손범익·엄성신·윤금준·장창중(201 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파주: 창비.
- 이삼형·김창원·권순각·안혁·하동원·박찬용(2019), 『고등학교 화법 과 작문』, 서울: 지학사.

2. 논저

- 강상규(2003), 「조선왕권의 공간과 유교적 정치지형의 탄생」, 『애산학 보』 29, 애산학회, 3-68.
- 권순희·김경주·송지언·이영호·이윤빈·이정찬·주재우·변경가 (2018), 『작문교육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경래(2004),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림(2016), 「상소문의 서술 전략과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 모색」,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연구학회, 411-440.
- 김대행(2005),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국

- 어교육과, 14-34.
- 김민혁(2017), 「숙종조 정치 상황에 따른 정치적 글쓰기 최명길에 대한 포폄을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66, 한국한문학회, 145-178.
- 김상희(2011),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접근 에토스와 파토스의 표현 기술을 중심으로 , 『수사학』 14, 한국수사학회, 27-59.
- 김서윤(2016), 「고등학생 필자의 논증 도식 사용 양상과 시사점」, 『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학회, 93-126.
- 김석근·김문식·신명호(2019), 『조선시대 국왕 리더십 관』, 고양: 도 서출판 역사산책.
- 김승환(2018),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논총』 78, 한국 문학언어학회, 445-470.
- 김영민(2007), 「『맹자』의 「불인인지심장」 해석에 담긴 정치 사상: 주석사를 통한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탐색의 한 사례」, 『정치사 상연구』 13(2), 한국정치사상학회, 56-77.
- 김영석(2019), 『설득 커뮤니케이션』, 파주: 나남.
- 김영주(2009), 「조선시대 구언제도의 절차와 내용 연구」, 『언론과학연 구』 9(4), 한국지역언론학회, 135-169.
- 김우정(2004), 「간이 최립 산문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06), 「『동문선(東文選)』 소재(所載) '주의(奏議)'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01), 「필자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웅(2015), 「약천 남구만 소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윤(2015),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상소문(上疏文)의 특징과 설 득전략」. 『한민족어문학』 70, 한문족어문학회, 361-386.
- 김현정(2009), 「최명길 소차의 서술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김혜연(2019), 「독자 고려가 대학생의 논증적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예상 독자와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 『작문연구』 43, 한

- 국작문학회, 197-231.
- 남윤혜(2016), 「서파 오도일의 사직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대(1985), 「조선 성종대의 대간 언론」, 『한국사론』 12, 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105-171.
- 마승혜(2011), 「장르기반 평가어 한영번역 교육: 실행 연구를 통한 효과 분석」,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69-97.
- 목정균(1985), 『조선전기 제도언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병곤(2008), 「초등학교 논술 교육 내용 구성 방안」,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107-140.
- 박병구(2016), 「내성외왕 사상의 군자정치 연구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3-232.
- 박영목(2008),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 박영민(2004a), 「다중적 예상독자의 개념과 작문교육의 방법」, 『국어 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357-381.
- 박재현(2006),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박재현(2016),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서울: 사회평론아카 데미.
- 박진희·주세형(2020), 「'건의하는 글'에 나타난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방식 연구 -필자의 스탠스 조정과 평가어 선택의 양상을 중심으 로」, 『청람어문교육』 77, 청람어문교육학회, 187-231.
- 서진원(2016), 「조보에 관한 기록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설석규(2002),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서울: 선인.
- 송웅섭(2010),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성종대 언론 발달의 요인과 관련하여 -」, 『한국문화』 50, 서

-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55.
- 송웅섭(2011), 「조선 전기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응섭(2013), 「조선 성종의 우문정치와 그 귀결」, 『규장각』 42,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1.
- 송웅섭(2016), 「조선 초기 언로로서의 구언」, 『규장각』 48,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3-93.
- 송혁기(2006), 『조선 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서울: 월인.
- 송혁기(2008), 「소차류(疏箚類) 산문의 입의(立意)와 수사(修辭) 양상 일고: 허적(許積) 논척과 관련한 소차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84-111.
- 송혁기(2011),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 연구』 48, 한국한문학회, 143-181.
- 송혁기(2014), 「재이(災異) 관련 응지상소문(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 사」, 『동아시아고대학』 33, 동아시아고대학회, 463-493.
- 신두환(2004),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33, 한 국한문학회, 235-263.
- 신명선(2009), 「필자의 '어성(語聲)'에 관한 작문 교육 내용 연구」, 『새 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19-256.
- 양경희(2012), 「쓰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독자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경희(2013), 「독자를 고려한 설득하는 글쓰기 지도」, 『작문연구』 17, 한국작문학회, 37 - 67.
- 엄훈(2002), 「조선 전기 공론 논변의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염은열(1996),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77-98.
- 오인환·이규완(2003),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47(3), 한국언론학회, 5-37.
- 우경조(2021), 「번역문체론 관점에서 The Vegetarian 분석: 평가어 이

- 론을 기반으로」, 『영어영문학』 26(2), 미래영어영문학회, 87-112.
- 유상희(2008), 「쓰기 과정에서 필자의 독자 고려 양상 연구」, 고려대학 교석사학위논문.
- 윤재환(2016), 「약천 남구만 상소문의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 『장소 휘고』와 『소차가칙』 소재 사직상소문을 중심으로 -」, 『한민 족어문학』 74. 한민족어문학회, 207-247.
- 윤지훈(2009),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대가의선비평(大家意選批評)』과 산문창작(散文創作)의 실제(實際)」,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99-132.
- 윤하나(2009),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강경-제술 논쟁'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완(2004), 「상소에 인용된 고사의 설득 용도에 관한 연구 -태조~명종실록의 상소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한국언론학회, 299-322.
- 이상배(2009), 「인조대 택당 이식의 관직생활과 현실인식」, 『백산학 보』 83, 백산학회, 521-548.
- 이성무(2007), 『조선시대 당쟁사 1』, 서울: 아름다운 날.
- 이슬기(2019), 「독자 고려 유형에 따른 논설문 표현 전략 비교 상위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65, 한국어교육학회, 63-97.
- 이승복(2010), 「<논윤원형소>의 글쓰기 전략」, 『고전문학과 교육』 1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59-78.
- 이영호(2005), 「이념 담론의 글쓰기 방법 연구 『열하일기』의 표현 전략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2013), 「논증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위계 화 방안 연구」,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9-442.
- 이영호(2014), 「고전산문 글쓰기를 활용한 작문 교육의 방향 연구」,

- 『작문연구』 22, 한국작문학회, 97-121.
- 이영호(2016), 「최명길의 상소문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 연구 병자봉사를 대상으로 , 『작문연구』 29, 한국작문학회, 65-93.
- 이종호(1991), 「선집의 역사와 경산 송백옥의 『동문집성』에 대하여」,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 이주영(2015), 「고전시가에 나타난 에토스의 설득력과 오늘날의 글쓰기 <관동별곡>에 구축된 에토스를 중심으로 -」, 『작문연구』 26. 259-284.
- 이재기(2019). 『(바흐친 수사학) 대화적 글쓰기의 추구』. 서울: 역락.
- 이태진(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서울대 학교 국사학과, 215-232.
- 임지원(2019),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민(2013), 「경험적 논거를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혜(2016), 「쓰기를 통한 에토스 구축의 가능성 모색 정체성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 『작문연구』 29, 131-161.
- 장지혜(2020),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정만조(1986), 「조선조시대의 언로와 상소」, 『담수』 15, 담수회, 144-153.
- 정시열(2012), 「한강 정구의 상소문 연구: 세군을 위한 수사의 요체」, 『한국학논집』 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5-84.
- 정혜승(2009), 「초등학생 필자의 독자 고려 정도와 방식」, 『국어교육 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397-427.
- 정혜승(2013), 『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혜승·서수현(2009), 「필자의 독자 고려 전략과 텍스트 실현 양상 -PAIR 전략을 중심으로 -」,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251-276.

- 정혜승·서수현(2010), 「중등학생 필자의 독자 인식 양상」, 『청람어문 교육』 39, 청람어문교육학회, 213-250.
- 정희모(2008), 「글쓰기에서 독자의 의미와 기능」,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393-418.
- 정희모(2012), 「페렐만의 보편청중 개념과 작문의 독자 이론 페렐만 (Perelman)과 파크(Park)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작문연구』 15, 한국작문학회, 159-187.
-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재우(2011), 「설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주재우(2019), 「농암의 사직상소문에 나타난 거절 표현 연구 표현교 육의 관점에서 -」, 『어문연구』 99, 어문연구학회, 239-264.
- 최선경(2011), 「<간페비소(諫廢妃疏)>의 수사학적 분석」, 『수사학』 15, 한국수사학회, 295-327.
- 최승희(2004), 『조선초기 언론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최식(2006),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3-227.
- 최영인(2014), 「설득 화법의 청중 고려 양상과 교육적 적용」,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자(1996),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 <간폐비소> 와 <간타위소> 를 중심으로 -」, 『선청어문』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05-121.
- 한강희(2019), 「조선 후기 공거문(公車文)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민(2016), 「조선 후기 승정원의 직제와 공간 구조」,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2.
- 劉勰 저, 최신호 역(1975), 『문심조룡(文心雕龍)』, 서울: 현암사.

- 韓非 저, 이운구 역(2002), 『한비자(韓非子)』, 서울: 한길사.
- Amossy, R.(2000), (L')Argumentation dans le discourse: discours politique, littérature d'idées, fiction. Paris: Nathan. 장인봉 외역(2003), 『담화 속의 논증』, 서울: 동문선.
- Aritoteles(미상), *Techne rhetorike/Peri poietikes.* 천병희 역(2017), 『수사학/시학』, 파주: 도서출판 숲.
- Вакhtin, М.(1975),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и эстетики : Исследован* ия разных лет. Moskva: Khudozh. lit. 전승희 외 역(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파주: 창작과비평사.
- Bakhtin, M.(1979), Ed. by S Bocharov,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 ства.* 김희숙·박종소 역(2006), 『말의 미학』, 서울: 도서출판 길.
- Breton, P. & Gauthier, J.(2000), *Histoire des théories de l'argumentation.* Paris: Editions La Decouverte. 장혜영 역 (2006), 『논증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hatman, S.(1978), Story and Discours: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홍재범 역(2019), 『이야기와 담화: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고양: 루덴스미디어
- Crismore, A., Markkanen, R., & Steffensen, M.S.(1993), Metadiscourse in Persuasive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10(1), pp.39 71.
- Crosswhite, J.(1996), *(The) rhetoric of reason: writing and the attractions fo argument.* Madison, Wi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오형엽 역(2001),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Ede, L. & Lunsford, A.(1984), Audience Addressed/Audience Invoked: The Role of Audience in Composition Theory and Pedagog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5(2), 155–171.

- Ewald, H.(1988), The Implied Reader in Persuasive Discourse. *Journal* of Advanced Composition 8(1/2), 167 178.
- Ewald, H.(1993), Waiting for Answerability: Bakhtin and Composition Studies. In Farmer, F.(eds)(1998), *Landmark Essays on Bakhtin, Rhetoric, and Writ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hnestock, J.(2011), Rehtorical Style: The uses of language in persuasioin. Oxford University Press.
- Flower, L. & Hayes, J.(1984), Imagies, Plans, and Prose: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1(1), 120–160.
- Hyland, K.(2005), Stance and engagement: a model of interaction in academic discourse. *Discourse Studies* 7(2), 173–192.
- Iser, W.(1978), (Der) Akt des Lesens. 이유선 역(1993), 『독서행위』, 서울: 신원문화사.
- Ivanič, R.(1998),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o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Kent, T.(1991), Hermeneutics and Genre: Bakhtin and the Problem of Communicative Interaction. In Farmer, F.(eds)(1998), *Landmark Essays on Bakhtin, Rhetoric, and Writ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enpointner, M.(1992), How to classify arguments. In Van Eemeren, F. H., Grootendorst, R., Blair, B., and Willard, C.(eds.). *Argumentation Illuminated*, Selected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gumentation in Amsterdam 1990. Amsterdam: Sicsat.
- Kirsch, G. & Roen, D.(eds.)(1990), A Sense of audience in written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Long, R.(1990), The Writer's Audience: Fact or Fiction?. In Kirsch, G. & Roen, D.(eds.)(1990), A Sense of audience in written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Martin, J. & White, P.(2005), *The Language of Evla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iller, C.(1984), Genre as social ac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0(2)*, 151–167.
- Morson, G. & Emerson, C.(1990), *Mikhai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오문석·차 승기·이진형 역(2006), 『바흐친의 산문학』, 서울: 책세상.
- Nystrand, M., Greene, S., and Wiemelt, J.(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An Intellectual History. *Written Communication* 10(3), 267–333.
- O'Keefe, D.(2016), *Persuasion: Theory an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Ong, W.(1975), The Writer's Audience is Always a Fiction. *PMLA* 90(1), 9–21.
- Ong, W.(1982), *Orality and Literacy.* Routledge. 이기우·임명진 역 (2009),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Petty, R. & Cacioppo, J.(1996),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Boulder: Westview Press.
- Park, D.(1982), The meaning of audience. *College English 44(3)*, 247–257.
-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58/1969), *The New Rhetoric:*A Treatise on Argumentation. Translated by John Wilkinson and Purcell Weav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erelman, C.(1984), The new rhetoric and the rhetoricians: Remembrances and comments. *Quarterly Journal of Speech*

- *70(2)*, 188–196.
- Roth, R.(1987), The Evolving Audience: Alternatives to Audience Accommodati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8(1), pp.47 55.
- Van Eemeren, F. et al.(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Mahwah, N.J.: L. Erlbaum.
- White, P.(2020), The putative reader in mass media persuasion stance, argumentation and ideology. *Discourse & Communication 14(4)*, 404–423.
- White, P.(2021), Textual anticipation and the putative reader in persuasive discourse. *Journal of Foreign Languages* 44(1), 2–20.
- Williams, J. & Colomb, G.(2007), *The Craft of Argument.* Pearson Educaion. 윤영삼 역(2008), 『논증의 탄생』, 서울: 홍문관.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Reader Construction in Sangsomun(上疏文) Writing

Kim, Shinwon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ncept of implied reader construction, its construction principle and aspects in persuasive writing, from the point of view that persuasive writing is the act of constructing meaning through dialogue with the reader. And it sought to prepare persuasive writing education content for developing reader awareness in student writers.

Theoretical study of persuasive writing and the concept of the reader revealed that the reader construction is a multi-layered concept that can be explained at three levels: the writing process, argumentation, and text construction. At the writing process level, reader construction is an abstract activity that occurs within the writer's cognition. The writer cognitively recognizes, represents, and

changes the real readers and visualizes their counterpart in the dialogue, i.e., a fictional reader. Next, at the argumentation level, reader construction comprises the building of a universal audience with universal rationality. At the text composition level, the reader constructed through the text content is built into the text as a strategy for communication with the real reader and functions as a role that the real reader is expected to adopt in the reading process, thus they can be viewed as an implied reader.

The implied reader is constructed by 'the representation of the real readers' and 'the dialogue between the writer and the narratee,' and it reveals the role or identity that the writer expects the real readers to develop. The narratee is the conversation partner that the writer constructs within the text, and the narratee's attitudes undergo adjustments as the text develops. The writer represents the attitudes of the real readers that they intend to change and makes them the subject of discussion with the narratee. Attitude can be categorized into the subject's emotional reactions, ethical judgments about people or actions, and evaluations of phenomena or things. The attitudes of the real reader can be explicitly expressed via direct descriptions or implicitly revealed in implications about whether the writer's attitude aligns with that of the real reader. The writer uses argumentation elements and persuasion strategies to develop the processes of the changes in some or all of the narratee's attitudes within the text, thereby constructing a preferable implied reader that is distinct from the real reader.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ader construction principle, the aspects of implied reader construction were examined in the specific writing genre of Sangsomun (Memorial to the Throne).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Sangsomun as a form of persuasive writing were examined first. Although the genre is characterized by having a despot as the recipient, it was found that the writers realized their responsive understanding in two ways: First, by putting kings' behaviors, attitudes and the utterances into discussions; Second, by expressing their answers or responses to the kings. The study of Sangsomun writing is educationally significant as it allows learners to experience the authentic site where writers generate writing contents and utilize persuasive strategies while considering a situation and the pupose of writing. Such experiences can als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learner's ability to recognize and respond to various conversation partners.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implied reader construction of Sangsomun revealed that the constructed the identities of the implied readers 'cooperative dialogue participants', 'observant of the value norms', and 'desirable executors of authority'. To this end, the writers separated the real reader, the implied reader and the narratee. The writers assumed changes in the attitudes of narratees in the process of justifying and establishing premises or used strategies to posit the narratees in the contemporary or historical contexts. It was confirmed that argumentation elements and persuasion strategies were used or combined as needed in motivating such changes.

Based on the study of the principles and aspects of reader

construction, educational content for implied reader construction in

persuasive writing was designed. An explicit teaching model was

applied in designing the content, and the educational content is

composed of 'understanding the implied reader construction in

Sangsomun' and 'performing persuasive writing by constructing the

implied reader'. Integrating reading activity with writing activity and

providing the learners with feedback focused on implied reader

construction suggested implied reader construction were as

educational methods.

This study finds its meanings i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implied reader construction in persuasive writ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persuasive writing as a responsive dialogue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in revealing the aspect of the construction

in the authentic data from Sangsomun, and in designing educational

contents for writing education.

Keywords: persuasive writing, reader construction, implied reader,

narratee, Sangsomun writing

Student Number: 2015-21911

- 180 -